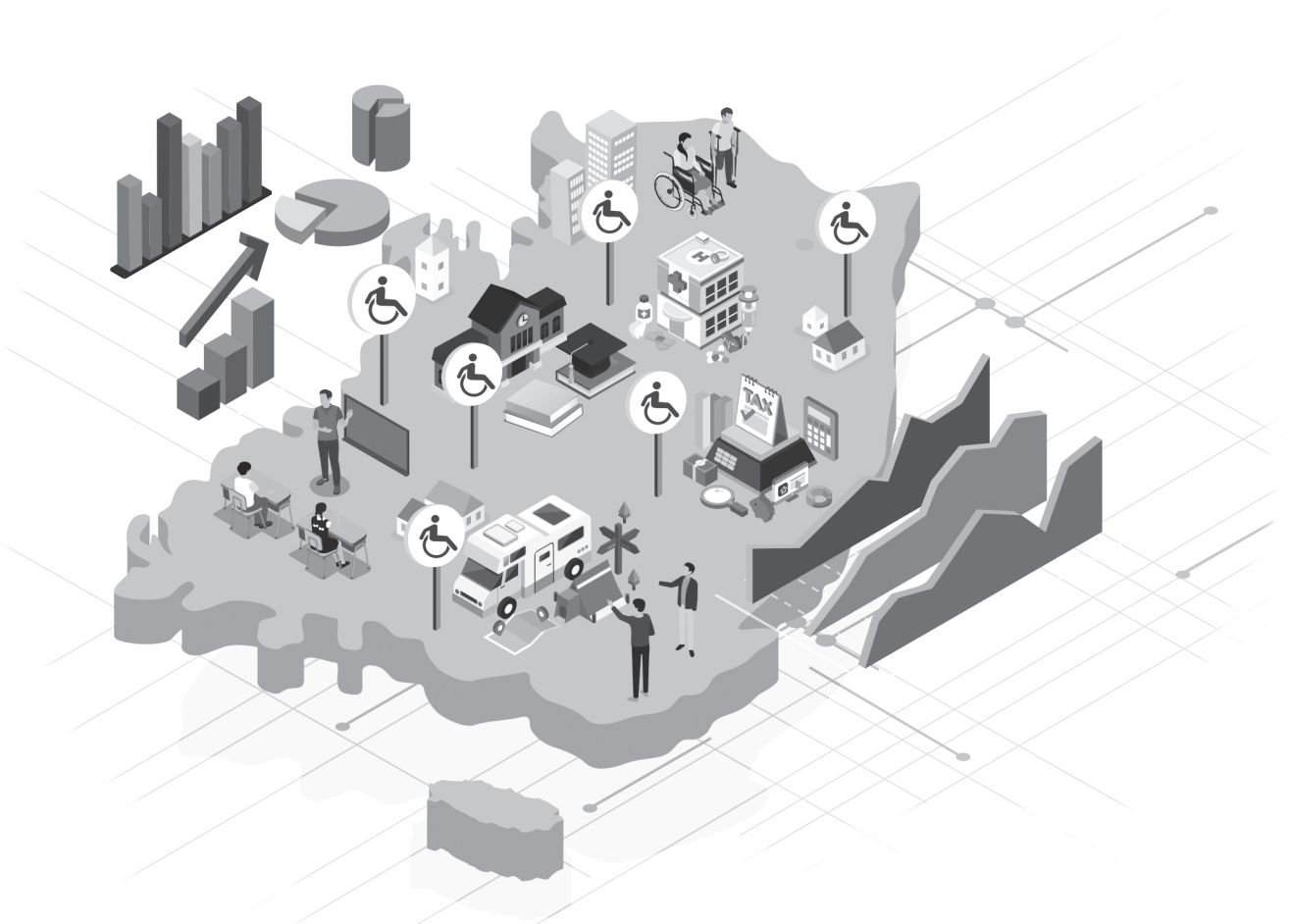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주관연구기관	(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연구진	이동석(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애학과 교수) 이호선(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외래교수) 김나영(대구대학교 대학원 장애학과 박사 수료)		
참여의원(국회)	김예지(국민의힘), 최보운(국민의힘),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강경숙(조국혁신당)		
참여의원(광역)	이소라(서울시의원), 박진수(부산시의원), 황순자(대구시의원) 박관순(인천시의원), 서용규(광주시의원), 황경아(대전시의원) 방인섭(울산시의원), 최원석(세종시의원), 이해원(경기도의원) 김기홍(강원도의원), 유상용(충청북도의원), 정병인(충청남도의원) 이병철(전라북도의원), 김미경(전라남도의원), 박선하(경상북도의원) 전현숙(경상남도의원), 김경미(제주특별자치도의원)		
협력기관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중앙정부 및 기관)
	서울특별시	강원도	교육부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I. 서론

1. 조사 배경과 목적	7
1) 비교 조사의 수행 배경	7
2) 수행 목적	8
3) 조사 개요와 수행 방법	8
2. 지표의 개발과 적용	8
1) 2024년 조사 지표의 개발과정	8
2) 2024년 조사 지표의 구성	9
3) 장애인 복지·교육 지표의 개념과 정의	9
4) 지표별 통계수치 표준화 및 점수산출	16
5) 지표의 가중치 적용	16
3. 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활용	20

II. 분야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

1. 교육 분야 종합 수준	22
2. 복지 분야 종합 수준	24
3. 교육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26
1) 교육 영역 지표	26
4. 복지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35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35
2)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45
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54
4)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63
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70

III.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

1. 서울특별시	81
2. 부산광역시	90
3. 대구광역시	99
4. 인천광역시	108
5. 광주광역시	117
6. 대전광역시	126
7. 울산광역시	135
8. 세종특별자치시	144
9. 경기도	153
10. 강원특별자치도	162
11. 충청북도	171
12. 충청남도	180
13. 전북특별자치도	189
14. 전라남도	198
15. 경상북도	207
16. 경상남도	216
17. 제주특별자치도	225

IV. 광역시 및 도 단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

1.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 비교 분석	237
2.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 분석	246

V. 결론 및 제언

1. 영역별 조사결과 및 제언	255
2. 시·도별 조사결과 및 제언	256

I 서론

1. 조사 배경과 목적

- 1) 비교 조사의 수행 배경
- 2) 수행 목적
- 3) 조사 개요와 수행 방법

2. 지표의 개발과 적용

- 1) 2024년 조사 지표의 개발과정
- 2) 2024년 조사 지표의 구성
- 3) 장애인 복지·교육 지표의 개념과 정의
- 4) 지표별 통계수치 표준화 및 점수산출
- 5) 지표의 가중치 적용

3. 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활용

1. 조사 배경과 목적

1) 비교 조사의 수행 배경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실시되고 2005년도에 많은 복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민의에 기반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적용과 정착은 다양한 정책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지역별로 매우 다른 수준의 생활수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05년 분권교부제도의 도입 이후 시작된 사회복지 사업의 지방 이양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의 자율권을 늘리기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와 지역 간 격차 심화와 같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이면서도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장애인복지를 개발 보급할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에 민간 장애인단체의 우산조직 역할을 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각 사·도의 복지 및 교육 수준을 매년 비교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각 사·도 간 격차를 확인하고 상향평준화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전국 사·도별 장애인복지 및 교육 수준 비교 조사를 시행해 왔다. 특히 이 조사는 사·도 간 장애인복지 수준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조사 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격려하고 분발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독려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 왔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제도의 순기능인 지역밀착형 장애인복지제도를 발전시킴과 더불어 역기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대한민국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매년 모든 지표를 조사하는 데 따르는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지난 제7기 지방자치단체장부터 임기 연차에 따라 조사 영역을 조절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8기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2023년도에는 교육 분야와 더불어 복지 분야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만을 조사하였다. 2024년도는 임기 2년차인 2023년도에 시행했던 장애인복지 사업과 교육자치 제도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으로 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간 평가에 가깝다. 이에 따라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의 모든 영역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조사의 비교 결과는 장애 관련 정책 수준의 지역 간 비교를 토대로 각 지방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탐색하고, 올해 새로 시작한 지방정부가 보완과 개선을 위해 더욱 역점으로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지자체장 임기별 복지 분야 조사 영역

구분	임기 1년	임기 2년	임기 3년	임기 4년
조사 방식	테마 분야 조사 (소득 및 이동 중심)	지표 전체 조사 (지자체장 중간평가)	테마 분야 조사 (보건 및 서비스 중심)	지표 전체 조사 (지자체장 평가)

2) 수행 목적

본 비교 조사의 수행 목적은 시도별 장애인복지 수준의 비교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수준과 교육 지원 수준을 파악·분석하고, 각 시도별 강점과 취약점을 확인하고, 시도 간 장애인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통해 지역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조사 개요와 수행 방법

본 비교 조사는 2024년 3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가 다루고 있는 범위는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교육의 현황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 해인 2023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시도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등과 관련된 자료의 취합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국에서 담당하였고 자료 분석 및 집필은 공동 연구진 3인이 담당하였다. 자료 수집은 조사, 회신을 통한 방법과 자체 자료 수집 방법이 병행되었다. 조사, 회신을 통한 수집은 2024년 4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17개 시도,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중앙정부 소속 공공기관에 조사 지표와 조사 양식(부록 2 참조)을 배부하고 회신받았다.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타 자료와의 대조, 지역 내 연차별 비교, 지역 간 비교를 통한 추가적인 설명과 수정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지자체 자료는 1차 취합 검토 후 재요청, 추가요청 등의 과정을 거쳤고, 공공기관은 기관별 자료 요청, 정보공개 등의 방법으로 취합하였다. 자체 자료 수집은 교육 분야의 경우 ‘2023년 특수교육 통계’와 ‘2023년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고 복지 분야는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202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보장 통계 등을 활용하였다.

조사 지표와 조사 양식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활용된 지표를 기본으로 일부 지표 명칭과 계산 방식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시도별 조사 지표는 시도별 담당자에게 사전 수렴 기간을 거쳐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동일한 지표는 2023년과 비교하여 전년 대비 상승 또는 하락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시도가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2. 지표의 개발과 적용

1) 2024년 조사 지표의 개발과정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활용되었던 지표를 기초로 활용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동일한 지표를 주 지표로 선정한 후, 최근의 장애인 관련 법률과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그리고 장애인복지 관련 행정자료를 추가로 분석하여 지표를 완성하고 연속성 있게 활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4년 조사에서도 주 지표의 구성은 가급적 유사하게 유지하였다.

다만 일부 제도의 변경이나 기존 지표 중 측정이 모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지표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통해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을 시도하여 2024년 조사를 위한 지표의 초안을 작성하고, 2024년 2월에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의견을 취합하였다. 이에 전라북도 등에서 의견을 보내주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개별지표의 정의와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2024년의 최종 지표를 마련하였다.

2) 2024년 조사 지표의 구성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조사에 활용된 최종 조사 지표는 대부분 기존과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대분류에서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로 구성되었다. 교육 분야는 ‘교육 영역 1개, 8개 지표로 구성되었고,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 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과 같은 5개 영역, 35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분야 및 영역별 지표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024년 조사 지표의 구성

분야 및 영역			지 표 수
1	교육	교육	8
2	복지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8
		2 보건 및 자립 지원	7
		3 복지서비스 지원	8
		4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5
		5 복지행정 및 예산	7

3) 장애인복지·교육 지표의 개념과 정의

조사 지표의 대분류는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로 구성되었고, 교육 분야는 ‘교육 영역’ 1개로 구성되고, 복지 분야는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1) 교육 분야(영역)

교육 영역은 전년 지표에서 활용된 8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최종 지표는 재정 관련 부분, 공급 관련 부분, 수요 관련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재정적인 부분에는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과 같은 2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공급 측면에는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 인력(실무사) 배치율과 같은 3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수요 측면에는 통합교육 학생 비율,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와 같은 2개 지표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영역에 장애인 교원이 참여하는 것을 장애인 교육 수준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조사에서 사용한 교육 영역 지표 및 산정 방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교육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산정방식
①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천원)	사·도 특수교육 예산 / 특수교육대상자 수
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사·도 특수교육 예산 / 사·도 교육청 총 교육예산 × 100
③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학급 수 / 일반학교 전체 학급 수 × 100
④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유치원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 × 4 × 100
	[초등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 초등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6 × 100
	[중·고등학교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7 × 100
⑤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보조인력 수(유급과 무급 포함 전체) /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100
	유급 보조인력 수 / 특수교육대상자 수(특수학교 학생 + 특수학급 학생 + 일반학급 장애학생) × 100
⑥ 통합교육 학생 비율(%)	(특수학급 학생 수 + 일반학급 장애학생 수) / 특수교육대상자 수 × 100
⑦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개)	[(특수학급 수 + 특수학교 학급 수) / (특수학급 학생 수 + 특수학교 학생 수)] × 10
⑧ 장애인 교원 고용률(%)	사·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2배수 고용제 적용)

(2) 복지 분야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과 같은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각 사·도의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등 경제활동 지원 여건과 장애인 연금, 각종 수당 등 소득 보전 제도의 운용 수준 등을 조사한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8개 지표는 ①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 ②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③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④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⑥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⑦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⑧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이다.

〈표〉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	민간 부문 고용 장애인(2배수 고용제 적용) 수 / 민간 부문(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적용 대상 인원×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②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2배수 고용제 적용) 수 / 적용 대상 공무원(소방직 등은 제외) 수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③ 지자체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물품 구매액 / 지자체 물품 총구매액 ×100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④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원)	장애아동수당 및 지자체 추가지급액 총액 / 장애아동수당 전체 지급자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지급자 수는 연인원
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원)	장애수당 및 지자체 추가지급액 총액 / 장애수당 전체지급자 수 (가중치의 50% 적용)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장애인연금·부가급여(중증장애인) 지급총액 / 장애인연금 전체지급자 수 (가중치의 50% 적용)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지급자 수는 연인원
⑥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건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 장애인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⑦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총액 / 근로 대상 연령층의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18세 이상 55세 미만)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⑧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이용자 수(직업재활교사 등 종사자 제외) / 근로대상 연령층의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18세 이상 55세 미만)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②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각 사도의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보 수준과 각종 의료비와 보조기기의 지원 수준,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지원의 수준 등을 조사한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7개 지표는 ①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② 보조기기 지원 수준, ③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④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⑥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⑦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이다.

〈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예산(국고+시도 자체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시·도 자체사업은 의료급여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예산 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약제비(비급여, 입원식대 등)를 지원하거나 지자체 자체 사업(예, 저소득장애인 의료 지원 등), 지역재활병원(장애인·장애아동 전문병원) 건립·운영 예산총액, 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의료 이용을 위한 교통비 지급(신장장애인), 구강진료 센터 지원(단, 중앙정부 지원 제외)을 폭 넓게 인정함(사업실적 및 예산 자료 제출 필요)
② 보조기기 지원 수준(% , 원)	보조기기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 건수 + 보조기기 교부 건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보조기기 구입비용 의료급여 지급 총액 + 보조기기 교부 예산 총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③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일반건강검진 수검인원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④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일, 원)	장애인 산모 도우미 파견 총 일수 / 2023년에 출산지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 받은 실 인원수 ※ 삼태아 포함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예산 총액 / 2023년에 출산지원비 및 검진비를 지원 받은 실 인원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⑤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수준 (% , 원)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인원수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중치의 40% 적용)
	만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인원수 /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중치의 10% 적용)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및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총급여액(원)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가중치의 40% 적용)
	만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활동지원급여) 및 지자체 추가 지원사업 총급여액(원) /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가중치의 10% 적용)
⑥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예산·체험홈 지원예산 /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⑦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원)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주거지원 제공사업(장애인 대상의 집수리, 주거환경 개선(주택수리·주택개조사업 등), 주거비 지원* 등) 예산액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장애인 주거비 지원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및 관련 사업자에게 지원한 동법 '제12조 주거약자용 주택 임대사업자 지원', '제15조 주택개조비용 지원' 예산과, '장애인 대상의 지원주택 관련 예산(임대보증금, 임대료,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 '장애인 대상 전월세 대출보증료 및 이자지원' 등 관련 사업 실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폭넓게 인정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③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각 사도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설 및 관련 인력의 확보수준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 인프라의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하위 8개 지표로 구성된다. ①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②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③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④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⑥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⑦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⑧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이 포함된다.

〈표〉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지표 및 산정 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개소) (1만명 당 ○개소)	장애인복지관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②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개소) (5천명 당 ○개소)	직업재활시설 수 / 18세 이상 55세 미만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수 × 5,000(취업연령대 성인장애인 5천명 당 직업재활시설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③ 장애인복지관 ·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개소) (1만명 당 ○개소)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수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 + 자립생활지원센터 수 + 기타 장애인이용기관(①,②,④)을 제외한 지자체 운영 장애인지원센터: 자립생활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 지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기타 센터...지자체가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사업에 한해 인정)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장애인 1만명 당 장애인복지관 외 법정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④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개소) (1만명 당 ○개소)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 (장애인 1만명당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명) (1만명 당 ○개소)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①장애인복지관, ②장애인복지관 외 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 및 기타 비법정지역사회재활시설)의 종사자 수 / 등록장애인 수 × 10,000 (장애인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 ※ 2023년 12월 31일 근무 종사자 현원 기준
⑥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명) (이용자 10명 당 ○명)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수 /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수 × 10 (이용장애인 10명 당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수) ※ 2023년 12월 31일 근무 종사자 현원 기준
⑦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명) (이용자 10명 당 ○명)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 거주시설 + 단기거주시설 +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수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수 × 10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10명 당 종사자수) ※ 2023년 12월 31일 근무 종사자 현원 기준
⑧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수 /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④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각 사도에 구축된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인프라와 문화, 체육, 여가 활동, 정보 접근 지원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하위 5개 지표는 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② 저상버스 확보 수준, ③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④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해당된다.

〈표〉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장애인콜택시, 임차택시(장애인만을 위한 전담 차량에 한해 인정(주1)),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 수 / 장애인콜택시 의무대수 × 100 ※ (주1) 일반 승객도 태울 수 있는 경우 전체 승객 중 장애인 비율을 파악하여 인정. 예를 들어 50대인데 이 중 장애인 비중이 20%라고 하면 10대로 인정.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② 저상버스 확보 수준(%)	저상버스(주1) 보급대수 / 전체 등록 시내버스 대수 × 100 ※ (주1) 중형 저상버스 제외, 대형 저상버스만 해당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③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받은 시설 수(누적 수) / 전체 지자체기관 수(주1) × 100 ※ (주1) 지자체기관 수: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시·도/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위탁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기관 등은 제외)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④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문화·여가 활동 바우처(문화바우처+스포츠(관람)바우처+여행바우처) 지원받은 장애인 수(연인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 예산 지원액(원)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정보통신접근 관련 명목(주1)으로 지출된 예산총액 / 64세 이하 등록장애인 수 ※ (주1) 정보통신접근 관련 명목: 장애인의 정보 및 매체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예를 들어 정보통신보조기기 지급, PC 보급 및 수리, 정보화 교육, 장애인 정보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점자소식지 발간, 독서보조기기 지원 등이 포함. 단, 통신요금, TV 수신료 등 공공요금 성격의 비용과 관련 기관 운영비 지원은 제외 ※ 2023년 12월 31일 집행액 기준, 광역예산만 해당

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각 사도가 장애인복지 행정 및 사업 수행을 위해 구축하여 운영 중인 조직과 인력 등의 인프라와 예산의 구성 수준을 비교 조사한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하위 7개 지표들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①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②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③ 기관별 장애인관련 조례 수, ④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⑥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⑦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포함된다.

〈표〉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지표 및 산정방식

지표	산정 방식
①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명) (1만명 당 ○명)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주1) 수(광역시+기초(읍·면·동 제외), 자격증 소지(주2)시 가점 부여) / 등록장애인 수 × 10,000 ※ (주1)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 장애인복지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 (주2)자격증 소지 :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수어통역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보조공학사 등 장애인복지 관련 자격 또는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종사하는 전문분야 자격(편의시설 담당자의 건축사 자격 등)에 한함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주1) 수(광역시+기초(읍·면·동 제외), 자격증 소지시 가점 부여) / 등록장애인 수 × 10,000 ※ (주1)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 장애인복지 외 업무와 함께 한 가지 이상의 장애인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②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건, 명)	장애인관련 위원회 회의 총 개최횟수(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근거하여 조례에 의해 설치·구성된 위원회로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정책(계획) 또는 예산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한함
	장애인 관련 위원회 장애인 당사자 위원 수/장애인 관련 위원회 총 위원 수(명)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③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건)	장애관련 조례 수(광역시+기초) ※ 기초단체의 경우 광역단체 조례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내용으로 제정한 경우 조례수에 편입하지 않음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④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원, %)	2023년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2023년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2023년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예산총액] / (지방자치단체 65세 미만 등록장애인구 / 지방자치단체 전체 인구)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2023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장애인복지 자체 예산(국비예산을 제외한 시·도비예산) / 2023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2023 지방자치단체(기초) 장애인복지 자체 예산(국비와 시·도비예산을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사·군·구비 예산) / 2023 지방자치단체(기초) 장애인복지 예산총액 × 100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표	산정 방식
⑥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원) (1인당 ○원)	지방자치단체(광역시)의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액(주1)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예산지원이 된 장애인단체 모두 포함 ※ (주1)수탁(위탁)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지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⑥-2 지방자치단체(기초)의 순수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액(주1) 총액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수 ※ 예산지원이 된 장애인단체 모두 포함 ※ (주1) 수탁(위탁)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지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⑦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원)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장애인여성 관련 지원예산액 / 광역자치단체의 65 미만 등록 여성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기초) 장애인여성 관련 지원예산액 총액 / 광역자치단체의 65세 미만 등록여성장애인 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4) 지표별 통계수치 표준화 및 점수산출

지표별 수집 자료는 지표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지표값의 단위가 사람 수, 기관 수, 예산, 비율 등으로 상이하어 표준화(0~1점)하여 수준을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준화는 해당 지표에서 최고 수준의 지자체 통계치를 기준 점수인 1점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의 점수 수준을 기준 점수 1점에 대비하여 재 점수화하였다.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값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지표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5) 지표의 가중치 적용

지표별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는 기존 연구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1) 영역별 가중치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교육은 단일 영역 100점으로 계산되며 복지는 5가지 하위영역의 합이 100점으로 계산된다. 복지 하위영역별 점수는 ① 소득 및 경제활동 21.242점, ② 보건 및 자립지원 20.184점, ③ 복지행정 및 예산 20.042점, ④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 19.618점, ⑤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18.913점이다.

(2) 세부지표별 가중치

① 교육영역

교육영역 지표는 9개이다. 가중치가 반영된 지표별 점수는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11.364점, 통합교육 학생비율 11.236점,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11.192점,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과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이 각 11.150점,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11.106점, 특수학급 설치율 10.892점, 장애인 교원 고용률 10.762점이다.

② 복지영역

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하위영역의 지표는 8개이다. 가중치가 반영된 지표별 점수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2.815점,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2.784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2.753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2.701점,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2.649점,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2.618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2.597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2.327점이다.

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지표는 7개이다. 가중치가 반영된 지표별 점수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3.063점,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과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이 각 3.009점,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2.845점,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2.812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 2.779점,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2.699점이다.

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지표는 8개이다. 가중치가 반영된 지표별 점수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2.570점,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2.521점,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512점,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2.463점,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444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405점,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2.395점,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2.308점이다.

라.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지표는 5개이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3.888점,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3.827점, 저상버스 확보 수준 3.767점,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 예산 지원액 3.722점,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3.707점이다.

마.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지표는 7개이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3.042점,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3.030점,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과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각 2.906점,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2.783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2.749점,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2.626점이다.

장애인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 지표들의 최종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표〉 지표별 가중치

영역 ¹⁾	지표	점수(A) ²⁾	점수(B) ³⁾	점수(C) ⁴⁾ 최종가중치
교육 (100점)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5.585	-	11.192
	특수교육예산 지원비율	5.543	-	11.106
	특수학급 설치율	5.435	-	10.892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5.564	-	11.150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5.564	-	11.150
	통합교육 학생비율	5.607	-	11.236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5.671	-	11.364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5.564	-	11.150
	장애인 교원 고용률	5.371	-	10.762
소득 및 경제활동 (21.242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5	12.714	2.701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808	12.225	2.597
	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비율	4.846	12.323	2.618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4.904	12.469	2.649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5.154	13.105	2.784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4.308	10.954	2.327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5.212	13.252	2.815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5.096	12.958	2.753

1) 영역별 우선순위 가중종합 점수

2) 지표별 우선순위 가중종합 점수

3) 지표별 우선순위 가중점수 값 대비 백분율 환산 점수

4) 지표별 우선순위 가중점수 값 대비 백분율 환산 점수 * 영역별 우선순위 가중종합 점수

영역5)	지표	점수(A)6)	점수(B)7)	점수(C)8) 최종가중치
보건 및 자립지원 (20.184점)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5.694	14.092	2.845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	5.563	13.766	2.779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5.343	13.226	2.669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5.628	13.929	2.812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6.022	14.904	3.009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6.132	15.176	3.063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6.022	14.904	3.009
복지서비스 지원 (19.618점)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5.000	12.852	2.521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5.096	13.099	2.570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4.885	12.556	2.463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4.577	11.765	2.308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4.846	12.457	2.444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4.981	12.803	2.512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4.769	12.259	2.405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4.750	12.210	2.395
이동(편의)·문 화여가·정보 접근 (18.913점)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7.032	20.677	3.888
	저상버스 확보 수준	6.815	20.041	3.767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6.923	20.359	3.827
	장애인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707	19.724	3.707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6.733	19.802	3.722
복지행정 및 예산 (20.042점)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1만 명당 장애인복지담당공무원 수)	5.706	14.502	2.906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5.155	13.102	2.626
	기관별 장애인관련조례 수	5.463	13.886	2.783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5.971	15.173	3.042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5.948	15.117	3.030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5.706	14.502	2.906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5.398	13.718	2.749

5) 영역별 우선순위 가중종합 점수

6) 지표별 우선순위 가중종합 점수

7) 지표별 우선순위 가중점수 값 대비 백분율 환산 점수

8) 지표별 우선순위 가중점수 값 대비 백분율 환산 점수 * 영역별 우선순위 가중종합 점수

3. 결과 보고서의 작성과 활용

2022년 보고서에서도 2013년부터 적용한 인포메이션 그래픽을 적용하여 각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의 현황을 컬러와 이미지를 통해 주요 결과 값을 제시하였다. 4개 등급의 분류방식은 다음과 같다.

- 우수(green): 지표별 전국 평균을 상회한 지방자치단체 중 지표별 최고 값과 전국 평균값의 중간 값 이상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 양호(blue): 지표별 전국 평균을 상회한 지방자치단체 중 지표별 최고 값과 전국 평균값의 중간 값 미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 보통(yellow): 지표별 전국 평균에 미달한 지방자치단체 중 지표별 전국 평균값과 최하 값의 중간 값 이상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 분발(orange): 지표별 전국 평균에 미달한 지방자치단체 중 지표별 전국 평균값과 최하 값의 중간 값 미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최하 - 최하위 점수

최고 - 최상위 점수

↓ 해당지표의 평균점수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지표별 전국 평균값과 최하 값의 평균값 미만	지표별 전국 평균값과 최하 값의 평균값 이상	지표별 최고 값과 전국 평균값의 평균값 미만	지표별 최고 값과 전국 평균값의 평균값 이상

II장 분야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는 다음 내용을 수록하였다. 먼저 종합 교육분야, 종합 복지분야, 교육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와 복지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표별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해당 지자체를 표기하였다. 지자체명의 표기 순은 점수 순이 아니라 정부에서 사용하는 지자체 배치 순서이다. 다음으로, 지자체별 세부 지표 수준을 3년 치 또는 2년 치 자료를 비교하여 금년 등급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노력 정도나 변화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장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는 다음 내용을 수록하였다. 먼저, 지자체별로 영역별 점수와 전국 평균을 그래프로 제시하여 해당 지자체가 전국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하기 용이하게 시각화하였다. 다음으로, 세부 지표별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별로 전반적 수준, 강점, 취약점,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를 정리하여 정책수립과 반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V장에서는 주제별 분석을 추가하였다. 올해에는 시도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도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일부 시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정자립도와 교육 수준, 재정자립도와 복지 수준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각 시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V장 결론 및 제언은 주요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제언을 통해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II

분야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

1. 교육 분야 종합 수준
2. 복지 분야 종합 수준
3. 교육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 1) 교육 영역 지표
4. 복지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2)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 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4)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연도별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

(단위: 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80.06	75.65	82.77	76.69	76.98	86.96	82.55	87.69	75.67	78.02	82.28	84.79	82.04	80.71	74.45	79.70	75.02	80.18
2023	74.96	70.80	68.42	69.43	71.67	86.30	77.32	86.90	65.94	70.81	73.46	76.94	74.80	68.08	67.81	73.63	66.46	73.16
2024	71.08	62.70	65.78	60.34	66.33	76.41	71.08	78.41	56.28	61.42	62.45	68.21	64.43	58.53	58.40	67.28	64.34	65.54
2023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5.46	-12.92	-4.01	-15.06	-8.05	-12.94	-8.78	-10.83	-17.16	-15.29	-17.63	-12.80	-16.09	-16.32	-16.11	-9.44	-3.29	-11.63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은 2022년 80.18점, 2023년 73.16점, 2024년 65.54점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9.6% 하락하였고,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1.63% 하락하였다. 3년 연속 장애인 교육분야의 종합 수준은 하락하였고 모든 지자체가 3년 연속 하락하였다.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에는 1.18배(87.69/74.45), 2023년에는 1.32배(86.90/65.94), 2024년에는 1.39배(78.41/56.28)로 지역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장애인 교육 분야'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대비 모든 지자체의 장애인 교육분야 종합 수준은 하락하였으며, 그 중 충북이 17.63%로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모든 지자체의 교육 종합 수준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17개 시도 모두 장애인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와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부산, 인천, 강원은 3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경남

대전, 세종



연도별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 수준

(단위: 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56.48	50.61	54.07	48.01	55.27	62.48	57.36	55.20	51.81	51.63	49.60	50.74	48.05	49.36	48.73	56.39	67.07	53.7
2024	65.85	56.01	48.87	47.58	57.35	67.15	55.40	53.90	54.54	50.48	36.90	50.29	51.05	44.83	46.37	45.91	62.65	52.65
2022대비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향상률	16.59	10.67	-9.62	-0.90	3.76	7.47	-3.42	-2.36	5.27	-2.23	-25.60	-0.89	6.24	-9.18	-4.84	-18.58	-6.59	-1.96

복지 분야의 경우 2023년도에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만 조사하였기 때문에, 3년 동안의 경향을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2022년 조사와 2024년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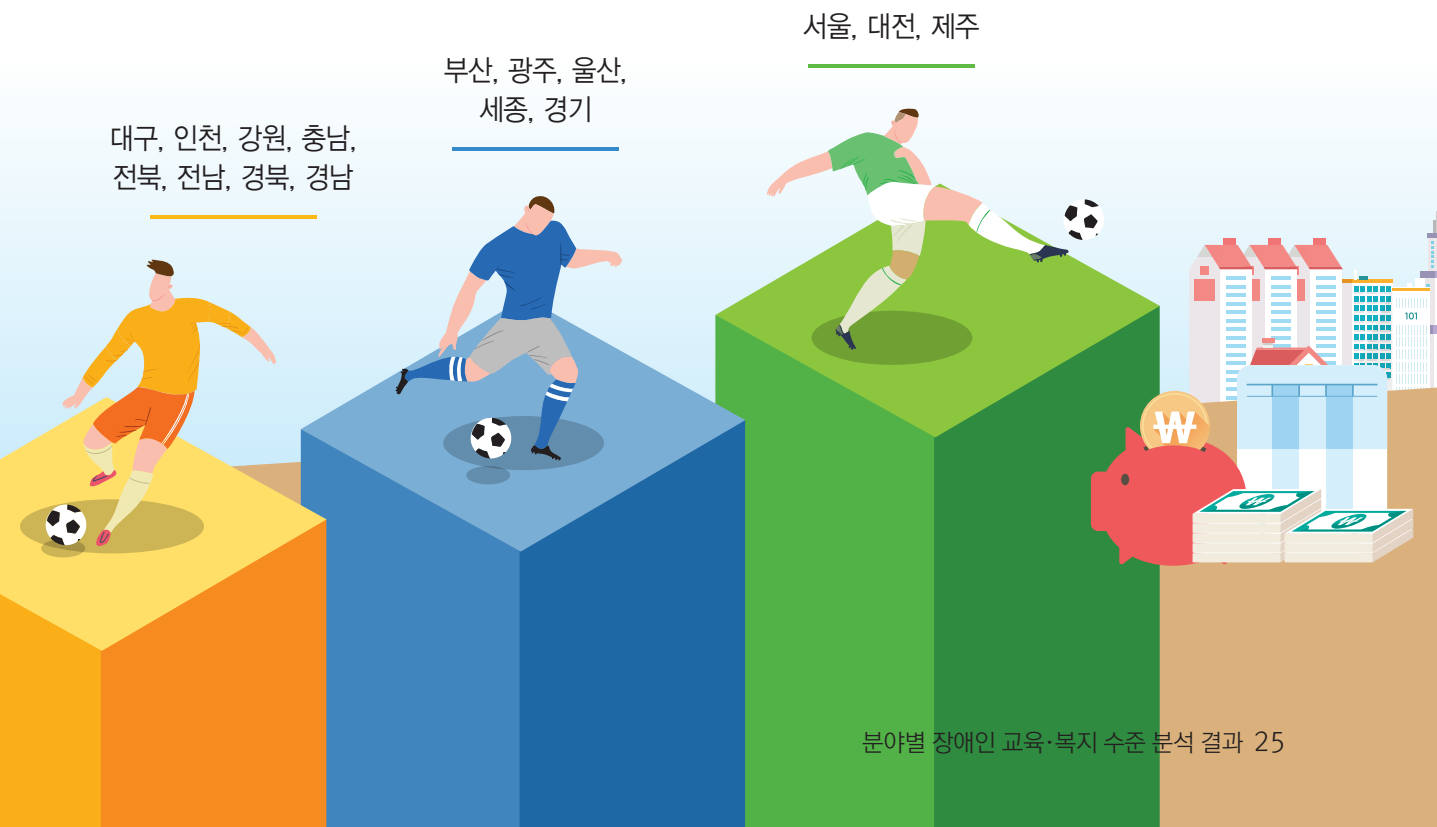
전국 평균은 2022년 53.70점에서 2024년 52.65점으로 1.96% 하락하였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아 2년 동안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등급의 변화는 있었다. 대전과 제주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서울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광주, 울산, 세종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양호 등급이었고, 부산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경기는 2022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강원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보통 등급이었고, 대구, 경남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인천,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상향되었다.

충북은 2022년,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은 장애인복지 분야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2022년, 2024년 모두 평균 이하 등급에 속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도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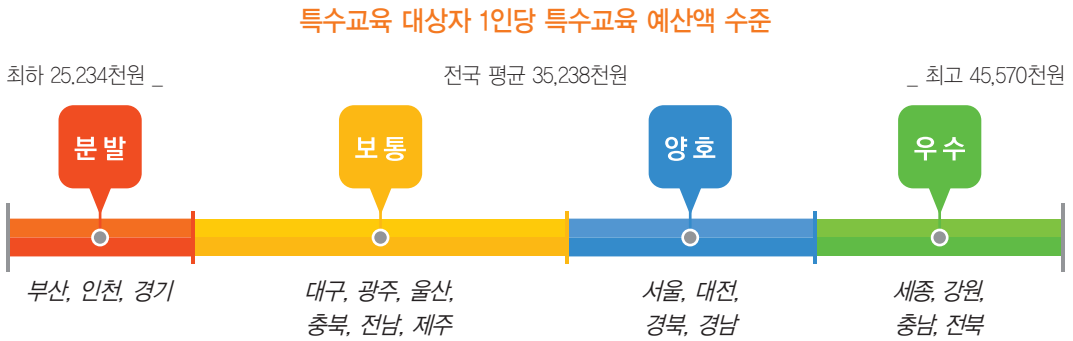


3. 교육 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1) 교육 영역

교육 영역은 ①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③ 특수학급 설치율, ④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⑤ 특수학급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⑥ 통합교육 학생 비율, ⑦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⑧ 장애인 교원 고용률과 같은 8개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1)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평균은 35,238천원(최고 45,570천원, 최하 25,234천원)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강원, 충남, 전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전, 경북, 경남 4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남,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인천, 경기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강원이 45,570천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가 25,234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

(단위: 천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2,681	29,224	42,323	27,012	30,294	34,684	20,099	59,439	26,513	39,615	34,450	36,306	42,222	35,580	27,134	33,525	24,815	34,424
2023	35,407	30,649	27,125	26,518	40,470	43,787	29,075	57,048	22,263	39,915	31,513	38,270	40,697	31,110	34,143	34,689	27,754	34,731
2024	38,914	30,227	30,606	25,839	33,861	36,197	32,918	43,636	25,234	45,570	30,629	43,770	43,643	30,587	35,383 (단위: 천원, %)	40,017	32,020	35,238
2023 대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9.01	-1.40	11.37	-2.62	-19.51	-20.97	11.67	-30.73	11.77	12.41	-2.88	12.56	6.75	-1.71	3.50	13.31	13.32	1.44
3년 연속 상승	서울, 울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3년 연속 하락	인천, 세종, 충북, 전남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2022년 34,424천원, 2023년 34,731천원, 2024년 35,238천원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0.88% 상승하였고, 2023년 대비 2024년에는 대비 1.44%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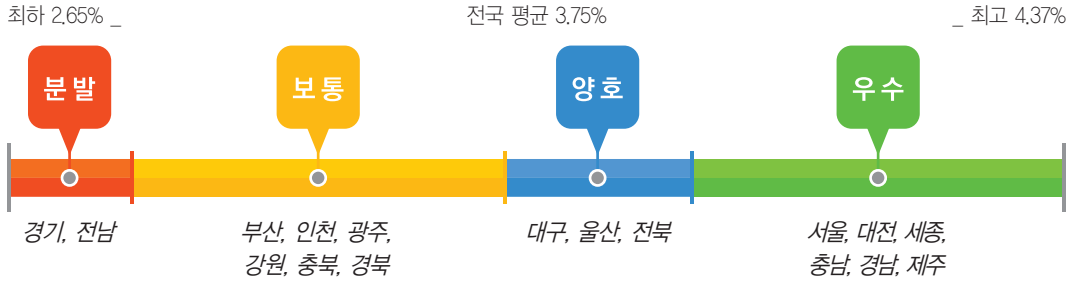
2023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10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남 7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20.97 ~ 13.32% 사이로 나타났으며 제주의 상승폭이 13.32%로 가장 크고, 세종이 30.73%로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울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인천, 세종, 충북, 전남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4년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평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강원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년 연속 상승하는 지역 중 강원과 충남은 양호에서 우수 수준으로 1등급 상승하였고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향상률이 높은 편으로 장애인 교육 예산 증대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대구와 제주는 분발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경북과 경남은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강원, 충남, 전북은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광주는 양호에서 보통으로 부산은 보통에서 분발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주는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종의 경우 3년 연속 우수 수준인 반면 3년 연속 향상률이 하락하고 있어 장애인 교육 예산을 증대 또는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3년 연속 향상률이 하락하는 또 다른 지역인 인천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향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수준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평균은 3.75%(최고 4.37%, 최하 2.65%)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전, 세종, 충남,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대구, 울산, 전북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경북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전남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충남이 4.37%로 가장 높고, 전남이 2.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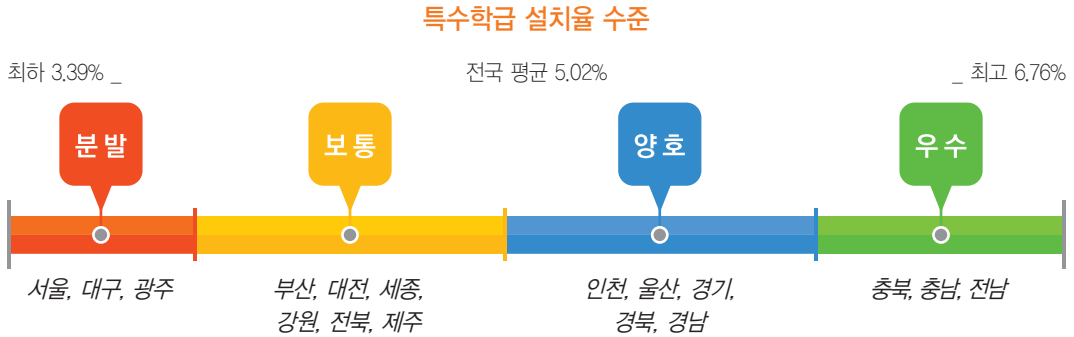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4.35	4.06	5.96	4.08	3.83	5.20	4.31	4.66	3.63	3.68	5.10	5.01	4.54	3.94	3.23	4.25	3.51	4.31
2023	4.45	4.24	3.51	3.87	5.02	5.90	3.85	5.99	2.79	3.29	4.45	4.49	4.07	2.99	3.68	4.21	3.75	4.15
2024	4.19	3.75	3.84	3.66	3.66	4.17	4.00	4.21	3.05	3.25	3.27	4.37	3.80	2.65	3.47	4.31	4.12	3.75
2023 대비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향상률	-6.20	-13.07	8.59	-5.74	-37.16	-41.49	3.75	-42.28	8.52	-1.23	-36.09	-2.75	-7.11	-12.83	-6.05	2.32	8.98	-10.67
3년 연속 상승	제주																	
3년 연속 하락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전국 평균은 2022년 4.31%, 2023년 4.15%, 2024년 3.75%로 2022년 대비 2023년은 3.86%, 2024년은 2023년 대비 10.67% 하락하였다. 2023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대구, 울산, 경기, 경남, 제주 5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2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42.28 ~ 8.98%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제주가 유일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4년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수준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는 지역은 세종(-42.28%)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대전은 3년 연속 우수 수준이며 경기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제주는 전년도 대비 보통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2단계 상승하였고, 서울, 충남, 경남은 양호에서 우수 수준, 대구, 울산, 전북은 보통에서 양호 수준으로 향상하였고, 강원은 분발에서 보통 수준으로 향상되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충북, 광주는 양호에서 보통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경기, 강원, 경북, 전남, 인천은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이므로 예산 비율의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3)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 평균은 5.02%(최고 6.76%, 최하 3.39%)로 나타났다. 우수는 충북, 충남, 전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5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제주 6개 지역이고, 본발은 서울, 대구, 광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남이 6.76%로 가장 높고, 서울이 3.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55	3.77	3.59	4.63	3.32	4.31	4.56	4.26	4.57	4.37	5.51	5.86	4.04	5.55	4.50	4.60	3.87	4.40
2023	3.92	4.02	3.81	5.02	3.51	4.52	4.97	4.72	4.91	4.67	6.22	6.21	4.39	6.13	4.77	5.05	4.08	4.76
2024	3.39	4.21	3.87	5.22	3.76	4.72	5.39	4.70	5.29	4.88	6.71	6.59	4.70	6.76	5.12	5.49	4.50	5.02
2023 대비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15.63	4.51	1.55	3.83	6.65	4.24	7.79	-0.42	7.18	4.30	7.30	5.76	6.59	9.32	6.83	8.01	9.33	5.18
3년 연속 상승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년 연속 하락	-																	

전국 평균은 2022년 4.40%, 2023년 4.76%, 2024년 5.02%로 3년 연속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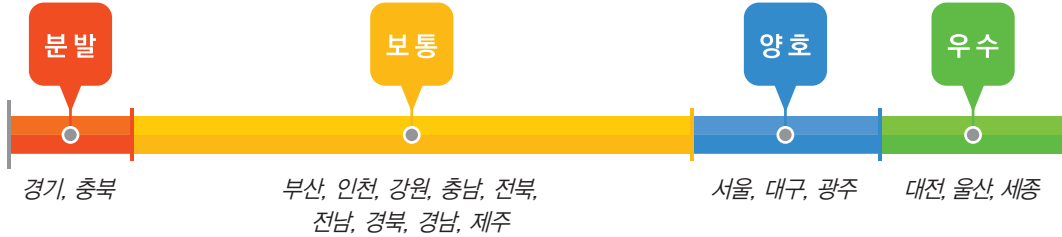
2023년 대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개 지자체가 상승하였으며, 서울과 세종 2개 지자체는 하락하였다. 향상률의 폭은 -15.63% ~ 9.33%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의 지자체가 3년 연속 상승하였다.

2024년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3년 간 상승 추세이며 제주, 전남, 충북 의 순서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부산과 제주는 본발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1단계 상승하였으며 3년 연속 상승한 지역 중 충북, 충남, 전남은 우수 수준으로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년 연속 본발 수준을 나타낸 지역은 서울, 대구, 광주이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9개 지역은 3년 연속 평균 이하값을 나타내므로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5)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

최하14.17% (전체9.81%/유급4.26%) _ 전국 평균 24.20% (전체13.93%/유급10.27%) _ 최고 37.71% (전체22.78%/유급17.27%)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은 평균 24.20%(최고 37.71%, 최하 14.17%)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울산, 세종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구, 광주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충북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이 37.71%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14.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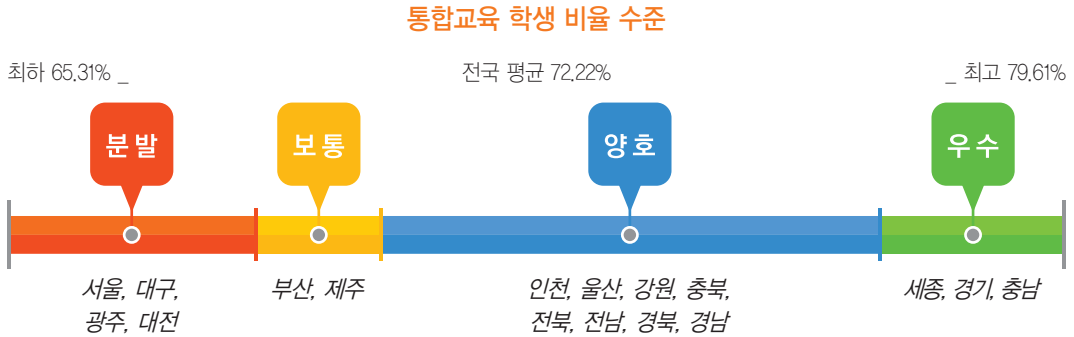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4.38	22.08	25.03	21.80	21.35	34.71	33.68	28.13	15.67	23.54	29.91	22.83	22.89	21.55	24.68	22.90	33.24	25.20
2023	25.07	21.81	25.06	21.74	21.63	34.89	34.83	34.22	15.81	22.84	20.37	23.04	21.87	19.82	24.22	20.33	23.89	25.65
2024	27.24	20.43	25.16	19.24	24.51	37.71	34.58	36.00	14.17	23.06	18.58	22.77	21.95	20.53	22.64	20.03	22.80	24.20
2023 대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7.97	-6.75	0.40	-12.99	11.75	7.48	-0.72	4.94	-11.57	0.95	-9.63	-1.19	0.36	3.46	-6.98	-1.50	-4.78	-5.99
3년 연속 상승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3년 연속 하락	부산, 인천, 울산, 충북,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은 2022년 25.20%, 2023년 25.65%, 2024년은 24.20%로 2023년은 전년도 대비 1.75% 상승하였고, 2024년은 2023년 대비 5.99% 하락하였다. 2023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전남 8개 지역이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9개 지역은 전년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가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고, 경기는 향상률이 가장 낮았으며 향상률의 폭은 -12.99% ~ 11.75%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세종 5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인천, 울산, 충북, 경북, 경남, 제주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4년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대전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대전, 울산, 세종 중 대전과 세종은 3년 연속 상승하는 지역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 는 분발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광주는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1단계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배치율 수준으로 나타났고, 강원은 양호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충북은 보통 수준에서 분발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또한,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8개 지역은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이므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6) 통합교육 학생 비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은 평균 72.22%(최고 79.61%, 최하 65.31%)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경기, 충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제주 2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경기가 79.61%로 가장 높고, 대구가 65.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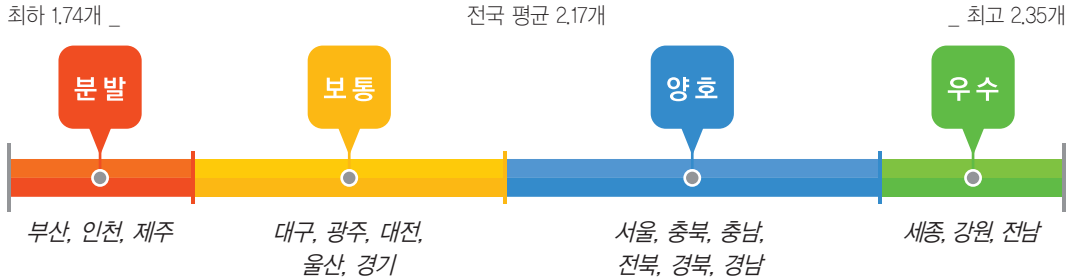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64.94	70.68	65.83	72.94	66.12	68.07	72.11	76.64	77.61	72.32	69.56	76.96	71.88	71.97	72.30	76.08	69.76	71.52
2023	66.07	71.30	65.39	73.62	66.13	68.33	73.36	79.65	78.49	72.48	70.21	75.71	72.19	71.80	73.41	75.85	70.03	72.00
2024	67.41	71.36	65.31	74.33	65.45	68.14	73.23	77.66	79.61	72.27	72.41	75.93	73.81	72.39	73.95	75.16	69.34	72.22
2023 대비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향상률	1.99	0.08	-0.12	0.95	-1.04	-0.28	-0.18	-2.56	1.41	-0.29	3.04	0.29	2.19	0.81	0.73	-0.92	-0.99	0.30
3년 연속 상승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3년 연속 하락	대구, 경남																	

전국 평균은 2022년 71.52%, 2023년 72%, 2024년 72.22%로 2023년은 전년도 대비 0.67%, 2024년은 전년도 대비 0.3%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9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남, 제주 8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충북이 가장 높은 향상률을 보였고, 세종이 가장 낮은 향상률을 보였으며 향상률의 폭은 -2.56% ~ 3.04%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전북, 경북 7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대구, 경남으로 나타났다. 2024년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3년간 상승 추세이며 경기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년 연속 상승하는 지역 중 경기는 3년 연속 우수 수준이고, 충북은 전남과 함께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충남은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향상되어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을 더 높이 향상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3년 연속 우수 수준이지만 전년도 대비 향상률이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통합교육의 학생 비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반면, 경남은 3년 이상 평균값 이상의 수준이나 전년도 대비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고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과 함께 3년 연속 하락률을 보이는 대구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3년 연속 분발 수준인 지역은 서울, 광주, 대전이며 이 3개 지역과 함께 부산, 제주는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이므로 통합교육 학생 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 학생 10명 당 특수학급 수 수준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로 산출된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준은 평균 2.17개(최고 2.35개, 최하 1.74개)로 나타났다. 우수수는 세종, 강원, 전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전남 6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5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인천,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남이 2.35개로 가장 높고, 제주가 1.74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 수준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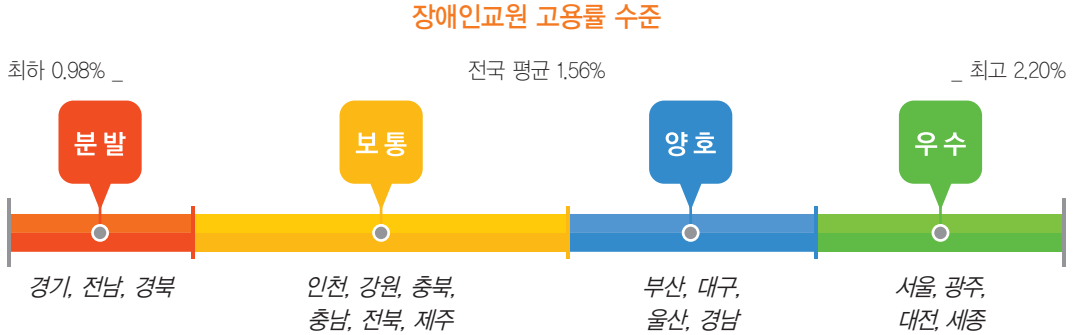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15	2.02	2.02	2.00	2.04	2.02	2.04	2.49	2.07	2.26	2.19	2.18	2.22	2.20	2.20	2.14	1.94	2.13
2023	2.70	2.05	2.29	2.12	2.43	2.47	2.22	2.54	2.22	2.68	2.66	2.61	2.37	2.92	2.35	2.40	1.96	2.41
2024	2.10	1.90	1.95	1.90	2.00	1.93	2.05	2.26	2.00	2.28	2.19	2.17	2.16	2.35	2.11	2.19	1.74	2.07
2023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28.57	-7.89	-17.44	-11.58	-21.50	-27.98	-8.29	-12.39	-11.00	-17.54	-21.46	-20.28	-9.72	-24.26	-11.37	-9.59	-12.64	-16.43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																	

전국 평균은 2022년 2.13개, 2023년 2.41개, 2024년 2.07개로 2023년은 전년도 대비 11.62% 상승하였고, 2024년은 2023년 대비 16.43% 하락하였다.

2023년 대비 모든 지자체가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대전, 전남 순서로 하락의 폭이 가장 컸으며 부산의 하락 폭이 가장 낮았다. 향상률의 폭은 -28.57% ~ -7.89%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하거나 하락한 지자체는 없었으며, 2024년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 수준은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우수 수준을 기록한 전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세종이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전북, 경북, 경남 3개 지역은 보통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인천, 제주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이며, 서울은 우수 수준에서 양호 수준으로, 광주와 대전은 양호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제주는 3년 연속 평균값 이하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8) 장애인교원 고용률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은 평균 1.56%(최고 2.20%, 최하 0.98%)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광주, 대전, 세종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4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전남, 경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2.20%로 가장 높고, 경북이 0.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28	2.00	2.12	1.66	2.31	2.23	2.12	1.79	1.70	1.88	1.91	1.85	2.26	1.78	1.72	2.06	2.01	1.98
2023	2.36	1.84	2.02	1.54	1.82	2.42	2.08	1.80	1.45	1.26	1.68	1.44	1.77	1.12	1.14	1.82	1.73	1.72
2024	2.20	1.65	1.80	1.29	1.89	2.09	1.80	2.11	1.18	1.28	1.36	1.27	1.51	1.03	0.98	1.62	1.41	1.56
2023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7.27	-11.52	-12.22	-19.38	3.70	-15.79	-15.56	14.69	-22.88	1.56	-23.53	-13.39	-17.22	-8.74	-16.33	-12.35	-22.70	-10.26
3년 연속 상승	세종																	
3년 연속 하락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평균은 2022년 1.98%, 2023년 1.72%, 2024년 1.56%로 2023년은 전년도 대비 15.12%, 2024년은 2023년 대비 10.26% 하락하였다.

광주, 세종, 강원 3개 지역은 2023년 대비 장애인교원 고용률이 상승하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개 지역은 하락하였으며 향상률의 폭은 -23.53% ~ 14.69%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자체는 세종 1개 지역으로 전년도 대비 향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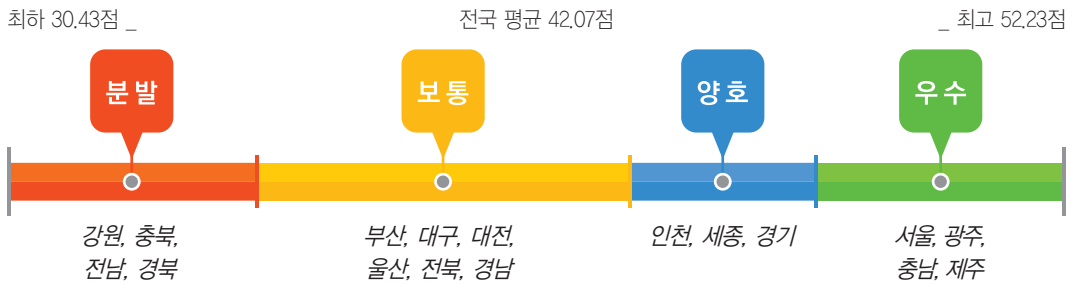
2024년 장애인교원 고용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고, 서울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3년 연속 상승한 세종은 향상률 또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서울은 대전과 함께 3년 연속 우수 수준이며, 광주와 세종이 양호 수준에서 우수 수준으로, 강원도 분발 수준에서 보통 수준으로 향상되는 등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하락한 지역 중 전남과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이며, 3년 연속 평균값 이하인 지역 중 인천, 경기, 전남, 경북, 충북, 충남은 3년 연속 장애인교원 고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교원 고용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분야 지표별 세부 결과

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등 경제활동 지원 여건과 장애인 연금, 각종 수당 등 소득보전제도의 운용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지자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 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과 같은 8개의 지표로 평가하였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2024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42.07점(최고 52.23점, 최하 30.43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 53.71점(최고 73.78점, 최하 37.61점) 대비 19.39%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 1.96배(73.78/37.61) 대비 2024년에는 1.71배(52.23/30.43)로 작아짐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세종, 경기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북, 경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강원, 충북, 전남, 경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52.23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30.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수준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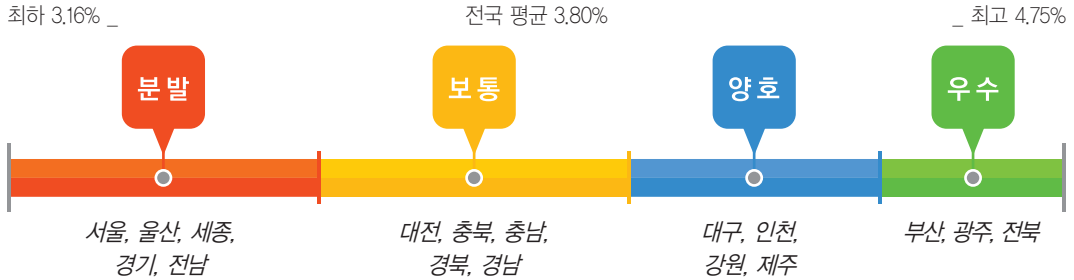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64.62	58.71	62.08	53.13	65.16	61.44	61.5	58.96	57.55	53.51	55.49	50.12	47.49	44.53	55.18	51.51	63.31	56.72
2023	68.23	51.00	53.80	56.12	53.27	58.55	49.17	53.64	68.37	44.83	44.74	58.15	47.47	37.61	47.58	46.77	73.78	53.71
2024	52.23	41.79	41.86	44.64	49.53	39.77	41.81	45.86	43.08	35.35	33.93	50.10	39.24	30.43	35.45	38.93	51.14	42.07
2023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23.45	-18.06	-22.19	-20.46	-7.02	-32.08	-14.97	-14.50	-36.99	-21.15	-24.16	-13.84	-17.34	-19.09	-25.49	-16.76	-30.69	-19.38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2023년 대비 모든 지역은 하락하였다. 광주의 하락 폭은 -7.02%로 가장 작았고, 경기 지역은 -36.99%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없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2개 지역은 3년 연속 하락하였다.

경북은 2023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광주는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충남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서울과 제주는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경기도는 2023년 우수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대구, 대전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강원, 충북, 전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부산, 울산, 전북, 경북,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1)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수준은 평균 3.80%(최고 4.75%, 최하 3.16%)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북이 4.75%로 가장 높고, 서울이 3.1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3.73% 대비 1.88%로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1.5배(4.75/3.16)로 2023년의 1.48배(4.55/3.07)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우수는 부산, 광주, 전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대구, 인천, 강원, 제주 4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전, 충북, 충남, 경북,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울산, 세종, 경기, 전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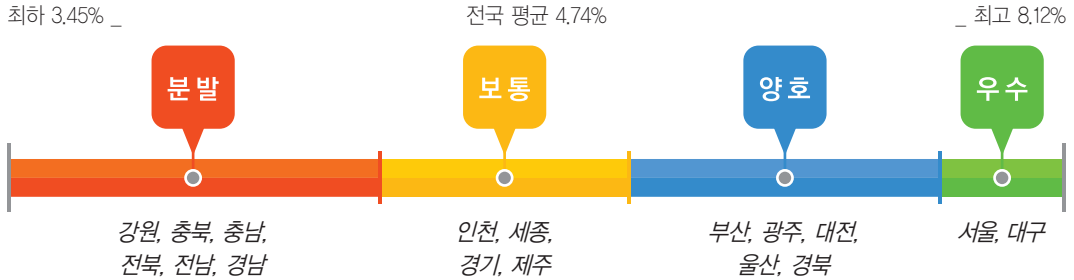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32	4.77	4.41	4.20	4.60	3.82	3.59	3.82	3.56	4.65	3.85	3.78	4.82	3.98	4.09	3.87	4.42	4.09
2023	3.07	4.25	3.88	3.97	4.53	3.56	3.32	3.29	3.24	4.00	3.50	3.46	4.55	3.43	3.75	3.62	4.02	3.73
2024	3.16	4.29	3.94	3.98	4.52	3.65	3.32	3.28	3.36	4.21	3.62	3.55	4.75	3.46	3.77	3.73	3.97	3.80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유지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향상률	2.93	0.94	1.55	0.25	-0.22	2.53	0.00	-0.30	3.70	5.25	3.43	2.60	4.40	0.87	0.53	3.04	-1.24	1.88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광주, 세종, 제주																	

2023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3.73%였다. 2024년 조사에서는 평균값이 3.80%로 조사되어, 2023년 대비 1.88%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상승하였고, 광주, 세종, 제주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로 2023년 대비 1.24%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원으로 5.25%가 상승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없으며, 광주, 세종, 제주는 3년 연속 하락하였다.

경북은 2023년 양호에서 2024년 보통으로 등급이 하락하였고, 전남은 보통에서 분발로 등급이 하락하였다. 반면 등급이 상향된 지역은 없었다. 서울, 울산, 세종, 경기도는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고,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남은 2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수준은 평균 4.74%(최고 8.12%, 최하 3.45%)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4.65% 대비 1.94%로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2.35배(8.12/3.45)로 2023년의 8.22배(8.47/1.03)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구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경북 5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세종, 경기, 제주 4개 지역이고, 분발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8.12%로 가장 높고, 전남이 3.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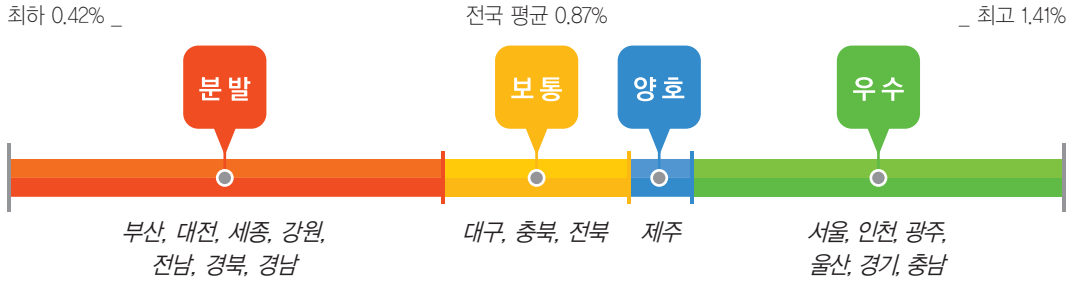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6.64	4.83	5.84	3.60	5.12	3.92	4.29	3.40	4.00	2.72	4.04	3.55	3.87	3.45	3.42	4.17	3.33	4.13
2023	8.47	5.67	6.98	4.31	4.90	4.59	5.09	4.10	4.34	3.77	1.03	4.09	4.06	3.87	5.04	3.97	4.83	4.65
2024	8.12	5.17	7.17	4.31	4.82	4.77	4.77	4.55	4.10	4.03	3.96	3.83	4.00	3.45	5.12	3.91	4.55	4.74
2023 대비	하락	하락	상승	유지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향상률	-4.13	-8.82	2.72	0.00	-1.63	3.92	-6.29	10.98	-5.53	6.90	284.47	-6.36	-1.48	-10.85	1.59	-1.51	-5.80	1.94
3년 연속 상승	대구, 대전, 강원, 경북																	
3년 연속 하락	광주, 경남																	

2024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평균은 4.74%로, 2023년 4.65%에 비해 1.94%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북, 경북이 상승하였고,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으로 2023년 대비 10.85%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북으로 284.47%나 상승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대구, 대전, 강원, 경북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광주와 경남이었다.

제주는 2023년 조사에서 양호 등급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은 2023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대전은 2023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서울과 대구는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이었고, 부산, 광주, 울산, 경북도 2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2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인 충북,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지자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자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수준은 평균 0.87%(최고 1.41%, 최하 0.42%)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0.87% 대비하여 유지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38배(1.41/0.42)로 2023년의 3.48배(1.43/0.41)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제주 1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충북, 전북 3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남, 경북, 경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충남이 1.41%로 가장 높고, 세종과 전남이 0.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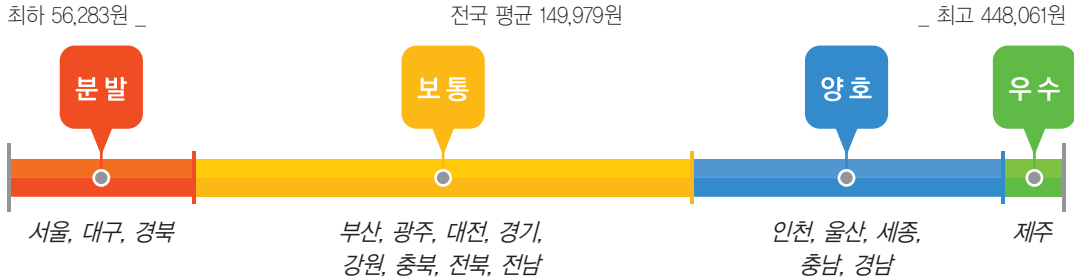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40	1.52	1.11	1.42	1.54	1.21	0.79	0.82	0.98	0.81	0.99	1.29	0.66	0.66	1.34	0.96	1.55	1.12
2023	1.20	0.68	0.69	1.43	1.14	0.68	1.14	0.61	1.22	0.43	0.69	1.43	0.79	0.41	0.48	0.53	1.20	0.87
2024	1.35	0.60	0.69	1.36	1.36	0.56	1.20	0.42	1.20	0.49	0.71	1.41	0.76	0.42	0.46	0.59	1.13	0.87
2023 대비	상승	하락	유지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유지
향상률	12.50	-11.76	0.00	-4.90	19.30	-17.65	5.26	-31.15	-1.64	13.95	2.90	-1.40	-3.80	2.44	-4.17	11.32	-5.83	0
3년 연속 상승	울산																	
3년 연속 하락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경북, 제주																	

2024년 지자체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평균은 0.87%로, 2023년과 동일하였다. 2023년 대비 서울,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남이 상승하였고, 부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제주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2023년 대비 31.15%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로 19.30%가 상승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울산 1곳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경북, 제주였다.

부산과 대전은 2023년 조사에서 보통 등급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광주와 울산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 충남은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등급이었고, 광주, 울산도 2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작년과 더불어 올해에도 전국 평균 이하인 분발 등급과 보통 등급에 2년 연속 포함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4)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수준은 평균 149,979원(최고 448,061원, 최하 56,283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152,999원 대비 -1.97% 하락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7.96배(448,061/56,283)로 2023년의 5.48배(406,762/74,156)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제주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울산, 세종, 충남, 경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부산,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8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대구, 경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448,061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가 56,283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수준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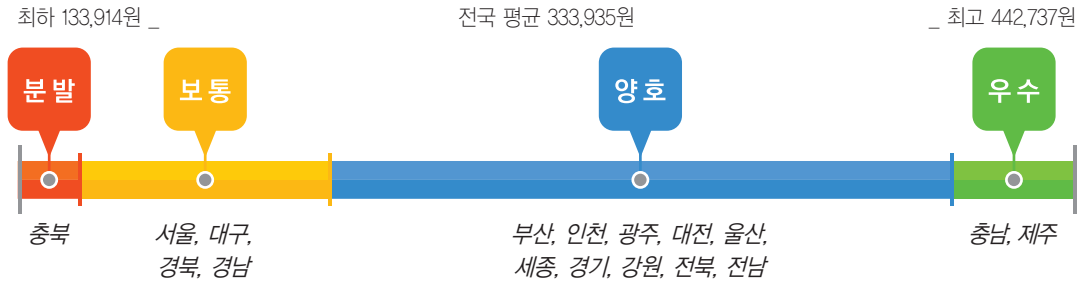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30,816	106,154	119,945	135,914	128,296	131,962	231,546	109,163	171,923	129,112	115,898	141,091	115,491	162,747	153,107	162,802	131,030	139,823
2023	141,756	139,171	74,156	153,589	85,436	145,775	170,374	157,851	130,924	140,742	111,827	145,562	140,095	167,584	145,697	143,677	406,762	152,999
2024	74,712	130,400	56,283	161,019	140,648	134,708	166,264	151,535	104,476	141,162	107,734	201,433	141,809	138,148	75,071	176,178	448,061	149,979
2023 대비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향상률	-47.30	-6.30	-24.10	4.84	64.62	-7.59	-2.41	-4.00	-20.20	0.30	-3.66	38.38	1.22	-17.56	-48.47	22.62	10.15	-1.97
3년 연속 상승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제주																	
3년 연속 하락	대구, 울산, 경기, 충북, 경북																	

2023년 152,999원에서 2024년에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평균 지급액이 149,979원으로 -1.97% 하락하였다. 인천, 광주, 강원, 충남, 전북, 경남, 제주가 2023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 지역 중 광주의 상승 폭이 64.62%로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제주였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대구, 울산, 경기, 충북, 경북이었다.

광주, 충북은 2023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충남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은 2023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경북의 하락 폭이 -48.47%로 가장 컸다. 특히 대구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면서도 3년 연속 하락하였기 때문에 1인당 장애아동수당을 대폭 늘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수준은 평균 333,935원(최고 442,737원, 최하 133,914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314,878원 대비 16.95%로 향상하였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30배(442,737/133,914)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도 지역간 격차가 2.38배(418,278/175,069)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충남과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10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대구, 경북, 경남 4개 지역이고, 분발은 충북 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제주가 442,737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133,914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수준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02,451	148,172	151,695	158,184	163,499	166,426	95,178	384,987	202,948	123,229	122,985	122,873	199,570	154,368	170,364	185,145	150,777	164,874
2023	353,163	335,663	328,421	316,822	175,069	329,260	300,626	239,306	385,107	256,023	331,916	325,015	330,370	311,718	302,850	313,311	418,278	314,878
2024	254,406	353,645	252,686	358,639	384,998	365,840	343,893	339,118	373,870	342,457	133,914	389,522	375,309	336,660	299,096	330,104	442,737	368,247
2023 대비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27.96	5.36	-23.06	13.20	119.91	11.11	14.39	41.71	-2.92	33.76	-59.65	19.85	13.60	8.00	1.24	5.36	5.85	16.95
3년 연속 상승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3년 연속 하락	-																	

2023년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전국 평균은 314,878원이었다. 이에 비해 2024년에는 368,247원으로 16.95%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하여 서울, 대구, 경기, 충북, 경북은 하락하였고,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상승하였다. 특히 광주는 119.91%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였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이에 따라 충북은 2023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광주와 세종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경북과 경남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평균값 이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액 수준을 높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수준은 평균 0.0052%(최고 0.0161%, 최하 0.0000%)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0.0038% 대비 36.84배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0.0161배(0.0161/0.0000)로 2023년의 0.0123배(0.0123/0.0000)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충남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광주, 경기, 경남 4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5개 지역이고, 분발은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충남이 0.0161%로 가장 높고, 울산, 세종, 제주가 0.00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수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0.0120	0.0082	0.0117	0.0024	0.0045	0.0101	0.0201	0.0000	0.0050	0.0083	0.0087	0.0031	0.0000	0.0035	0.0042	0.0026	0.0000	0.0061
2023	0.0120	0.0037	0.0058	0.0047	0.0000	0.0123	0.0000	0.0000	0.0038	0.0000	0.0036	0.0103	0.0024	0.0000	0.0021	0.0041	0.0000	0.0038
2024	0.0131	0.0073	0.0052	0.0045	0.0088	0.0050	0.0000	0.0000	0.0063	0.0036	0.0034	0.0161	0.0024	0.0023	0.0021	0.0080	0.0000	0.0052
2023 대비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유지	유지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유지	상승	유지	상승	유지	상승
향상률	9.17	97.30	-10.34	-4.26	-	-59.35	-	-	65.79	-	-5.56	56.31	-	-	0	95.12	-	36.84
3년 연속 상승	충남, 경남																	
3년 연속 하락	대구, 충북																	

2024년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평균은 0.0052%로, 2023년 0.0038%에 비해 36.84%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남은 상승하였고, 대구, 인천, 대전, 충북은 하락하였다. 부산이 97.30%의 상승 폭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대전이 -59.35% 하락 폭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충남, 경남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대구, 충북이었다.

이에 따라 대전은 2023년 우수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광주는 2023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울산, 세종, 전남, 제주는 2년 연속 분발 등급이고, 강원, 충북, 전북, 경북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7)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액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은 평균 1,143,304원(최고 3,080,229원, 최하 580,169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1,017,744원 대비 12.34%로 향상하였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30배(3,080,229/580,169)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작년에는 지역간 격차가 4.93배(2,208,895/447,164)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광주, 경기, 충북, 경북 4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대전, 울산, 경남 4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3,080,229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580,169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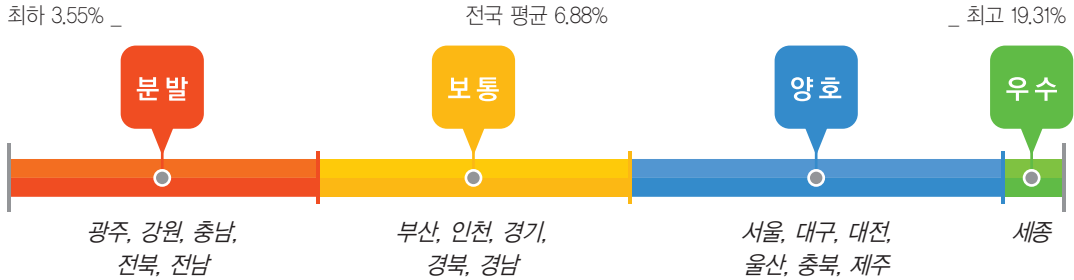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881,464	605,309	679,405	674,346	1,177,977	702,840	796,528	914,706	940,496	892,746	958,521	733,944	542,243	431,102	787,818	619,620	1,629,948	821,707
2023	862,431	653,392	733,553	719,260	1,340,989	777,530	747,606	1,639,359	2,208,895	1,046,822	1,036,093	745,680	574,987	447,164	964,662	755,364	2,047,881	1,017,744
2024	994,419	698,799	834,651	730,865	1,219,007	893,258	1,030,165	3,080,229	1,229,751	706,551	1,204,440	791,774	671,653	580,169	1,182,493	905,853	2,682,088	1,143,304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15.30	6.95	13.78	1.61	-9.10	14.88	37.80	87.89	-44.33	-32.51	16.25	6.18	16.81	29.74	22.58	19.92	30.97	12.34
3년 연속 상승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년 연속 하락	-																	

2024년 전국 평균은 1,143,304원으로 2023년 1,017,744 대비 12.34% 상승하였다. 2023년 대비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개 지역이 상승하였고, 하락한 지역은 광주, 경기, 강원 3곳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44.33%(경기)에서 87.89%(세종) 사이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12곳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세종과 제주 2년 연속 우수 등급이고, 경북은 2023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향상했다. 광주, 충북, 경기도 2년 연속 양호 등급을 유지하면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보였다. 하지만 부산, 인천, 전북, 전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또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충남,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8)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수준은 평균 6.88%(최고 19.31%, 최하 3.55%)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6.52% 대비 5.52%로 향상하였다. 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43배(19.31/3.55)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년에는 지역간 격차가 3.40배(11.38/3.34)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제주 6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인천, 경기, 경북,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전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19.31%로 가장 높고, 전남이 3.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 수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84	5.12	6.72	4.95	7.44	10.01	4.33	10.52	5.43	6.51	6.48	3.89	4.20	3.14	5.56	4.70	7.47	6.14
2023	7.78	5.18	6.62	5.33	7.66	7.50	4.86	11.27	11.38	6.82	6.40	3.89	4.09	3.34	5.76	5.58	7.37	6.52
2024	8.20	6.10	7.01	5.38	3.77	8.04	7.83	19.31	5.89	4.02	6.89	4.69	4.32	3.55	5.99	5.85	10.17	6.88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5.40	17.76	5.89	0.94	-50.78	7.20	61.11	71.34	-48.24	-41.06	7.66	20.57	5.62	6.29	3.99	4.84	37.99	5.52
3년 연속 상승	부산, 인천, 울산, 세종, 전남, 경북, 경남																	
3년 연속 하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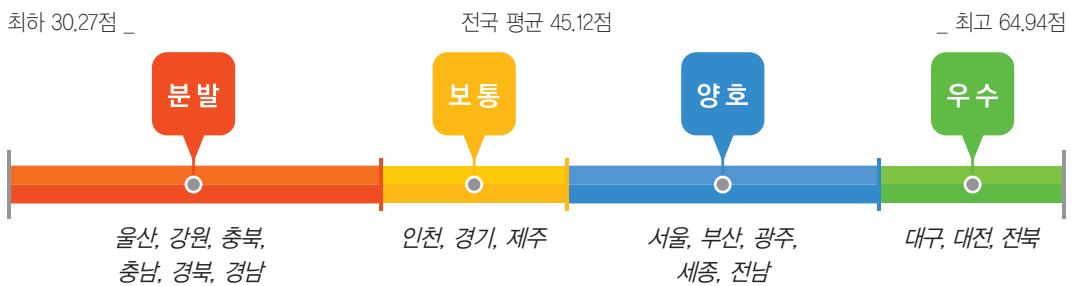
2024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이용자 비율은 6.88%로, 2022년 6.52%에 비해 5.52% 상승하였다. 가장 하락 폭이 큰 지역은 광주로 -50.78% 하락하였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부산, 인천, 울산, 세종, 전남, 경북, 경남이었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이에 따라 광주 2023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71.34% 상승하여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다. 충남, 전북, 전남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포함됨에 따라 이 세 지역은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이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여야 한다. 또 부산, 인천, 충남, 경북,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지역도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이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는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보건으로 인프라 확보 수준과 각종 의료비와 보조기구의 지원 수준,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지원의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과 같은 7개의 지표로 평가하였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2024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42.07점(최고 52.23점, 최하 30.43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 53.71점(최고 73.78점, 최하 37.61점) 대비 19.39%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 1.96배(73.78/37.61) 대비 2024년에는 1.71배(52.23/30.43)로 작아짐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세종, 경기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북, 경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강원, 충북, 전남, 경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52.23점으로 가장 높고, 전남이 30.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보건 및 자립 지원 수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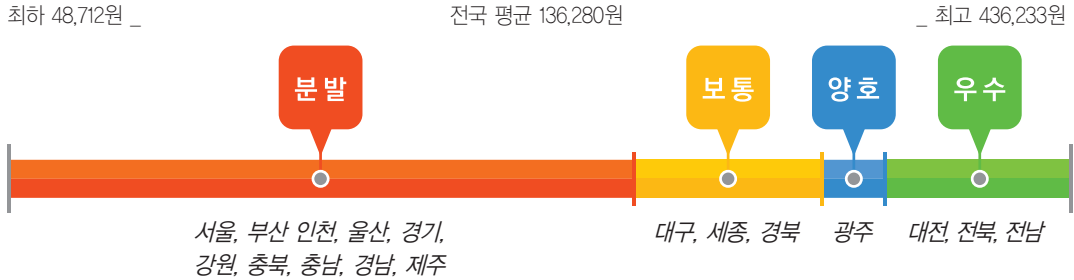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53.94	38.08	51.00	46.58	47.73	64.68	42.64	54.61	46.29	33.27	36.63	54.84	39.29	42.56	35.86	51.90	47.11	46.29
2024	47.47	48.34	64.94	43.64	53.71	57.05	37.60	54.03	44.12	30.27	33.08	37.19	59.24	49.08	36.67	36.70	39.15	45.43
2022 대비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11.99	26.94	27.33	-6.31	12.53	-11.80	-11.82	-1.06	-4.69	-9.02	-9.69	-32.18	50.78	15.32	2.26	-29.29	-16.90	-1.86

2022년 대비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은 상승했으며,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경주는 하락하였다. 대구가 27.33%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충남은 -32.18%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부산과 전북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각각 양호와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으며, 전남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대구는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대전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인천과 제주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충남과 경남은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울산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강원, 충북,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울산, 경기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1)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수준은 평균 136,280원(최고 436,233원, 최하 48,712원)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전국 평균 383,658원 대비 -64.48%로 대폭 하락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9.5배 (436,233/48,712)로 2022년의 392.05배(3,183,845/8,121)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2022년도에는 재활병원 건립과 운영 관련하여 지역간 차이가 크게 벌어졌었다.

우수는 대전, 전북, 전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광주 1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세종, 경북 3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10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이 436,233원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48,712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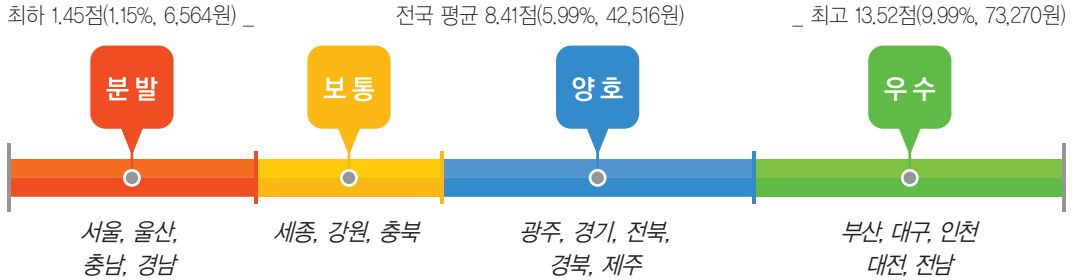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81,691	123,519	363,269	217,422	96,737	3,183,845	94,471	122,875	140,533	230,494	8,121	450,263	204,419	158,557	111,136	132,027	803,806	383,658
2024	51,791	70,180	128,247	87,511	188,550	436,233	91,343	106,709	59,775	49,033	48,712	66,084	343,916	303,913	114,639	78,772	91,343	136,280
2022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36.60	-43.18	-64.70	-59.75	94.91	-86.30	-3.31	-13.16	-57.47	-78.73	499.83	-85.32	68.24	91.67	3.15	-40.34	-88.64	-64.48

2022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수준 평균은 383,658원이었다. 2024년 조사에서는 평균값이 136,280원으로 조사되어, 2022년 대비 64.48% 하락하였다. 2022년 대비 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은 상승하였고, 그 외 1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로 2022년 대비 -88.64%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충북으로 499.83%가 상승하였다.

충남과 제주는 2022년 양호에서 2024년 분발로 등급이 크게 하락하였고, 전남은 분발에서 우수로 등급이 크게 상향하였다. 서울, 부산, 울산, 충북, 경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고,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강원, 경북은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2)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조기기 지원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보조기기 지원 수준은 평균 8.41점(최고 13.52점, 최하 1.45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전국 평균 7.63점에 비해 다소 높았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9.32배(13.52/1.45)로 2022년의 2.59배(12.75/4.91)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전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광주, 경기, 전북, 경북, 제주 5개 지역이며, 보통은 세종, 강원, 충북 3개 지역이며, 분발은 서울, 울산, 충남, 경남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구가 13.52점으로 가장 높고, 충남이 1.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보조기기 지원 수준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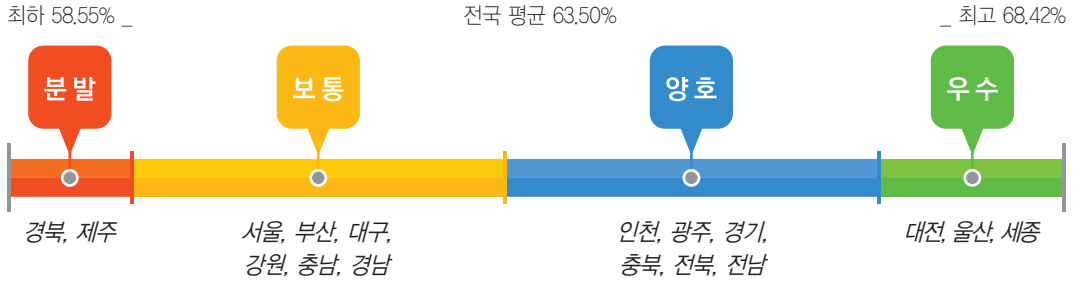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8.55	6.15	8.82	6.17	5.62	9.92	5.52	5.17	8.05	9.96	4.91	9.74	8.60	5.09	5.08	12.75	9.54	7.63
2024	1.77	11.28	13.52	11.05	9.31	11.12	4.34	7.68	9.46	6.06	6.53	1.45	10.33	13.17	9.37	7.35	9.19	8.41
2022대비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증감률	-79.30	83.41	53.29	79.09	65.66	12.10	-21.38	48.55	17.52	-39.16	32.99	-85.11	20.12	158.74	84.45	-42.35	-3.67	10.22

2024년 보조기기 지원 수준 평균은 8.41점으로, 2022년 7.63점에 비해 10.22%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이 상승하였고, 서울, 울산, 강원, 충남, 경남, 제주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충남으로 2022년 대비 -85.11%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으로 84.45% 상승하였다.

경남은 2022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서울, 충남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반면 부산과 인천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대구, 대전, 경기, 전북, 제주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인 울산을 비롯하여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 충북은 보조기기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수준은 평균 63.50%(최고 68.42%, 최하 58.55%)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역 간 격차는 1.16배(68.42/58.55)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울산, 세종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전남 6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남, 경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북,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68.42%로 가장 높고, 제주가 58.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수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	-	-	-	-	-	-	-	-	-	-	-	-	-	-	-	-	-
2024	61.12	61.14	61.33	65.20	64.48	66.75	67.29	68.42	64.09	62.59	64.40	62.66	64.51	63.72	60.46	62.89	58.55	63.50
2022 대비	-	-	-	-	-	-	-	-	-	-	-	-	-	-	-	-	-	-
증감률	-	-	-	-	-	-	-	-	-	-	-	-	-	-	-	-	-	-

2022년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수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자료를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22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와의 비교는 생략하였다.

(4)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은 평균 5.79점(최고 12.76일, 1,722,222원, 최하 3.55일, 321,429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역 간 격차는 2.57배(8.72/3.38)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세종, 충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경북, 경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충북, 전남 2개 지역이고, 분발은 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제주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8.72점으로 가장 높고, 제주가 3.3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

(단위: 점)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4	6.23	6.42	5.86	6.88	3.96	7.33	3.68	8.72	6.55	4.45	4.74	8.26	4.47	4.60	6.92	5.99	3.38	5.79

2022년은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예산(장애인 산모 도우미 파견 총 일수 자료 미제출)으로 분석하여 연도별 비교의 의미는 없으므로 생략하였다.

(5)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은 평균 7.28점(최고 12.85점, 최하 4.53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2.83배(12.85/4.53)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지역간 격차가 2.08배(11.92/5.73)임과 비교해 보면 지역간 격차는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광주, 충남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4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경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광주가 12.85점으로 가장 높고, 강원이 4.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단위: 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76	11.92	8.69	10.19	6.80	8.28	6.57	7.68	11.63	6.15	8.49	10.41	5.73	8.76	7.89	9.61	11.12	8.69
2024	9.64	7.87	8.56	6.97	12.85	8.10	4.77	5.56	6.71	4.53	5.72	10.36	6.74	6.80	4.71	6.65	7.28	7.28
2022대비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24.23	-33.98	-1.50	-31.60	88.97	-2.17	-27.40	-27.60	-42.30	-26.34	-32.63	-0.48	17.63	-22.37	-40.30	-30.80	-34.53	-16.23

2022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 전국 평균은 8.69점이었다. 이에 비해 2024년에는 7.28점으로 -16.23% 하락하였다. 서울, 광주, 전북은 상승하였고, 그 외 14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특히 경기는 -42.30%로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광주는 88.97%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경기와 제주는 2022년 우수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광주는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한편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북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값 이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6)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수준은 평균 76,118원(최고 209,173원, 최하 3,639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전국 평균 66,311원 대비 1.14배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57.48배(209,173/3,639)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게다가 2022년의 51.75배(229,864/4,441)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세종, 전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대구, 광주 3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대전, 울산, 제주 4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209,173원으로 가장 높고, 경북이 3,639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수준

(단위: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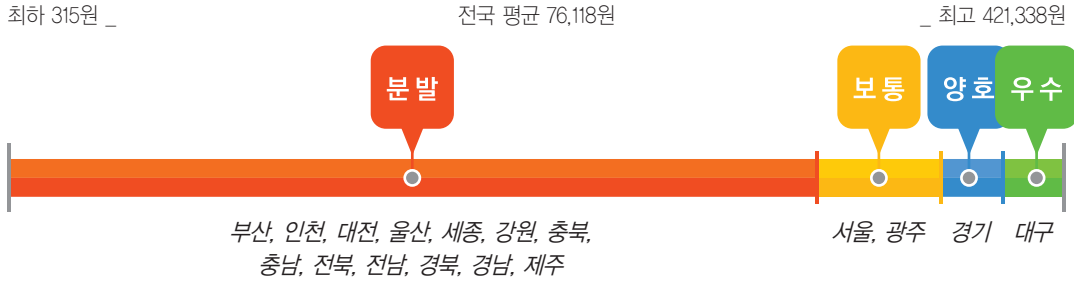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29,864	42,714	114,677	81,355	115,067	26,762	68,758	67,726	32,334	4,441	8,694	91,600	30,993	92,840	6,723	26,817	85,918	66,311
2024	208,077	118,259	84,013	43,307	114,158	48,194	49,908	209,173	32,837	18,505	24,961	33,930	189,462	24,698	3,639	27,238	63,640	76,118
2022대비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향상률	-9.48	176.86	-26.74	-46.77	-0.79	80.08	-27.41	208.85	1.56	316.69	187.11	-62.96	511.31	-73.40	-45.87	1.57	-25.93	14.79

2024년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평균은 76,118원으로, 2022년 66,311원에 비해 14.79%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은 상승하였고,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는 하락하였다. 전북이 511.31%의 상승 폭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였고, 전남이 -73.40% 하락 폭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 울산, 제주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전북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강원, 충북, 경북, 경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2년 분발 등급이고, 대전과 경기도 2년 모두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7)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평균 76,118원(최고 421,338원, 최하 315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전국 평균 115,356원에 비해 하락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1,337.58배(421,338/315)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2022년의 576.74배(879,532/1,525)와 비교해서 지역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구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경기 1개 지역이며, 보통은 서울, 광주 1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구가 421,338원으로 가장 높고, 대전이 315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

(단위: 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4,920	2,406	145,682	7,636	7,324	427,715	3,708	879,532	125,706	1,525	6,786	283,544	9,908	12,260	6,313	19,036	7,050	115,356
2024	35,241	2,968	421,338	4,704	21,151	315	437	6,053	133,108	5,894	7,111	11,262	10,570	16,713	409	895	11,963	76,118
2022대비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향상률	136.20	23.36	189.22	-38.40	188.79	-99.93	-88.21	-99.31	5.89	286.49	4.79	-96.03	6.68	36.32	-93.52	-95.30	69.69	-34.01

2024년 전국 평균은 76,118원으로 2022년 115,356원 대비 34.01% 하락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제주 10개 지역이 상승하였고, 그 외 7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향상률의 폭은 -99.93%(대전에서 286.49%(강원) 사이로 나타났다.

대구와 경기는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2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서울과 광주도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요하다. 이와 더불어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1)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0.46개소 _ 전국 평균 1.09개소 _ 최고 1.82개소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광주, 울산, 전북, 경남	서울,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부산, 제주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은 평균 1.09개소(최고 1.82개소, 최하 0.46개소)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3.95배(1.82/0.46)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2년의 2.89배(1.36/0.47)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부산,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7개 지역이며, 보통은 광주, 울산, 전북, 경남 4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인천 세종, 경기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부산이 1.82개소로 가장 높고, 대구가 0.46개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단위: 개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30	0.96	0.47	0.67	1.00	1.10	0.78	0.79	0.66	1.08	1.23	1.26	0.98	1.29	1.15	1.16	1.36	1.01
2024	1.30	1.82	0.46	0.66	1.01	1.12	0.97	0.77	0.67	1.09	1.24	1.27	1.08	1.32	1.18	0.95	1.63	1.09
2022 대비	유지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향상률	-	89.58	-97.87	-1.49	-101.00	1.82	-124.36	-2.53	-101.52	0.93	-100.81	0.79	-110.20	2.33	-102.61	-18.10	-119.85	7.92

2022년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평균은 1.01개소이었다. 2024년 조사에서는 평균값이 1.09개소로 조사되어, 2022년 대비 7.92%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부산, 대전, 강원, 충남, 전남은 상승하였고, 그 외 12개 시·도는 하락하였다. 하락률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으로 2022년 대비 -124.36% 하락하였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으로 89.58%가 상승하였다.

서울, 충북, 충남, 전남은 2022년 우수에서 2024년 양호로 등급이 하락하였고, 부산은 보통에서 우수로 등급이 상향하였다. 대구, 인천, 경기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고, 세종, 광주, 울산, 전북은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3)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5.34개소 _ 전국 평균 10.73개소 _ 최고 20.05개소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서울,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경북, 경남	충북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울산, 충남, 제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평균 10.73개소(최고 20.05개소, 최하 5.34개소)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3.75배(20.05/5.34)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고, 특히 2022년의 2.98배(19.29/ 6.46)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울산, 충남,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전북, 전남 6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충북 1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대구, 인천, 세종, 경기, 경북, 경남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울산이 20.05개소로 가장 높고, 경기가 5.34개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위: 개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9.41	6.46	12.88	8.21	9.60	11.45	19.29	11.03	8.21	17.79	6.64	8.39	8.63	10.80	6.96	7.86	16.81	10.61
2024	6.33	12.31	6.59	7.16	11.97	11.34	20.05	6.18	5.34	14.42	8.96	16.19	10.98	12.24	7.40	7.36	17.61	10.73
2022 대비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증감률	-32.73	90.56	-48.84	-12.79	24.69	-0.96	3.94	-43.97	-34.96	-18.94	34.94	92.97	27.23	13.33	6.32	-6.36	4.76	1.13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평균 수준은 2022년 10.61개소에서 2024년에는 10.73개소로 1.13% 상승하였다. 부산,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가 2022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 지역 중 충남의 상승 폭이 92.97%로 가장 컸다. 충남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부산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반면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경남은 2022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대구의 하락 폭이 -48.84%로 가장 컸다. 특히 인천, 경기, 경북, 경남은 2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며, 서울, 충북은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1.49개소 _

전국 평균 3.73개소

_ 최고 8.82개소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	서울, 충북	광주, 대전, 제주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은 평균 3.73개소(최고 8.82개소, 최하 1.49개소)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5.91배(8.82/1.49)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5.32배(7.88/1.48)에 비해 격차가 더 커졌다.

우수는 광주, 대전,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충북 2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대구,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이 8.82개소로 가장 높고, 충남이 1.49개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

(단위: 개소,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5.57	2.32	2.51	3.30	7.88	7.86	3.31	1.58	2.99	3.34	5.52	1.56	1.89	2.00	1.48	3.32	6.24	3.69
2024	5.21	2.11	2.45	3.09	7.93	8.82	3.31	1.55	3.04	3.38	5.35	1.49	1.77	1.83	1.68	3.39	7.04	3.73
2022 대비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6.46	-9.05	-2.39	-6.36	0.63	12.21	-	-1.90	1.67	1.20	-3.08	-4.49	-6.35	-8.50	13.51	2.11	12.82	1.08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은 2022년 평균 3.69개소에서 2024년에는 3.73개소로 1.08% 상승하였다. 광주, 대전,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제주가 2022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이 지역 중 경북의 상승 폭이 13.51%로 가장 컸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은 2022년에 비해 하락하였고, 부산의 하락 폭이 -9.05%로 가장 컸다. 모든 지역이 2022년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한편 부산, 대구, 세종,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2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은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55.45명 _ 전국 평균 117.61명 _ 최고 299.34명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광주, 대전, 울산	서울, 제주

장애인 1만명 당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평균 117.61명(최고 299.34명, 최하 55.45명)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5.39배(299.34/55.45)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년의 3.28배(175.72/53.42)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서울과 제주 2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광주, 대전, 울산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전북, 전남 7개 지역이고, 분발은 세종, 경기, 충남, 경북, 경남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299.34명으로 가장 높고, 경남이 55.45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23.75	70.39	53.42	88.80	93.24	145.68	112.80	89.04	128.47	116.40	73.59	74.95	74.89	78.07	61.80	56.01	175.72	95.12
2024	299.34	108.28	110.63	106.42	149.18	162.51	123.19	64.89	63.40	99.18	100.70	82.01	90.87	87.64	70.31	55.45	225.36	117.61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향상률	141.89	53.83	107.09	19.84	60.00	11.55	9.21	-27.12	-50.65	-14.79	36.84	9.42	21.34	12.26	13.77	-1.00	28.25	23.64

2022년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전국 평균은 95.12명이었다. 이에 비해 2024년에는 117.61명으로 23.64% 상승하였다. 세종, 경기, 강원, 경남은 하락하였고, 그 외 13개 지역은 상승하였다. 특히 서울은 141.89%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경기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하였고, 서울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값 이하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7)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의 등급별 지자체 현황〉

최하 6.29명 _ 전국 평균 7.59명 _ 최고 10.61명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인천, 충북, 전남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	부산

이용자 10명 당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평균 7.59명(최고 10.61명, 최하 6.29명)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1.68배(10.61/6.29)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고, 특히 2022년의 1.36배(8.01/5.86)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부산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 6개 지역이며, 보통은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6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인천, 충북, 전남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부산이 10.61명으로 가장 높고, 충북이 6.29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연도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47	7.20	6.79	7.08	7.62	7.20	7.76	7.13	6.79	6.41	5.86	6.94	7.26	6.90	7.40	7.15	8.01	7.12
2024	8.03	10.61	6.75	6.80	8.16	7.59	7.93	7.21	7.40	7.04	6.29	7.17	7.66	6.74	7.55	7.56	8.54	7.59
2022대비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7.50	47.36	-0.59	-3.95	7.09	5.42	2.19	1.12	8.98	9.83	7.34	3.31	5.51	-2.32	2.03	5.73	6.62	6.60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전국 평균은 7.59명으로 2022년 7.12명 대비 6.60%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대구, 인천, 전남 3개 지역이 하락하였고, 그 외 14개 지역은 상승하였다. 향상률의 폭은 -3.95%(인천)에서 47.36%(부산) 사이로 나타났다.

부산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다. 서울, 대전, 울산, 전북, 제주는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충북은 2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대구, 인천, 강원, 경기, 충남, 전남도 2년 모두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4)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 ‘저상버스 확보 수준’,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장애인문화·여가 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과 같이 5개의 지표를 활용하였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수준〉

최하 20.61점 _

전국 평균 32.80점

_ 최고 80.50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광주, 울산, 강원, 충남, 경남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서울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평균 점수는 32.80점(최고 80.50점, 최하 20.61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3.9배(80.50/20.61)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년의 2.5배(67.91/27.39)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우수는 서울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대구, 대전, 세종 4개 지역이며, 보통은 광주, 울산, 강원, 충남, 경남 5개 지역이고, 분발은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 7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80.50점으로 가장 높고, 전북이 20.6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수준〉

(단위: 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69.67	69.53	67.93	62.83	63.09	73.16	56.51	67.04	59.35	57.86	64.58	52.14	54.48	57.43	57.04	62.33	75.14	62.97
2023	60.60	44.50	56.21	34.14	46.86	48.59	47.51	46.20	34.78	33.07	27.39	32.96	37.34	46.02	37.62	32.22	67.91	43.17
2024	80.50	42.18	40.70	25.74	32.68	40.97	29.74	34.32	23.73	30.39	24.31	30.02	20.61	22.96	23.78	29.11	25.95	32.80
2023 대비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32.84	-5.21	-27.59	-24.60	-30.26	-15.68	-37.40	-25.71	-31.77	-8.10	-11.24	-8.92	-44.80	-50.11	-36.79	-9.65	-61.79	-24.02
3년 연속 상승	-																	
3년 연속 하락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연도별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수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147.92	320.06	209.22	190.91	172.87	362.11	164.44	142.86	157.71	115.43	127.04	98.70	97.41	135.27	112.17	132.27	169.12	167.97
2023	565.45	474.88	232.87	81.50	274.42	250.75	372.22	109.09	163.20	117.44	137.22	111.26	119.40	193.78	97.24	107.27	317.65	219.15
2024	1,653.82	579.62	242.66	89.80	283.59	267.91	385.22	145.45	163.20	141.03	118.44	107.20	112.00	112.86	99.32	119.48	366.18	293.40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192.48	22.06	4.20	10.18	3.34	6.84	3.49	33.33	0.00	20.09	-13.69	-3.65	-6.20	-41.76	2.14	11.38	15.28	33.88
3년 연속 상승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제주																	
3년 연속 하락	-																	

2024년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은 293.40%로, 2023년 219.15%, 2022년 167.97%에 비해 3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23년에 비해 전국 평균은 33.88% 상승하였으며, 서울은 192.48%의 상승 폭으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전남은 -41.76% 하락 폭으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2023년 대비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제주와 같은 12개 지역이었고, 하락한 지역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4개 지역이었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제주였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서울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이었고, 부산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대구, 광주, 대전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경기, 전남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인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2) 저상버스 확보 수준

〈저상버스 확보 수준〉

최하 13.85% _ 전국 평균 31.80% _ 최고 65.78%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강원, 충북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전북, 경남	서울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지역 등록장애인 수에 대비한 저상버스 확보 수준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최하 13.85%(울산), 최고 65.78%(서울), 전국 평균 31.80%로 나타났다. 전년도 전국 평균 26.28% 대비 21.0%로 향상하였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4.75배(65.78/13.85)로 2023년의 6.21배(63.39/10.20)와 비교해 지역간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서울 1개 지역만 포함되었으며, 양호 등급에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전북, 경남 8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강원, 충북 2개의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6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연도별 저상버스 확보 수준〉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59.66	28.92	39.71	27.63	29.02	33.40	12.15	37.31	26.15	27.99	50.54	7.62	20.16	16.82	18.00	37.24	17.83	28.83
2023	63.39	31.03	38.98	15.97	32.53	37.73	11.34	37.40	24.67	23.75	20.24	10.20	19.88	18.64	16.82	25.37	18.82	26.28
2024	65.78	36.07	46.49	18.69	39.44	40.39	13.85	41.47	33.30	31.74	25.55	16.77	38.78	22.22	17.49	32.97	19.66	31.80
2023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향상률	3.77	16.24	19.27	17.03	21.24	7.05	22.13	10.88	34.98	33.64	26.24	64.41	95.07	19.21	3.98	29.96	4.46	21.00
3년 연속 상승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제주																	
3년 연속 하락	-																	

2024년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31.80%로 2023년 26.28%에 비해 21.00% 상승하였다. 모든 지역이 2023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특히 전북의 상승 폭이 95.07%로 가장 컸다. 3년 연속 상승한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충남, 전남, 제주였으며, 3년 연속 하락한 지역은 없었다. 즉 모든 지역별로 저상버스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이었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은 2년 연속 양호 등급에 속하였다. 경기, 전북, 경남은 2023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다. 전남, 제주는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인천, 울산, 충남,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 분발 등급에 속한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북, 제주 지역은 작년에 비해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액',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과 같은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

최하 28.97점 _

전국 평균 39.65점

_ 최고 60.00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남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경기, 강원, 경북	서울, 대전, 제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평균 점수는 39.65점(최고 60.00점, 최하 28.97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7배(60.00/28.97)로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2년 조사의 2.78배(49.19/17.68)에 비해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전,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 등급에는 경기, 강원, 경북 3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전북, 전남 6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남 5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60.00점으로 가장 높고, 인천이 28.9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

(단위: 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20.44	24.99	31.76	17.68	31.87	39.03	49.19	31.67	26.96	32.44	27.32	30.97	39.00	36.11	37.71	35.05	40.44	32.51
2024	60.00	29.07	32.41	28.97	39.32	51.82	37.99	35.45	40.03	46.27	36.01	30.15	39.54	36.90	42.12	34.05	53.87	39.65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향상률	193.54	16.33	2.05	63.86	23.38	32.77	-22.77	11.94	48.48	42.63	31.81	-2.65	1.38	2.19	11.69	-2.85	33.21	21.96

2023년에는 이 영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과 비교하여 향상율을 분석하였고, 3년 동안의 경향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2024년 39.65점으로 2022년 32.51점에 비해 21.96% 상승하였다. 울산, 충남, 경남의 경우 2022년 대비 하락하였고, 나머지 지자체는 상승하였다.

서울은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크게 향상되었고, 대전, 제주는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경기, 강원은 2022년 보통 등급에서 2024년 양호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울산은 2022년 우수 등급에서 2024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고, 전북, 전남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경남은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대구, 충남은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부산, 인천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속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남은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최하 33.16명 _ 전국 평균 58.43명 _ 최고 103.18명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울산, 세종, 경기, 제주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경남	서울, 광주, 충남, 전북	강원, 전남, 경북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은 평균 58.43명으로 2022년의 55.07명에 비해 향상되었다. 최고 수준은 강원 의 103.18명, 최하 수준은 울산의 33.16명이었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3.11배(103.18/33.16)로 2022년의 35.50배(117.51/3.31)에 비교해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강원, 전남, 경북 3개 지역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는 서울, 광주, 충남, 전북 4개 지역, 보통 등급에는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경남 5개 지역, 분발 등급에는 대구, 울산, 세종, 경기, 제주 5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연도별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31	69.99	77.55	37.87	45.32	41.30	36.22	40.25	37.82	66.92	49.59	59.36	117.51	87.15	76.12	47.34	42.62	55.07
2024	62.38	56.16	44.06	48.83	61.37	51.78	33.16	44.16	42.14	103.18	50.85	59.11	64.61	85.72	89.52	58.38	37.82	58.43
2022 대비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상승
향상률	1784.59	-19.76	-43.19	28.94	35.41	25.38	-8.45	9.71	11.42	54.18	2.54	-0.42	-45.02	-1.64	17.60	23.32	-11.26	6.10

2024년 평균 수준은 58.43명으로 2022년의 55.07명에 비해 6.10% 상승하였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10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7개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향상률의 폭은 -43.1%에서 1,784.59% 사이로 나타났다.

전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고, 강원과 경북은 2022년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서울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광주는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상승하였고, 전북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부산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대구는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울산, 세종, 경기, 제주는 보통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속한 울산, 세종, 경기, 제주, 인천, 대전, 충북, 경남은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수준〉

최하 3.52점 _

전국 평균 5.04점

_ 최고 9.26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대구, 인천, 충남, 전남, 제주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서울,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경기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수준은 평균 5.04점(최고 9.26점, 최하 3.52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5.32점에 비해 다소 하락하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2.63배(9.26/3.52)로 2022년의 6.00배(12.06/2.01)에 비해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경기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울산, 세종, 강원, 경북, 경남 6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5개 지역이고, 분발은 대구, 인천, 충남, 전남, 제주 5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애인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수준〉

(단위: 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7.12	3.51	4.41	3.28	4.38	5.86	6.33	2.01	5.88	6.03	7.38	6.26	5.62	6.38	4.99	12.06	4.80	5.67
2024	6.68	4.40	3.52	3.82	4.45	4.88	5.27	5.67	9.26	5.21	5.04	3.89	4.70	3.82	5.55	5.35	4.17	5.04
2022 대비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상승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하락	하락	상승	하락	하락	하락
향상률	-6.18	25.36	-20.18	16.46	1.60	-16.72	-16.75	182.09	57.48	-13.60	-31.71	-37.86	-16.37	-40.13	11.22	-55.64	-13.13	-11.11

2024년 전국 평균은 5.04점으로 2022년 5.67점에 비해 11.11% 하락하였다. 2022 대비 상승한 지자체는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경북 6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하락한 지자체는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1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향상률의 폭은 -55.64%에서 182.09% 사이로 나타났다.

경기는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4년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세종은 분발에서 양호로, 경북은 보통에서 양호로, 부산은 분발에서 보통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경남은 우수에서 양호로, 충남, 전남은 양호에서 분발로, 대전, 충북은 양호에서 보통으로, 대구, 제주는 보통에서 분발로 하락하였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속한 대구, 인천, 제주, 부산, 광주, 전북은 장애인관련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최하 5.39점 _

전국 평균 8.67점

_ 최고 14.75점

분발	보통	양호	우수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경남	서울, 광주, 세종, 전북, 제주	대구, 대전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액과 장애인복지 예산 대비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예산 확보 비율로 산출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평균 8.67점(최고 14.75점, 최하 5.39점)으로, 2022년 평균 4.55점(최고 9.25점, 최하 2.43점)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조사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는 2.74배(14.75/5.39)로 2022년의 2.74배(14.75/5.39)와 같아 지역간 격차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 등급에는 대구, 대전 2개 지역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는 서울, 광주, 세종, 전북, 제주 5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경남 5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5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연도별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단위: 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균
2022	3.97	5.13	7.52	3.16	4.69	5.52	4.09	3.80	2.43	2.67	2.45	2.93	5.66	2.49	2.45	9.25	9.08	4.55
2024	10.48	8.64	14.75	8.15	10.72	11.80	8.21	9.35	7.97	5.39	6.07	6.17	10.06	5.79	5.86	7.17	10.87	8.67
2022 대비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상승	하락	상승	상승
향상률	163.98	68.42	96.14	157.91	128.57	113.77	100.73	146.05	227.98	101.87	147.76	110.58	77.74	132.53	139.18	-22.49	19.71	90.55

2024년 전국 평균은 8.67점으로 2022년 4.55점에 비해 90.55% 상승하였다. 2022년과 비교하면 경남만 22.49% 하락하였고, 다른 지역은 모두 상승하였고, 상승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로 227.98% 상승하였다.

대구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이었고, 대전은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서울, 세종은 보통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인천, 경기도는 분발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제주는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경남은 우수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부산은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은 2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해 있어 장애인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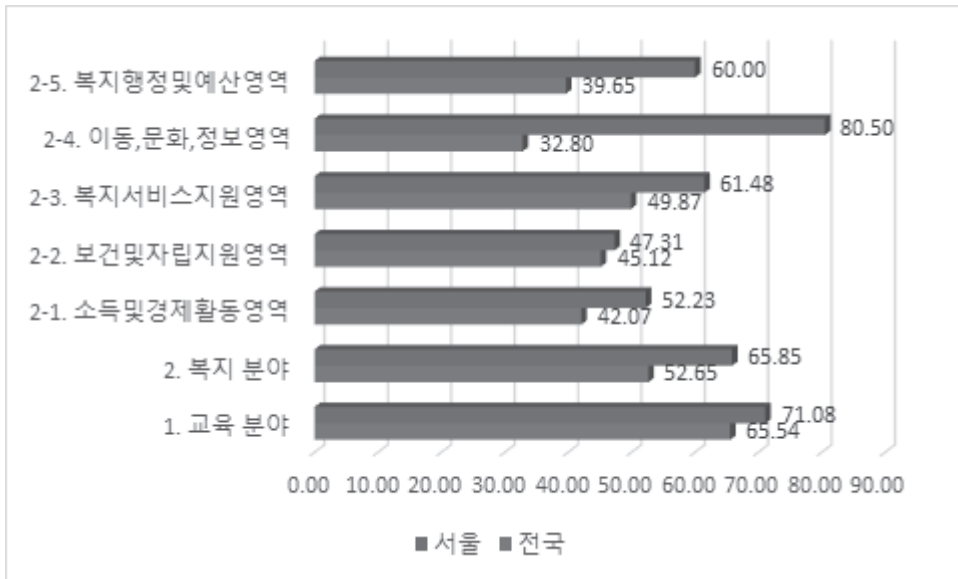
III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 결과

- | | |
|------------|-------------|
| 1. 서울특별시 | 10. 강원특별자치도 |
| 2. 부산광역시 | 11. 충청북도 |
| 3. 대구광역시 | 12. 충청남도 |
| 4. 인천광역시 | 13. 전북특별자치도 |
| 5. 광주광역시 | 14. 전라남도 |
| 6. 대전광역시 | 15. 경상북도 |
| 7. 울산광역시 | 16. 경상남도 |
| 8. 세종특별자치시 | 17. 제주특별자치도 |
| 9. 경기도 | |

1. 서울특별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서울 점수	71.08	65.85	52.23	47.31	61.48	80.50	60.00
서울 수준	양호	우수	우수	양호	양호	우수	우수



2024년 서울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1.08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65.85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52.23점),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 접근(80.50), 복지행정 및 예산(60.00%)이며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47.31점), 복지서비스 지원(61.48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양호

(서울 71.08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서울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38,914원	보통	양호	양호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4.19%	양호	양호	우수
특수학급 설치율	5.02%	3.39%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134.28%	우수	양호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보통	양호	양호
	유급보조인력	10.23%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67.41%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2.10개	양호	우수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2.20%	우수	양호	우수

2024년 서울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71.08점)으로 2023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별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지표와 장애인 교원 고용률 지표가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없었으며, 특수학급 설치율과 통합교육 학생 비율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학급 설치율 지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금년도 조사된 하위 8개 지표 중 6개 지표는 전국 평균 이상이며, 2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과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하였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는 우수 등급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특수학급 설치율 지표와 통합교육 학생 비율 지표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통합교육의 학생 비율을 늘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우수

(서울 52.23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서울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8.46%	분발	분발	분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12.22%	우수	우수	우수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11.83%	우수	우수	우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74,712원	보통	보통	분발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127,203원	분발	양호	분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13%	양호	우수	우수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994,419원	양호	보통	보통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8.20%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서울의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의 우수 등급(52.23점)으로, 2022년, 2023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을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로 나타났다. 그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지표와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3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다. 양호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가 3년 연속 속하였고, 보통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분발 등급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이다.

2023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으며 2023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로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2등급 하락하였다.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난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3년 연속 분발 등급인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양호

(서울 47.31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서울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51,791원	분발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1.29%	양호	-	분발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8,702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1.12%	-	-	보통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9.04%	보통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1,000,000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3.77%	보통	-	양호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5,760,240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3.77%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950,091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208,077원	우수	-	우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35,241원	분발	-	보통

2024년 서울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47.31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하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지표이며,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다. 보통 등급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수준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4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지표는 2022년과 동일한 우수 등급이며,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이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수준은 2등급 하락하였으며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은 2020년부터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양호

(서울 61.48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서울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개소	1.30개	우수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13.72개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6.33개	보통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5.21개	양호	-	양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299.34명	양호	-	우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2.39명	보통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8.03명	양호	-	양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9.73%	양호	-	양호

2024년 서울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61.48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세부지표별을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다. 양호 등급은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가 속하였고,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이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8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2개 지표는 전국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렀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며,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0년부터 전국 평균값 이하의 수준에 머무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요구된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우수

(서울 80.50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서울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1,653.82%	보통	우수	우수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65.78%	우수	우수	우수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78.15%	-	분발	보통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912.79%	-	양호	우수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47,551원	분발	분발	우수

2024년 서울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우수 등급(8.50점)으로 2023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은 없었으며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다. 분발 등급 또한 양호 등급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며 그 외 지표는 전년도와 동일한 등급에 속하였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표,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표,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서울시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우수

(서울 60.00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서울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48.93명	분발	-	양호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75.83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5건	양호	-	양호
	장애위원 수	30.43명	55.26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17.27건	분발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7,642천원	보통	-	양호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171.89%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64.67%	양호	-	우수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19.20%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2,186,896원	분발	-	우수
	기초 예산	89,943원	54,047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35,928원	분발	-	우수
	기초 예산	16,160원	87,811원			

2024년 서울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 등급(60.00점)으로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하여 월등히 상승하였다. 2023년은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수준,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이 속하였다.

서울시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 영역 모두 전국 평균값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중 광역 지방비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22년 대비 지표 전체의 등급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장애인단체 수준과 여성장애인 사업예산은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현재와 같은 노력을 지속한다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서울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이었고, 2023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우수 등급으로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보'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음

■ 서울의 강점 분야

- 서울의 장애인 복지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복지 분야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임
-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과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이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수준',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이 우수함

■ 서울의 취약 분야

- 서울의 교육 분야는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이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급 지급액'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수준' 수준은 상당히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이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이 보통 등급으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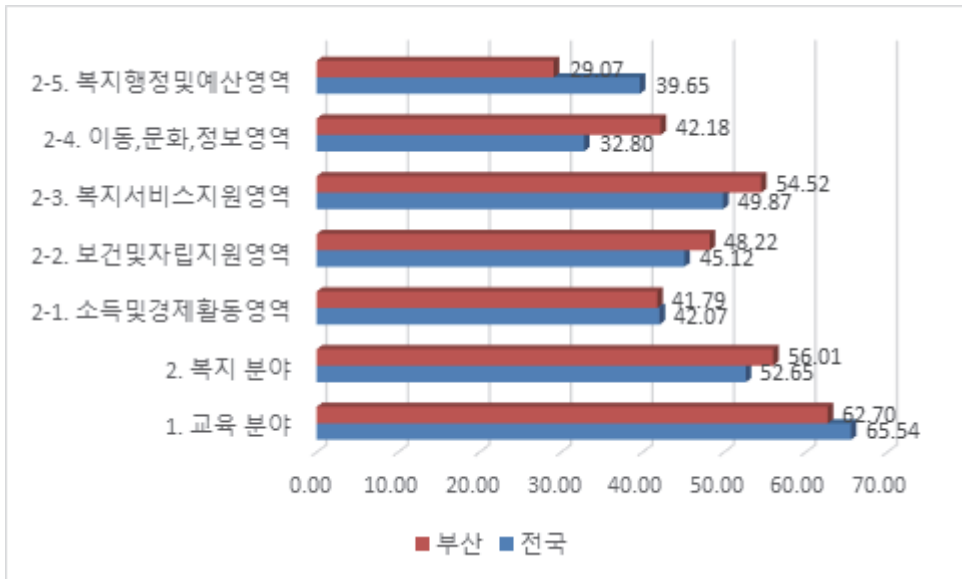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서울의 우선 과제

- 서울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이고, 장애인 복지 분야는 우수 등급이므로 전반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과 노력이 요구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우수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수준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

- 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값 이하이므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의 취약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이 영역 중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부산광역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부산 점수	62.70	56.01	41.79	48.22	54.52	42.18	29.07
부산 수준	보통	양호	보통	양호	양호	양호	분발



2024년 부산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2.70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6.01로 양호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보다 2단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없으며, 보건 및 자립지원(45.12점), 복지서비스 지원(54.52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42.18점)이 평균 이상의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41.79점)은 보통 등급, 복지행정 및 예산(29.07점)은 분발 등급으로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보통

(부산 62.70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부산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30,227원	분발	보통	분발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3.75%	보통	양호	보통
특수학급 설치율	5.02%	4.21%	분발	분발	보통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128.84%	98.78%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보통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71.36%	보통	보통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1.90개	분발	분발	분발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1.65%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부산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62.70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은 없으며,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양호 등급에 속한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이다. 분발 등급은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사 법정 정원 총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8개 지표 중 1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넘었고, 7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율이었고,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 지표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보통

(부산 41.79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부산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4.29%	우수	우수	우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5.17%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0.60%	우수	보통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130,400원	분발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353,645원	보통	양호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07%	양호	보통	양호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698,799원	분발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6.10%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부산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1.79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로 3년 연속 우수 등급이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이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이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표와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지표는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이며 2023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양호

(부산 48.22점/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부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70,180원	분발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조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8.18%	분발	-	우수
	보조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56,042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1.14%	-	-	보통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9.33%	분발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1,020,833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24.27%	우수	-	양호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5,686,126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2.68%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676,239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118,258원	보통	-	양호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2,968원	분발	-	분발

2024년 부산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48.22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분발 등급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수준이다. 양호 등급에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이 포함되었다. 보통수준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지표로 나타났다. 분발수준에 해당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과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대비 하락한 지표는 없으나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등급이므로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부산시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양호

(부산 54.52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부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개소	1.82개	보통	-	우수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10.87개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12.31개	분발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2.11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108.28명	분발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1.99명	분발	-	분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10.61명	양호	-	우수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5.60%	양호	-	양호

2024년 부산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54.52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단계 상승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다. 보통 등급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지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이며, 분발 등급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며,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해당되므로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양호

(부산 42.18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부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293.40%	579.62%	우수	우수	양호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36.07%	양호	양호	양호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82.59%	-	분발	보통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922.03%	-	분발	우수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8,144원	분발	보통	분발

2024년 부산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양호 등급(42.18점)으로 나타나, 2023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가 포함되었으며, 양호 등급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저상버스 확보 수준이 포함되었다. 보통 등급은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이,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과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이 상승하였으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과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전국 평균에 못미쳤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분발

(부산 29.07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부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41.91명	양호	-	보통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70.41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76건	분발	-	보통
	장애위원 수	30.43명	21.18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5.71건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7,385천원	양호	-	보통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135.01%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43.80%	분발	-	보통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1.20%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8,335원	분발	-	분발
	기초 예산	89,943원	26,435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6,225원	분발	-	분발
	기초 예산	16,160원	2,422원			

2024년 부산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29.07점)으로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지표가 보통 등급에 포함되었고,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수, 장애인단체 지원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에 이어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이며,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지표 7개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이므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의 요구된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부산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보다 향상되었음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이 양호 등급에 속하였고,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은 보통 등급, ‘복지행정 및 예산’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부산의 강점 분야

- 교육 분야는 전년도에 비하여 ‘특수학급 설치율’의 등급이 상승하였으나 우수한 지표는 없음
- 복지 분야의 세부영역 중 우수한 지표 없음
- 교육 영역 중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보조기기 지원 수준’이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지표가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이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한 지표 없음

■ 부산의 취약 분야

- 부산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특히 ‘특수 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분발 수준으로 타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복지 분야의 세부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이 취약한 수준임
-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 영역의 지표 중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이 취약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에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취약한 수준임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그 중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의 수준이 열악함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부산의 우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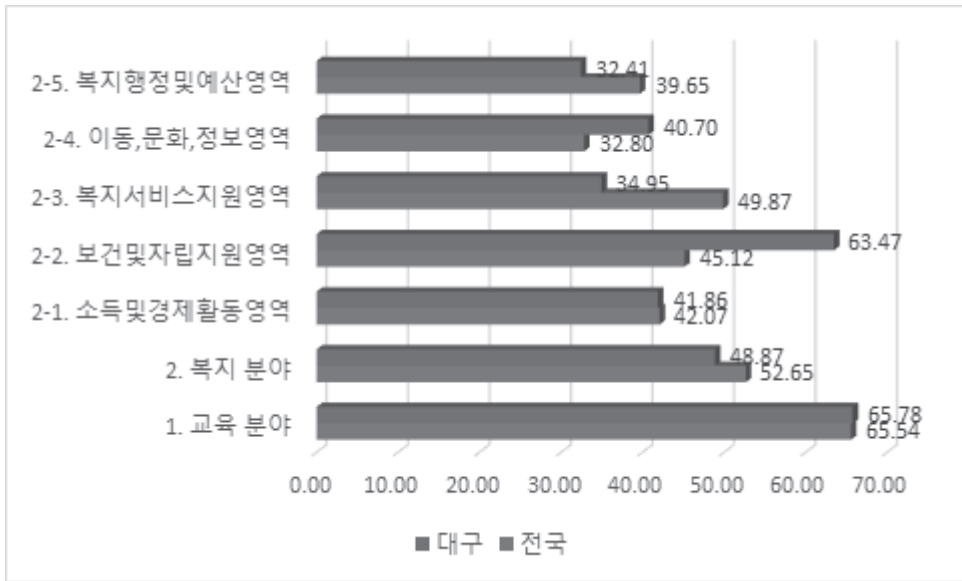
- 부산의 교육 분야는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특히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이며,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3년 연속 분

발 수준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이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적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해당되므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2022년부터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에 속하므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모든 지표 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이며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수’, ‘장애인단체 지원수준’,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에 이어 2024년 연속 분발수준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대구광역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대구 점수	65.78	48.87	41.86	63.47	34.95	40.70	32.41
대구 수준	양호	보통	보통	우수	분발	양호	분발



2024년 대구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5.78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분발 등급을 받은 2023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48.87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보건 및 자립지원(63.47점)이며,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40.70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41.86점)으로 보통 등급, 복지서비스 지원(34.95점), 복지행정 및 예산(32.41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양호

(대구 65.78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구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30,606원	양호	분발	보통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3.84%	우수	보통	양호	
특수학급 설치율	5.02%	3.87%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113.27%	보통	보통	분발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14.97%	양호	양호	양호
	유급보조인력	10.23%	10.20%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65.31%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1.95개	분발	보통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1.80%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대구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65.78점)으로 2023년의 분발 등급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은 없으며, 양호 등급은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이며,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이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이며,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으므로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여 통합교육에 진입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보통

(대구 41.86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구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3.94%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7.17%	우수	우수	우수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0.69%	보통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56,283원	분발	분발	분발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252,686원	보통	양호	보통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05%	양호	양호	보통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834,651원	보통	보통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7.01%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대구의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1.86점)으로 2022년 우수 등급, 2023년 양호 등급으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며 3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다.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이 포함되었으며,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이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5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없으며, 2023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이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우수

(대구 63.47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구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128,247원	보통	-	보통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9.99%	양호	-	우수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65,865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1.33%	-	-	보통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8.36%	보통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1,000,000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20.28%	양호	-	보통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4,780,093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2.69%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8,495,835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84,013원	양호	-	양호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421,338원	양호	-	우수

2024년 대구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63.47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양호 등급에서 상승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의 경우 교육 및 복지 분야 전체에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이 유일하게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과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의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과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이다. 분발 등급의 지표는 없었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7개 지표 중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3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5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이었으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분발

(대구 34.95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구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개소	0.46개	분발	-	분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12.03개	양호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6.59개	양호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2.45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110.63명	분발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1.79명	분발	-	분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6.75명	보통	-	분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2.50%	분발	-	분발

2024년 대구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4.95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의 분발 등급이었으며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으며,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직업재활 시설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전체 지표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과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지역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며, 하락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양호

(대구 40.70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구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242.66%	양호	양호	보통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46.49%	양호	양호	양호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100.00%	-	양호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902.04%	-	우수	우수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6,351원	보통	보통	분발

2024년 대구도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양호 등급(40.70점)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우수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가 속하였다. 양호 등급에는 저상버스 확보 수준이 포함되었으며, 보통 등급은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5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2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비해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수준은 상승하였고,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다. 반면,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과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전년도보다 하락하였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 미쳤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분발

(대구 32.41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구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24.03명	양호	-	분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64.09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38건	보통	-	분발
	장애위원 수	30.43명	21.74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5.50건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11,228천원	우수	-	우수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262.51%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33.32%	양호	-	분발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1.86%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151,016원	분발	-	분발
	기초 예산	89,943원	13,879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23,336원	분발	-	보통
	기초 예산	16,160원	6,280원			

2024년 대구도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32.41점)의 하위 수준으로 2022년 보통 등급에서 하락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은 없으며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여성장애인 사업예산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포함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수준,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1개 지표만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나머지 6개 지표는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이고,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전국 하위 수준이며 지표 7개 중 5개의 지표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구시의 집중적인 예산 확보 및 투자가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대구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이었고, 2023년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양호 등급보다 하락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보건 및 자립지원'이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 접근'이 양호 등급,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이 보통 등급,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대구의 강점 분야

- 복지 분야 중 '보건 및 자립 지원'은 우수함
- 교육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 중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이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우수한 지표 없음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이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은 우수함

■ 대구의 취약 분야

- 대구도 교육 분야는 세부지표에 우수 등급이 없으며,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이 분발 등급으로 특히,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이 3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상당히 취약한 수준임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의 수준이 취약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이 영역 중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인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이 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세부지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매우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열악한 수준임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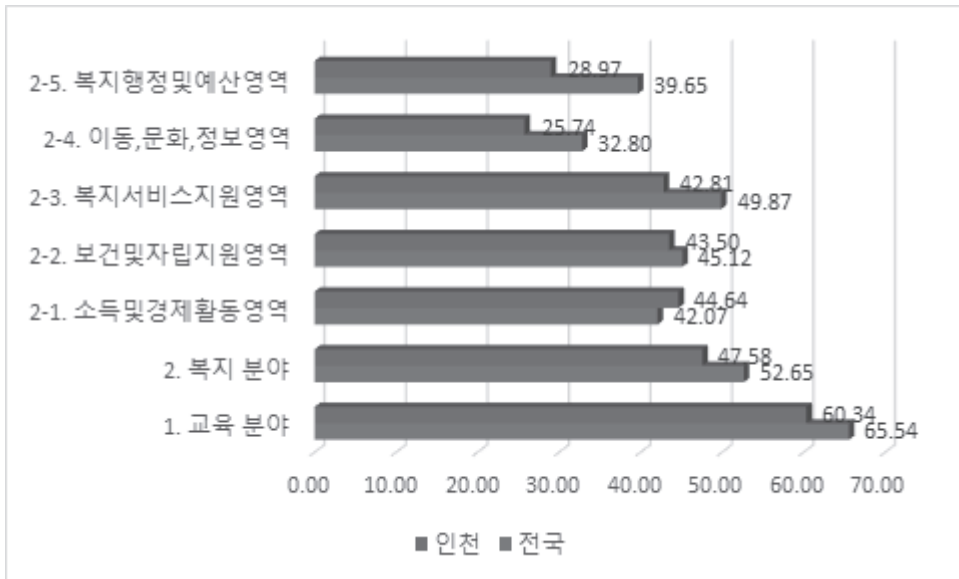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대구의 우선 과제

- 대구의 교육 분야는 전년도 대비 등급이 상승하였으나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이 2023년에 이어 전국 평균 이하 수

- 준이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특히,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나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체 세부 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함. 특히,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수준이므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의 취약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이 영역 중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인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인천광역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인천 점수	60.34	47.58	44.64	43.50	42.81	25.74	28.97
인천 수준	분발	보통	양호	보통	보통	분발	분발



2024년 인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0.34점으로 2022년, 2023년과 동일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47.58점의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없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4.64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 지원(43.50점), 복지서비스 지원(42.81점)은 보통 등급으로,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5.74점), 복지행정 및 예산(28.97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하의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분발

(인천 60.34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인천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25,839원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3.66%	보통	보통	보통
특수학급 설치율	5.02%	5.22%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107.53%	보통	분발	분발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보통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74.33%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1.90개	분발	분발	분발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1.29%	분발	보통	보통

2024년 인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분발 등급(60.34점)으로 2022년과 2023년 연속 분발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은 없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지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지표,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지표가 포함되었다. 교육 분야의 세부 지표 8개 중 2개 지표가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6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으며, 하락한 지표도 없다. 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의 경우 3년 연속 분발 등급이므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예산과 학급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양호

(인천 44.64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인천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3.98%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4.31%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1.36%	우수	우수	우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161,019원	보통	양호	양호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358,639원	보통	양호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04%	분발	양호	보통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730,865원	보통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5.38%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인천의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44.64점)으로 2022년, 2023년 연속 양호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생산물 우선 구매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률과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이다.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3년 연속 우수 등급이며,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2023년 이후 2년간 분발 등급이다. 전년도 대비 상승하거나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장애인공무원 고용률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이므로 인천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보통

(인천 43.50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인천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원	보통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	분발	-	우수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	-	-	양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	양호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	양호	-	보통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원	양호	-	보통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원	분발	-	분발

2024년 인천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3.50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이며,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일반 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수준에 해당되는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과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인 반면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은 하락하였다.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보통

(인천 42.81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인천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개소	0.66개	분발	-	분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10.03개	보통	-	분발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7.16개	분발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3.09개	보통	-	보통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106.42명	보통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2.66명	보통	-	양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6.80명	보통	-	분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7.02%	양호	-	양호

2024년 인천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2.81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6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며, 하락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다.

인천시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이며 세부 지표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이므로 지자체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인천 25.74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인천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293.40%	89.80%	양호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18.69%	보통	분발	분발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100.00%	-	보통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499.70%	-	보통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13,571원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인천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하위 수준의 분발 등급(28.74점)으로 2023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가 속하였다. 양호 등급은 없었으며, 보통 등급에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5개 지표 중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시설 비율만 상승하였으며 그 외 세부 지표의 수준 변화는 없었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과 저상버스 확보 수준이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송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분발

(인천 28.97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인천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29.30명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68.36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36건	분발	-	분발
	장애위원 수	30.43명	24.63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7.82건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5,431천원	분발	-	보통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162.10%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38.32%	보통	-	보통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16.22%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16,558원	분발	-	분발
	기초 예산	89,943원	5,368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10,572원	분발	-	분발
	기초 예산	16,160원	875원			

2024년 인천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의 분발 등급(28.97점)으로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없었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7개 지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이 향상되었고, 그 외 지표는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세부 지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인천시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인천의 장애인 교육분야는 분발 등급으로 2023년과 동일함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보다 상승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 서비스 지원'은 보통 등급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인천의 강점 분야

- 교육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지표는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보조기기 지원 수준'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으나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양호 등급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는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인천의 취약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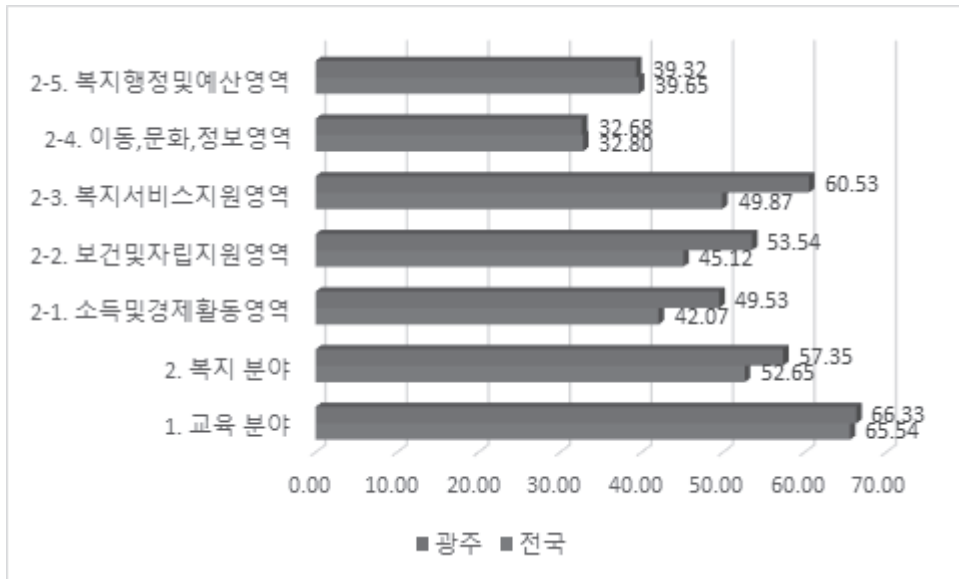
- 인천의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의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2022년과 2024년에 분발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수준은 상당히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취약함.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등 이동 수준이 열악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세부 지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인천의 우선 과제

- 인천의 교육 분야는 지속적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인천의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특히, 복지 분야 중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2022년과 2024년에 분발 수준이므로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세부 지표 중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이므로 지자체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의 취약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과 '저상버스 확보 수준'이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운송수단의 확대가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세부 지표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인천시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5. 광주광역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광주 점수	66.33	57.35	49.53	53.54	60.53	32.68	39.32
광주 수준	양호	양호	우수	양호	양호	보통	보통



2024년 광주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5.33점의 양호 등급으로 2023년 보통 등급보다 상승하였으며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7.35점의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9.53점)이며 보건 및 자립지원(53.54점), 복지서비스 지원(60.53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32.68점), 복지행정 및 예산(39.32점)은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양호

(광주 66.33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광주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33,861원	분발	양호	보통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3.66%	보통	양호	보통
특수학급 설치율	5.02%	3.76%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127.33%	양호	보통	보통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보통	보통	양호
	유급보조인력	10.23%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65.45%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2.00개	보통	양호	보통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1.89%	우수	양호	우수

2024년 광주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66.33점)으로 2023년 보통 등급보다 상승하였으며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속하였고, 양호 등급은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이 포함되었다.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의 8개 지표 중 2개 지표는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6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었고,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 및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우수

(광주 49.53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광주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4.52%	우수	우수	우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4.82%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1.36%	우수	양호	우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140,648원	보통	분발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384,998원	보통	분발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09%	보통	분발	양호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1,219,007원	양호	양호	양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3.77%	양호	양호	분발

2024년 광주의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49.53점)으로, 2023년 보통 등급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이며 분발 등급으로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광주의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2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으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다.

광주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년도 대비 향상되었으나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인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양호

(광주 53.54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광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188,550원	분발	-	양호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8.40%	분발	-	양호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48,663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4.48%	-	-	양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4.88%	우수	-	분발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1,000,000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42.67%	분발	-	우수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10,116,286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3.98%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958,023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114,158원	양호	-	양호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21,151원	분발	-	보통

2024년 광주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53.54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은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2024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2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고,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은 전년도 대비 하락하였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은 2022년 대비 하락의 폭이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양호

(광주 60.53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광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1.09개소	1.01개	보통	-	보통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14.63개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11.97개	보통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7.93개	우수	-	우수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149.18명	보통	-	양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3.88명	양호	-	우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8.16명	우수	-	양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2.51%	분발	-	분발

2024년 광주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60.53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다. 보통 등급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이 포함되었고, 분발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지표 8개 중 6개의 지표가 전국 평균에 비해 우수한 수준을 보였고, 2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으며,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다.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으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보통

(광주 32.68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광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283.59%	양호	양호	보통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39.44%	양호	양호	양호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100.00%	-	양호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433.53%	-	보통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12,366원	보통	분발	보통

2024년 광주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의 보통 등급(32.68점)으로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가 속하였다. 양호 등급에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2023년에 비해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의 수준이 향상되었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수준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보통

(광주 39.32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광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36.93명	보통	-	양호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85.80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16건	보통	-	보통
	장애위원 수	30.43명	34.19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19.33건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8,822천원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176.03%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46.78%	분발	-	보통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3.22%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26,204원	분발	-	분발
	기초 예산	89,943원	24,427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28,449원	분발	-	보통
	기초 예산	16,160원	2,811원			

2024년 광주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39.32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은 없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포함되었다.

2022년에 비해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향상되었고,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수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등급이며 세부 지표 7개 중 4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표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광주의 장애인 교육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3년 보통 등급보다 상승함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2년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은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 서비스 지원'은 양호 등급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 광주의 강점 분야

- 교육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장애인 교원 고용률' 임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지표는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는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광주의 취약 분야

- 광주의 교육 분야 중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는 등 취약한 수준임
- 광주의 복지 분야 중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지표는 2022년 대비 하락의 폭이 큼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이 열악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이며,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등급으로 취약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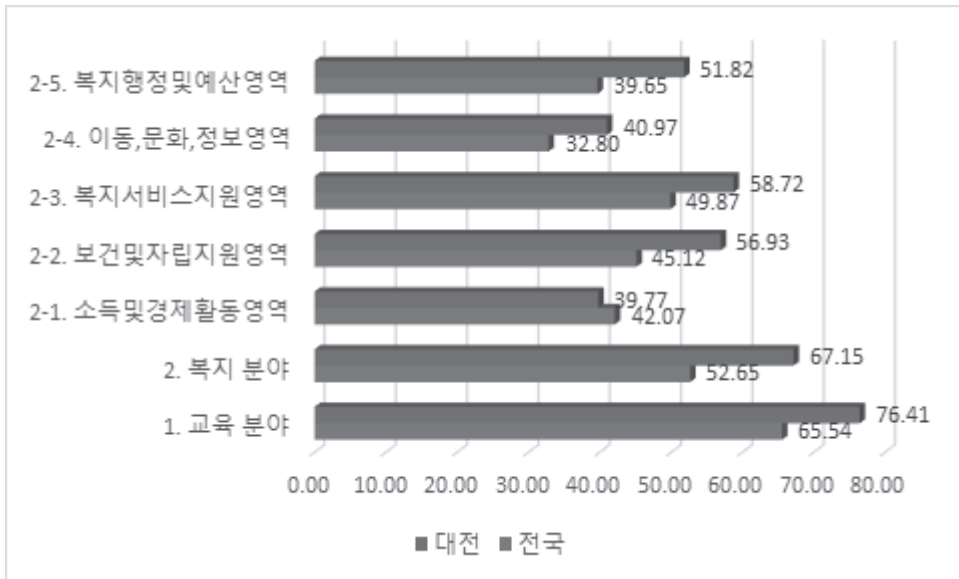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인천의 우선 과제

- 광주의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이나 세부 지표 대부분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 및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우수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인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은 2022년 대비 하락의 폭이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으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수준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이며,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2022년과 2024년 연속 분발 등급이며 세부 지표 7개 중 4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표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이 요구됨

6. 대전광역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대전 점수	76.41	67.15	39.77	56.93	58.72	40.97	51.82
대전 수준	우수	우수	보통	우수	양호	양호	우수



2024년 대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3.41점으로 2022년, 2023년과 동일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67.15점으로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보건 및 자립 지원(56.93점), 복지행정 및 예산(51.82점)이며, 복지 서비스 지원(58.72점),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 접근(40.97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39.77점)은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이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우수

(대전 76.41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전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38,914원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4.19%	우수	우수	우수
특수학급 설치율	5.02%	3.39%	보통	보통	분발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134.28%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우수	우수	양호
	유급보조인력	10.23%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6.41%	분발	보통	분발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2.10개	분발	양호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2.20%	우수	우수	우수

2024년 대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우수 등급(76.41점)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배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이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이 3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으며, 8개 지표중 6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넘었고 2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으며,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지표가 하락하였다.

특수학급 설치율과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보통

(대전 39.77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전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3.665%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4.77%	보통	보통	양호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0.56%	양호	보통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134,708원	보통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365,840원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05%	양호	우수	보통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893,258원	보통	보통	보통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8.04%	우수	양호	양호

2024년 대전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보통 등급(39.77점)으로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은 없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발 등급은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며,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3년 연속 수준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전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우수

(대전 56.93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전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436,233원	우수	-	우수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조기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7.77%	양호	-	우수
	보조기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27,291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6.75%	-	-	우수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11.05%	양호	-	우수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1,000,000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23.92%	보통	-	양호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5,593,350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2.90%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684,714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48,194원	분발	-	보통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315원	양호	-	분발

2024년 대전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 이상의 우수 등급(59.93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으로는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지표, 분발 등급으로는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에 비해 2단계의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현재와 같은 노력과 함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양호

(대전 58.72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전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1.09개소	1.12개	양호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15.83개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11.34개	양호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8.82개	우수	-	우수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162.51명	우수	-	양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2.35명	분발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7.59명	양호	-	양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4.37%	분발	-	보통

2024년 대전의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58.72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포함되었으며, 분발 등급은 없었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었고, 하락한 지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다.

대전도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현재와 같은 노력을 하며 수준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으며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양호

(대전 40.97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전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293.40%	267.91%	우수	양호	보통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40.39%	양호	양호	양호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94.24%	-	양호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1,033.27%	-	보통	우수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5,214원	분발	보통	분발

2024년 대전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양호 등급(40.97점)으로 2023년의 양호 등급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가 속하였다. 양호 등급에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 해당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과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향상하였으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우수

(대전 51.82점/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대전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39.21명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64.34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77건	양호	-	보통
	장애위원 수	30.43명	25.22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18.17건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9,255천원	양호	-	우수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203.97%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48.30%	보통	-	보통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2.07%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2,255,687원	보통	-	우수
	기초 예산	89,943원	30,622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126,412원	양호	-	우수
	기초 예산	16,160원	248원			

2024년 대전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최고 수준인 우수 등급(51.82점)으로 2021년 양호 등급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는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가 포함되었다.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이 속하였다. 전국 하위 수준인 분발 등급은 없었다.

2022년에 비해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모두 우수 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는 하락하였다.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과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대전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대전의 장애인 교육분야는 우수 등급으로 3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나타남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우수 등급으로, 2022년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은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은 양호 등급에,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 대전의 강점 분야

- 교육 분야가 3년 연속 우수 등급이며, 세부 지표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 또한 3년 연속 우수 등급임.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으로 세부 지표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은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분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는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 등급으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사업 예산’ 지표는 우수함

■ 대전의 취약 분야

- 대전의 교육 분야 중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분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분발 수준임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3년 연속 수준이 하락하는 분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이 취약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중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이 열악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과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대전의 우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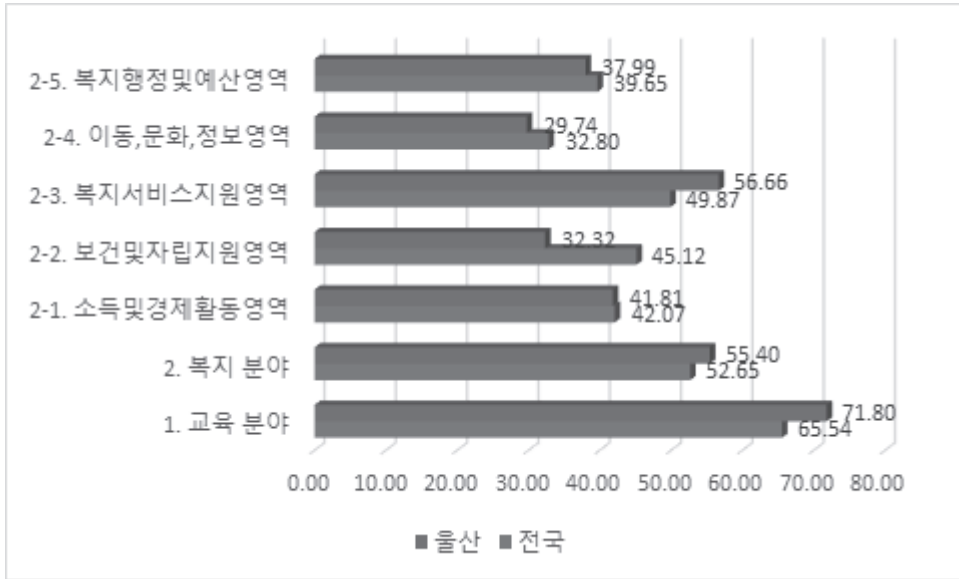
- 대전의 교육 분야는 우수 등급이나 ‘특수학급 설치율’과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전국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3년 연속 수준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전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하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 향상을 위한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수준이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므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 등급이나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과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7. 울산광역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울산 점수	71.80	55.40	41.81	32.32	56.66	29.74	37.99
울산 수준	양호	양호	보통	분발	양호	보통	보통



2024년 울산광역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1.80점으로 양호 등급으로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동안 연속하여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5.40점으로 양호 등급으로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으며,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56.66점으로 양호 등급이었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1.8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9.74점), 복지행정 및 예산(37.99점)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32.32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양호

(울산 71.80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울산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32,918원	분발	보통	보통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4.00%	보통	보통	양호	
특수학급 설치율	5.02%	5.39%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128.84%	124.85%	보통	보통	보통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22.78%	우수	우수	우수
	유급보조인력	10.23%	11.80%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73.23%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2.05개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1.80%	양호	우수	양호	

2024년 울산시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71.80점)으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다. 금년도 조사된 8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이었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지표는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보통

(울산 41.81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울산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3.32%	분발	분발	분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4.77%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1.20%	분발	양호	우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166,264원	우수	양호	양호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343,893원	분발	보통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	우수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1,030,165원	보통	보통	보통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7.83%	분발	분발	양호

2024년 울산시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1.81점)으로서, 2022년 우수 등급이었으며 2023년 보통 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이 중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분발에서 양호로 두 단계 상승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한편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은 전년도에 이어 분발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분발

(울산 32.32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울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91,343원	분발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5.10%	분발	-	분발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8,137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7.29%	-	-	우수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3.55%	우수	-	분발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1,341,667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15.99%	분발	-	분발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2,927,971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1.56%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337,932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49,907원	양호	-	보통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437원	분발	-	분발

2024년 울산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2.32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서 두 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한 7개 지표 중 1개 지표 외에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고,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수준은 우수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세 단계나 하락하였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에 비하여 항상 없이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양호

(울산 56.66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울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1.09개소	0.97개	보통	-	보통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20.47개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20.05개	우수	-	우수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3.31개	보통	-	보통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123.19명	양호	-	양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2.49명	양호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7.93명	우수	-	양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4.41%	보통	-	보통

2024년 울산시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56.66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이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고,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수 등급에 속하여 지원이 잘 유지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도와 2024년도 모두 보통 등급에 속하여 개선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보통

(울산 29.74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울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293.40%	385.22%	보통	양호	양호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13.85%	분발	분발	분발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100.00%	-	양호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619.38%	-	보통	양호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12,426원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울산시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보통 등급(29.74점)으로서, 2022년 분발 등급이었으며 2023년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이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는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표는 분발 등급에 해당하였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고,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특히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보통

(울산 37.99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울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23.00명	보통	-	분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43.32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3건	양호	-	양호
	장애위원 수	30.43명	43.86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12.50건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6,171천원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147.86%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50.11%	보통	-	보통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6.26%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1,402,204원	우수	-	양호
	기초 예산	89,943원	21,782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38,359.08원	우수	-	양호
	기초 예산	16,160원	13,198원			

2024년 울산시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37.99점)으로 2020년 우수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이었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하위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으며,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발 등급에 속하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은 2022년 보통 등급에 비하여 하락한 것이므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울산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이었고, 3년 동안 연속하여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우수 등급은 없었고,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음.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울산시의 강점 분야

- 울산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연속 3년 동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은 우수함
- 장애인 복지 분야는 금년도와 전년도 모두 양호 등급에 해당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표는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 지표는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음

■ 울산시의 취약 분야

- 울산시 교육 분야 중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보통 수준으로, 이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매우 취약한 수준임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열악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상당히 열악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저상버스 확보수준'이 매우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수준으로 열악하고, 특히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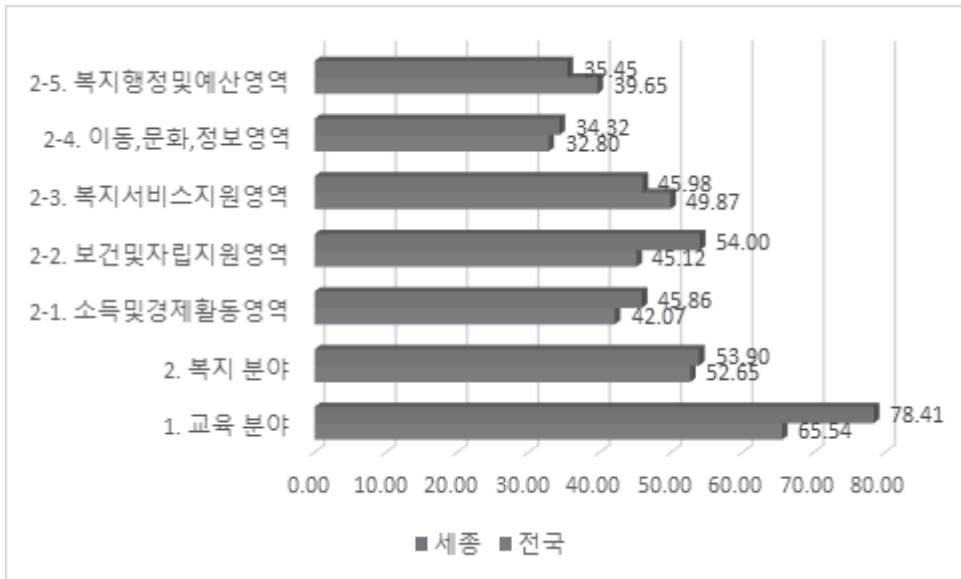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울산시 우선 과제

- 울산시의 장애인 교육과 복지 분야는 지속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므로 유지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울산시의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

- 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므로 개선에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계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에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2022년도에 이어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도와 2024년도 연속 보통 등급에 속하여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특히 '저상버스 확보수준'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해당하여 각고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수준으로, 특히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함

8. 세종특별자치시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세종 점수	78.41	53.90	45.86	54.00	45.98	34.32	35.45
세종 수준	우수	양호	양호	양호	보통	양호	보통



2024년 세종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8.41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2023년의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3.90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5.86점), 보건 및 자립지원(54.00점),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 접근(34.32점)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45.98점), 복지행정 및 예산(35.45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분발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우수

(세종 78.41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세종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43,636원	우수	우수	우수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4.21%	양호	우수	우수	
특수학급 설치율	5.02%	4.70%	보통	보통	보통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187.66%	우수	양호	우수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18.73%	우수	우수	우수
	유급보조인력	10.23%	17.27%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77.66%	우수	우수	우수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2.26개	우수	양호	분발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2.11%	분발	양호	우수	

2024년 세종시 장애인 교육 분야는 우수 등급(78.41점)으로 2022년과 2023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특수학급 설치율 지표는 보통 등급에 해당하였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금년도 조사된 8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모두 3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2022년 우수 등급, 2023년 양호 등급, 금년도에는 분발 등급으로 해마다 등급이 하락되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양호

(세종 45.86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세종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3.28%	보통	분발	분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4.55%	분발	보통	보통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0.42%	분발	분발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151,535원	분발	양호	양호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339,118원	우수	분발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	분발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3,080,229원	양호	우수	우수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19.31%	우수	우수	우수

2024년 세종시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45.86점)으로서, 2022년 양호 등급이었으며 2023년 보통 등급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으로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두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3년 연속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 반면,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2년 또는 3년 동안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양호

(세종 54.00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세종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106,709원	분발	-	보통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조기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5.33%	분발	-	우수
	보조기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39,797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8.42%	-	-	우수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11.89%	보통	-	우수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1,722,222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26.03%	보통	-	분발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4,197,274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0.97%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175,591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209,172원	양호	-	우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6,053원	우수	-	분발

2024년 세종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54.00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지표는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고,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7개 지표 중 총 4개 지표가 우수 등급에 해당하였으나, 3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기기 지원 수준은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매우 상승하였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에는 우수 등급이었으나 금년도 분발 등급으로 매우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관심이 요구된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보통

(세종 45.98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세종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1.09개소	0.77개	보통	-	분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37.31개	우수	-	우수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6.18개	양호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1.55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64.89명	보통	-	분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2.56명	보통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7.21명	양호	-	보통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2.87%	분발	-	분발

2024년 세종시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5.98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이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8개 지표 중 총 7개 하위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으며,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2022년,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었다. 반면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가 5개에 해당하여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2022년도에 이어 계속 분발 등급에 속하여 변화를 꾀하기 위한 큰 노력이 요구된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양호

(세종 34.32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세종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145.45%	보통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41.47%	양호	양호	양호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18.94%	-	분발	분발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575.14%	-	양호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20,071원	양호	우수	양호

2024년 세종시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양호 등급(34.32점)으로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없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2023년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종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보통

(세종 35.45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세종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25.51명	보통	-	분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60.82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1건	분발	-	양호
	장애위원 수	30.43명	47.62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20.00건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6,935천원	보통	-	양호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170.48%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23.62%	우수	-	분발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874,760원	보통	-	보통
	기초 예산	89,943원	0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11,219원	보통	-	분발
	기초 예산	16,160원	0원			

2024년 세종시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35.45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우수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년도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에 보통 등급에서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세종특별자치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우수 등급이었고, 2022년과 2023년의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고,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 세종시의 강점 분야

- 세종시 장애인 교육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우수함
- 세종시 장애인 복지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지표는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음

■ 세종시의 취약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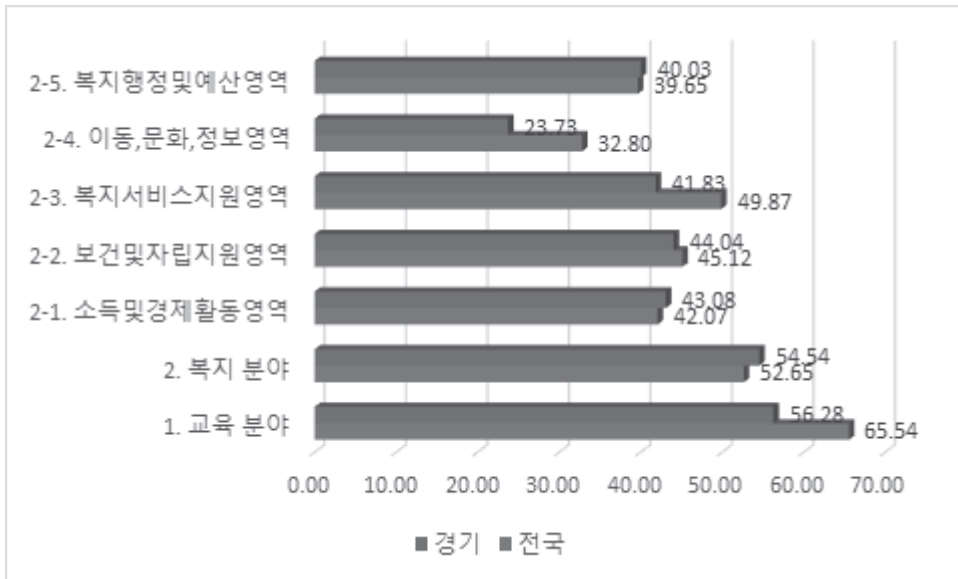
- 세종시의 교육 분야 중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분발 등급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상당히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이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세종시 우선 과제

- 세종시 교육 분야는 우수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해마다 수준이 하락하여 분발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2년 또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에는 우수 등급이었으나 금년도 분발 등급으로 크게 하락되어 적극적인 회복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도에 이어 계속 분발 수준이어서 큰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2년 연속 분발 수준이어서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큰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전국 평균에 못미쳤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9. 경기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경기 점수	56.28	54.54	43.08	44.04	41.83	23.73	40.03
경기 수준	분발	양호	양호	보통	분발	분발	양호



2024년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56.28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4.54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보통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으며, 양호 등급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3.08점), 복지행정 및 예산(40.03점)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44.04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복지서비스 지원(41.8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3.73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분발

(경기 56.28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25,234원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3.05%	분발	분발	분발	
특수학급 설치율	5.02%	5.29%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133.41%	우수	양호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9.92%	분발	분발	분발
	유급보조인력	10.23%	4.26%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79.61%	우수	우수	우수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2.00개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1.18%	분발	보통	분발	

2024년 경기 장애인 교육 분야는 분발 등급(56.28점)으로 2022년,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통합교육 학생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조사된 8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양호

(경기 43.08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3.36%	분발	분발	분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4.10%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1.20%	보통	우수	우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104,476원	양호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373,870원	양호	우수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06%	보통	양호	양호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1,229,751원	양호	우수	양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5.89%	보통	우수	보통

2024년 경기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43.08점)으로서,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023년 우수 등급으로 상향하였으나 다시 양호 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으며,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없었으며,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우수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도에 이어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연속 3년 동안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지자체의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보통

(경기 44.04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59,775원	분발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6.28%	양호	-	양호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50,877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4.09%	-	-	양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9.28%	보통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1,142,222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21.72%	우수	-	보통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4,440,020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2.23%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477,615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32,836원	분발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133,108원	양호	-	양호

2024년 경기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4.04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의 7개 지표 중 총 3개 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은 2022년도에 이어 분발등급으로 나타나 예산 확보를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분발

(경기 41.83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1.09개소	0.67개	분발	-	분발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11.74개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5.34개	분발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3.04개	보통	-	보통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63.40명	양호	-	분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3.01명	우수	-	양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7.40명	보통	-	보통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6.36%	양호	-	양호

2024년 경기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41.83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조사된 8개 지표 중 총 6개 하위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 지표 중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2년도에 이어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수를 확충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경기 23.73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163.20%	보통	보통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33.30%	보통	보통	양호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71.26%	-	보통	보통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393.28%	-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3,394원	분발	보통	분발

2024년 경기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23.73점)으로서, 2023년 분발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저상버스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하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양호

(경기 40.03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기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23.02명	보통	-	분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61.25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263건	양호	-	우수
	장애위원 수	30.43명	22.86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14.06건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4,416천원	분발	-	보통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178.25%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20.11%	양호	-	우수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46.70%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21,800원	분발	-	분발
	기초 예산	89,943원	69,913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4,266원	분발	-	분발
	기초 예산	16,160원	704원			

2024년 경기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 등급(40.03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조사된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로 나타났다.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양호,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에도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분발 등급이었고,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2년 보통 등급에서 상향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경기도의 강점 분야

- 경기도 장애인 교육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분발 수준으로 평가됨
- 교육 영역 중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음
- 경기도 장애인 복지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비율'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우수함

■ 경기도의 취약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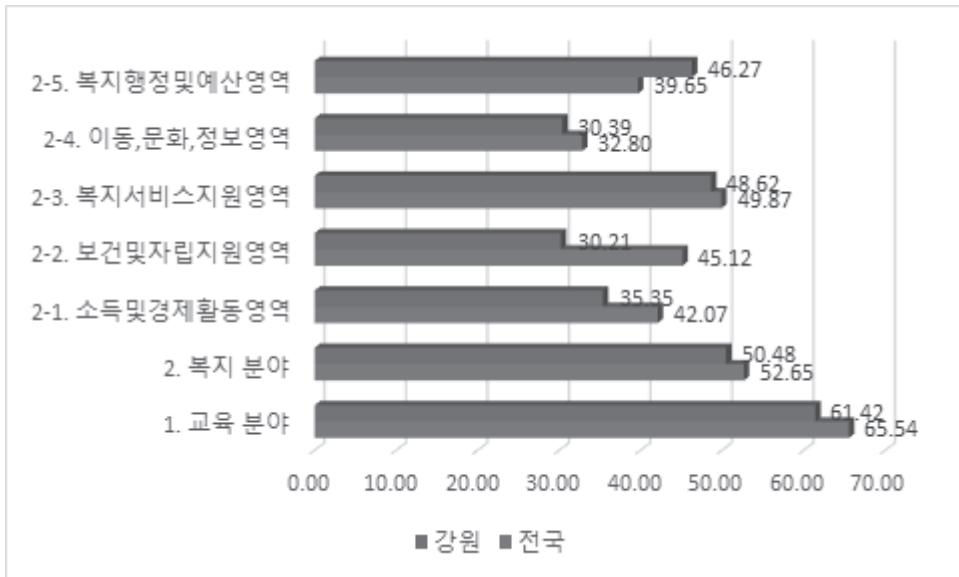
- 경기도의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분발 등급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수준은 매우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이 매우 열악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경기도 우선 과제

- 경기도 교육 분야는 분발 수준으로서, 이 영역 중 분발 등급에 속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요구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은 2022년도에 이어 계속 분발 등급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2022년도에 이어 계속 분발 수준이어서 큰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특별한 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이어서 개선을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전국 평균에 못미쳤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10. 강원특별자치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강원 점수	61.42	50.48	35.35	30.21	48.62	30.39	46.27
강원 수준	보통	보통	분발	분발	보통	보통	양호



2024년 강원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1.42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2023년의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50.48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복지행정 및 예산(46.27점)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48.62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30.39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35.35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30.21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보통

(강원 61.42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강원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45,570원	양호	양호	우수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3.25%	분발	분발	보통	
특수학급 설치율	5.02%	4.88%	보통	보통	보통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133.98%	양호	우수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12.74%	보통	양호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10.32%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72.27%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2.28개	양호	우수	우수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1.28%	보통	분발	보통	

2024년 강원도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61.42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통합교육 학생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로 나타났다. 한편 보통 등급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분발

(강원 35.35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강원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4.21%	우수	양호	양호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4.03%	분발	보통	분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0.49%	분발	분발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141,162원	보통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59,311원	분발	보통	보통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04%	양호	분발	보통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706,551원	양호	양호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4.02%	양호	양호	분발

2024년 강원도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5.35점)으로서, 2022년 보통 등급이었으며 2023년 분발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분발 등급 지표 중 특히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각고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분발

(강원 30.21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강원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49,033원	보통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조기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4.04%	양호	-	보통
	보조기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32,487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2.59%	-	-	보통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5.78%	분발	-	분발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1,000,000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13.62%	분발	-	분발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2,807,230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1.64%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363,627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18,504원	분발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5,894원	분발	-	분발

2024년 강원도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0.21점)으로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금년도에 조사된 하위 7개 지표 모두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인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도에도 보통, 분발 등급이었기 때문에 개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보통

(강원 48.62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강원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1.09개소	1.09개	양호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10.27개	우수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14.42개	우수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3.38개	보통	-	보통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99.18명	양호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2.77명	양호	-	양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7.04명	분발	-	보통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3.31%	보통	-	분발

2024년 강원도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48.62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하위 8개 지표 중 총 3개 하위 지표가 전국 평균에 비해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이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우수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하였다. 한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분발 수준으로 2022년도 전국 평균 수준 이하인 보통 등급에서 더욱 하락하였기 때문에 각고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보통

(강원 30.39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강원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293.40%	141.03%	분발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31.74%	보통	보통	보통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100%	-	보통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582.07%	-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9,941원	분발	보통	보통

2024년 강원도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보통 등급(30.39점)으로서, 2022년 보통 등급이었으며 2023년 분발 등급에 비하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다. 이 중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은 보통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두 단계나 상승한 것이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는 분발 등급에 3년 동안 속하였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양호

(강원 46.27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강원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97.46명	양호	-	우수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108.91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64건	양호	-	양호
	장애위원 수	30.43명	30.49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9.16건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4,402천원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89.39%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17.41%	보통	-	양호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41.52%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979,946원	우수	-	우수
	기초 예산	89,943원	281,618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22,354원	분발	-	보통
	기초 예산	16,160원	4,560원			

2024년 강원도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 등급(46.27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하위 7개 지표 중 4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강원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이었고, 2022년, 2023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고,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 등급에 속하였음.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이 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강원도의 강점 분야

- 강원도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시설 비율'은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우수함

■ 강원도의 취약 분야

- 강원도의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음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매우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한 송수단 충족율'이 매우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강원도 우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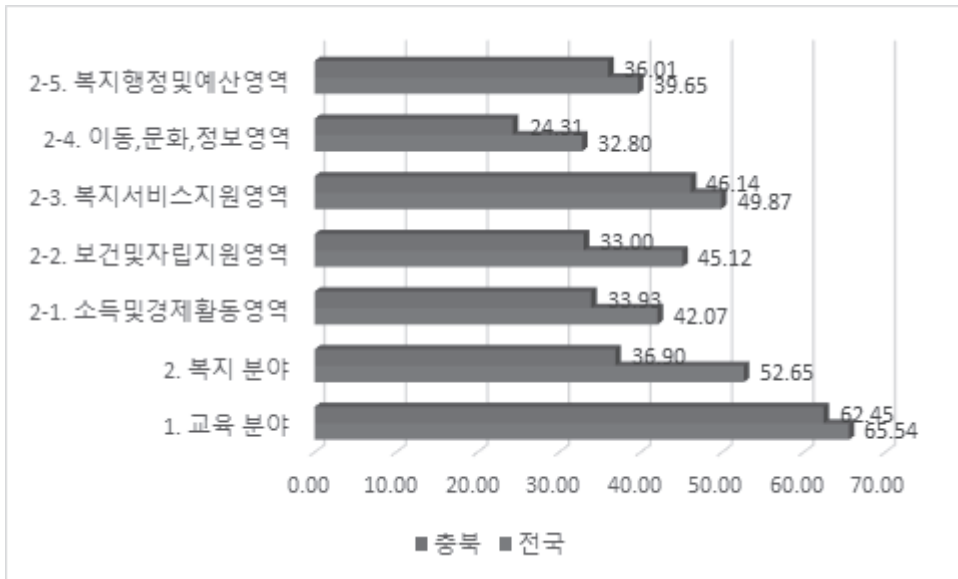
- 강원도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이 영역 중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으나 보통 등급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공무원 고

용품’,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분발 지표 중에서도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도에 이어 분발 등급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분발 수준으로 2022년도 보통 수준에서 하락하였기 때문에 큰 개선 노력이 요구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은 분발 등급에 3년 동안 속하였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11. 충청북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충북 점수	62.45	36.90	33.93	33.00	46.14	24.31	36.01
충북 수준	보통	분발	분발	분발	보통	분발	보통



2024년 충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2.45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36.90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서비스 지원(46.14점), 복지행정 및 예산(36.01점) 영역은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33.93점), 보건 및 자립지원(33.00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4.31점) 영역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보통

(충북 62.45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북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30,629원	양호	보통	보통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3.27%	양호	양호	보통
특수학급 설치율	5.02%	6.71%	우수	우수	우수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131.19%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보통	보통	분발
	유급보조인력	10.23%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72.41%	보통	보통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2.19개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1.36%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충북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62.45점)으로 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보조인력배치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통합교육 학생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로 나타났다. 한편 분발 등급인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은 3년 동안 계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분발

(충북 33.93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북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3.62%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3.96%	보통	분발	분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0.71%	양호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107,734원	분발	분발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133,914원	분발	양호	분발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03%	양호	보통	보통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1,204,440원	양호	양호	양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6.89%	양호	보통	양호

2024년 충북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3.93점)으로서, 2022년 보통 등급이었으며 2023년 분발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으로서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2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발 등급 중 특히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3년 동안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에 속하여 개선에의 큰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분발

(충북 33.00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48,712원	분발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4.63%	분발	-	보통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33,198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4.40%	-	-	양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7.93%	양호	-	보통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321,429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15.68%	보통	-	분발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3,801,318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2.20%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438,580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24,961원	분발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7,111원	분발	-	분발

2024년 충북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3.00점)으로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금년도에 조사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하위 7개 지표 중 총 6개 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보조기기 지원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인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도에도 보통, 분발 등급에 속했었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보통

(충북 46.14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1.09개소	1.24개	우수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10.33개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8.96개	분발	-	보통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5.35개	양호	-	양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100.70명	분발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2.52명	양호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6.29명	분발	-	분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1.85%	분발	-	분발

2024년 충북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6.14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금년도 조사된 8개 지표 중 총 6개 하위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충북 24.31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118.44%	분발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25.55%	우수	보통	보통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76.84%	-	분발	보통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425.91%	-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9,782원	분발	분발	보통

2024년 충북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24.31점)으로서, 2022년 양호 등급이었으며 2023년 분발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표는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을 위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보통

(충북 36.01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29.06명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72.65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69건	양호	-	보통
	장애위원 수	30.43명	28.00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9.58건	분발	-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4,565천원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109.26%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15.66%	보통	-	양호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39.82%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28,706원	보통	-	보통
	기초 예산	89,943원	100,457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9,368원	양호	-	양호
	기초 예산	16,160원	50,916원			

2024년 충북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36.01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하위 7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도에도 분발 수준이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충청북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이었고,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분발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복지 분야 중에 우수와 양호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없었고,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충북의 강점 분야

- 충북 교육 영역 중 ‘특수학급 설치율’은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충북의 취약 분야

- 충북의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매우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이 매우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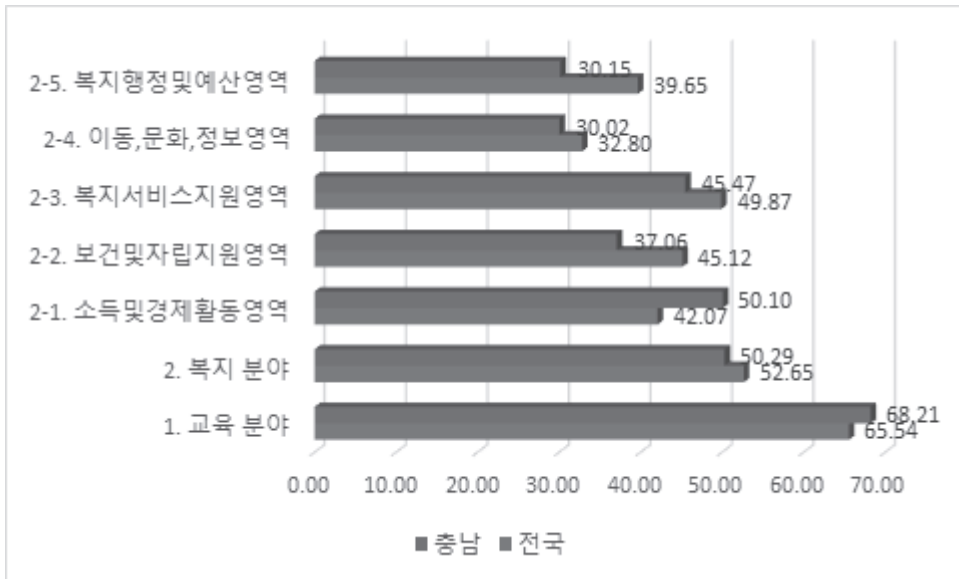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충청북도 우선 과제

- 충북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특히 분발 등급에 속하는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은 3년 동안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분발 등급 중 특히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3년 동안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에 속하여 개선에의 큰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도에 이어 보통·분발 등급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수준이어서 개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은 3년 동안 분발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함

12. 충청남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충남 점수	68.21	50.29	50.10	37.06	45.47	30.02	30.15
충남 수준	양호	보통	우수	분발	보통	보통	분발



2024년 충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8.21점으로 양호 등급으로서, 2022년 우수 등급이었으며 2023년 양호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0.29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50.10점)으로 나타났으며, 양호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45.47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30.02점)은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보건 및 자립지원(37.06점), 복지행정 및 예산(30.15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양호

(충남 68.21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남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43,770원	양호	양호	우수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4.37%	양호	양호	우수	
특수학급 설치율	5.02%	6.59%	우수	우수	우수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139.46%	양호	우수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12.13%	보통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10.64%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75.93%	우수	양호	우수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2.17개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1.27%	보통	보통	보통	

20214년 충남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68.21점)으로서, 2022년 우수 등급이었으며 2023년 양호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조사된 하위 8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 비율은 3년 동안 양호와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과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우수

(충남 50.10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남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3.55%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3.83%	보통	보통	분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1.41%	양호	우수	우수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201,433원	양호	보통	양호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389,522원	분발	양호	우수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16%	보통	우수	우수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791,774원	보통	보통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4.69%	분발	분발	분발

2024년 충남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50.10점)으로서, 2022년 분발 등급에서 2023년 양호 등급으로 해마다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3년 동안 계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에 속하였기 때문에 개선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분발

(충남 37.06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66,084원	양호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1.15%	양호	-	분발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6,564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2.66%	-	-	보통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12.76%	보통	-	우수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1,000,000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26.29%	우수	-	우수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4,081,847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4.54%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705,393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33,930원	양호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11,262원	양호	-	분발

2024년 충남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7.06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서 2등급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금년도에 조사된 7개 지표 중 총 5개 지표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후자에 속하는 하락 지표들은 모두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한 것이므로 수준 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보통

(충남 45.47점/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1.09개소	1.27개	우수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6.86개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16.19개	분발	-	우수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1.49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82.01명	보통	-	분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2.42명	양호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7.17명	보통	-	보통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3.24%	분발	-	분발

2024년 충남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5.47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하위 8개 지표 중 총 6개 하위 지표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으로 분발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획기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한 지표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에도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보통

(충남 30.02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293.40%	107.20%	분발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16.77%	분발	분발	분발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91.51%	-	보통	양호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634.79%	-	분발	양호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19,409원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충남의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보통 등급(30.02점)으로 2022년과 2023년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으며,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저상버스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하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분발

(충남 30.15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충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31.97	양호	-	보통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86.26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35건	양호	-	분발
	장애위원 수	30.43명	25.49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6.38건	양호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4,445천원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115.40%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20.53%	양호	-	보통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21.79%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22,009원	양호	-	보통
	기초 예산	89,943원	143,927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28,625원	보통	-	보통
	기초 예산	16,160원	3,236원			

2024년 충남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30.15점)으로 2022년 보통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으로 나타났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하위 7개 지표 모두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속하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도에도 분발 수준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충청남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이었고, 2022년 우수 등급이었으며 2023년 양호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복지 분야 중에 우수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이었으며, 양호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음.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음.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충남의 강점 분야

- 충북 교육 영역은 타시도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이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최고 수준이며, 이 영역 중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음

■ 충남의 취약 분야

- 충남의 교육 분야는 양호한 수준이며, 이 영역 중 분발 등급 지표는 없었음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의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못미치는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매우 열악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한 송수단 충족율’이 매우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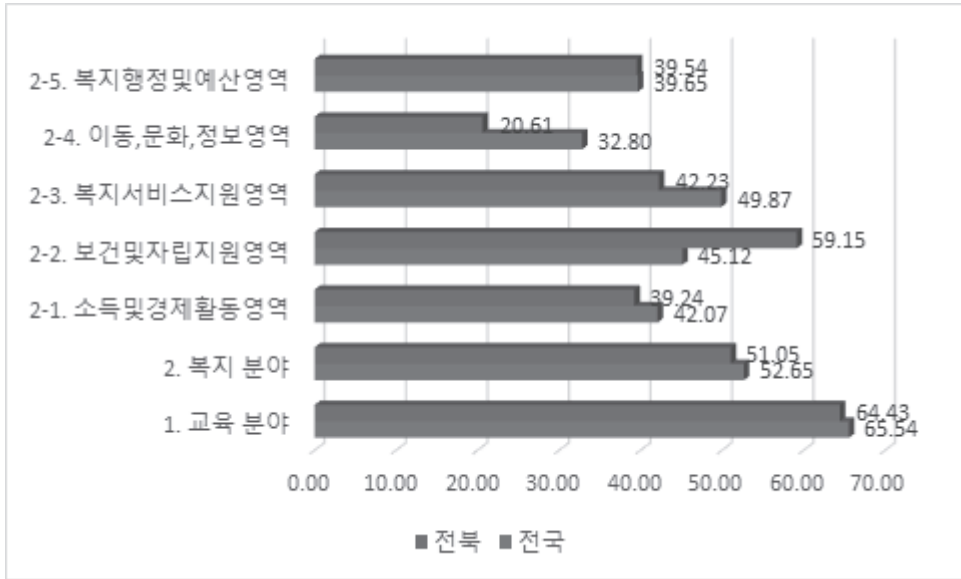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우선 과제

- 충남 교육 분야는 양호한 수준으로서, 분발 등급은 없으므로 보통 등급에 속하는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은 3년 동안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나, 특히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3년 동안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에 속하여 개선에의 큰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도 양호 등급에서 분발 등급으로 하락한 것이므로 회복을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분발 등급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2022년에도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개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3년 동안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이고, 특히 분발 등급 중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한 큰 노력이 요구됨

13. 전북특별자치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전북 점수	64.43	51.05	39.24	59.15	42.23	20.61	39.54
전북 수준	보통	보통	보통	우수	분발	분발	보통



2024년 전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4.43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양호 등급이었는데, 이에 비해 하락한 것이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51.05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는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59.15점)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다. 반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9.24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39.54점)은 보통 등급,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2.2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1.61점)은 분발 등급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1) 교육 분야(영역) : 보통

(전북 64.43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북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43,643원	양호	양호	우수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3.80%	양호	보통	양호
특수학급 설치율	5.02%	4.70%	보통	보통	보통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122.51%	양호	우수	보통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보통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73.81%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2.16개	양호	보통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1.51%	우수	양호	보통

2024년 전북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64.34점)으로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등급에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 지표가 포함되었다. 반면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다. 8개 지표 중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넘었고,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였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보통

(전북 39.24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북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4.75%	우수	우수	우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4.00%	보통	보통	분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0.76%	분발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141,809원	보통	보통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375,309원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02%	분발	보통	분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671,653원	분발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4.32%	분발	분발	분발

2024년 전북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39.24점)으로,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서는 상향하였고, 2023년 보통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이었고, 양호 등급에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는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즉 8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6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없었으며,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우수

(전북 59.15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343,916원	보통	-	우수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6.84%	양호	-	양호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55,775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4.51%	-	-	양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5.22%	보통	-	분발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1,224,444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18.37%	분발	-	보통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4,896,790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2.56%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552,300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189,462원	분발	-	우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10,570원	분발	-	분발

2024년 전북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45.12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분발 등급에서 상당히 상승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 보조기기 지원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등급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4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3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이다. 반면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은 하락하였다. 지표 중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분발

(전북 42.23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1.09개소	1.08개	보통	-	보통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9.29개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10.98개	보통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1.77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90.87명	보통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2.43명	분발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7.66명	양호	-	양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2.12%	분발	-	분발

2024년 전북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42.23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0년에도 분발 등급이어서 지속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속하였다. 즉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표는 2개, 전국 평균 이하인 지표는 6개가 속하여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고,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다만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여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전북 20.61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112.00%	분발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38.78%	보통	보통	양호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45.83%	-	양호	분발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90.52%	-	양호	분발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9,616원	보통	분발	보통

2024년 전북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20.61점)으로 나타나, 2023년 보통 등급에서 하락하였다. 2022년에는 분발 등급이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는 저상버스 확보수준만 속하였다. 반면 평균 이하 등급인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가 속하였고, 최하위 등급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전국 평균 이상인 지표는 1개 지표뿐이었고, 나머지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이었고, 하락한 지표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이었다.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보통

(전북 39.54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27.88명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101.35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86건	보통	-	보통
	장애위원 수	30.43명	21.58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10.87건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7,835천원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175.27%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40.90%	양호	-	우수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31.10%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5,538원	분발	-	분발
	기초 예산	89,943원	69,138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12,470원	보통	-	보통
	기초 예산	16,160원	11,874원			

2024년 전북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39.54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이었고,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속하였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4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광역 단위 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2022년에 비해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향상되었고,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전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이었고,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음
-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하였음
- 복지 분야 중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에 속하였으나,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여, 4개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었음

■ 전북의 강점 분야

-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우수함
- 복지 분야 중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임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의 수준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및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우수한 지표는 없음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우수함

■ 전북의 취약 분야

- 전북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등급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취약함.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취약한 수준임.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승승수단 총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이 상당히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매우 취약하고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취약함. 특히 광역 단위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전국 최하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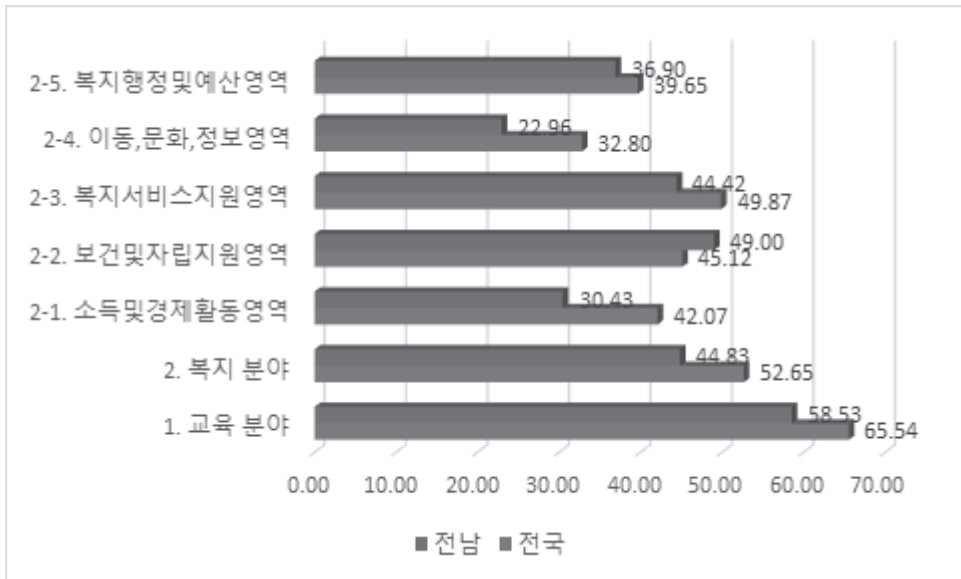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전북 우선 과제

- 전북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함. 특히 특수학습 설치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우수 등급이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함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여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특히 광역 단위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14. 전라남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전남 점수	58.53	44.83	30.43	49.00	44.42	22.96	36.90
전남 수준	분발	보통	분발	양호	보통	분발	보통



2024년 전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58.53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고, 이는 2023년과 동일하나,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서는 하락하였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44.83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49.00점)이 포함되었다. 반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4.42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36.90점)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0.4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2.96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복지 분야 중 4 영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1) 교육 분야(영역) : 분발

(전남 58.53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남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30,587원	양호	보통	보통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2.65%	보통	분발	분발
특수학급 설치율	5.02%	6.76%	우수	우수	우수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158.24%	우수	우수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보통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72.39%	양호	보통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2.35개	양호	우수	우수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1.03%	분발	분발	분발

2024년 전북 장애인 교육 분야는 분발 등급(64.34점)으로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하다. 2022년에는 양호 등급이었기 때문에 2022년에 비하면 하락한 것이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 지표가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이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이 포함되었고, 분발 등급에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 지표가 속하였다. 즉 8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넘었고, 5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고,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분발

(전남 30.43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남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3.46%	보통	보통	분발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3.45%	보통	보통	분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0.87%	0.42%	분발	분발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138,148원	양호	양호	보통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336,660원	보통	보통	양호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02%	보통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580,169원	분발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3.55%	분발	분발	분발

2024년 전남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0.43점)으로, 2022년, 2023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특히 올해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는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는 보통 등급에,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즉 8개 지표 중 1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7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지표만 향상되었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지표는 하락하였다. 특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양호

(전남 49.00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303,913원	분발	-	우수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8.40%	분발	-	우수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73,270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3.72%	-	-	양호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6.39%	보통	-	보통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853,659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21.27%	양호	-	보통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3,984,351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2.41%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464,076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24,698원	양호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16,713원	분발	-	분발

2024년 전남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양호 등급(49.00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보통 등급에서 상승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수준이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지표가 속하였다. 보통 등급에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3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4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수준이었고, 하락한 지표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이었다.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보통

(전남 44.42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1.09개소	1.32개	우수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7.12개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12.24개	양호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1.83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87.64명	보통	-	보통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2.50명	보통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6.74명	보통	-	분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3.99%	보통	-	보통

2024년 전남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44.42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속하였다. 즉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표는 2개 뿐이었고, 전국 평균 이하인 지표는 6개가 속하여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으며,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하락하였다.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전남 22.96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293.40%	112.86%	보통	보통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22.22%	분발	보통	분발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100.00%	-	우수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360.96%	-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9,933원	양호	보통	보통

2024년 전남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22.96점)으로 나타나, 2023년 양호 등급에서 상당한 수준 하락하였다. 2022년에는 분발 등급이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다. 반면 평균 이하 등급인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가 속하였고, 최하위 등급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5개 지표 중 전국 평균 이상인 지표는 1개 지표뿐이었고, 나머지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이었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은 하락하였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보통

(전남 36.90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전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34.11명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137.33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1건	양호	-	분발
	장애위원 수	30.43명	32.00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10.57건	보통	-	양호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5,066천원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88.42%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20.73%	보통	-	보통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25.73%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68,103원	양호	-	보통
	기초 예산	89,943원	121,408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26,150원	우수	-	양호
	기초 예산	16,160원	34,052원			

2024년 전남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보통 등급(36.90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즉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장애인 관련 위원회 개최 횟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2022년에 비해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는 향상되었고,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은 하락하였다.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전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2023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음
- 장애인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하였음
-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이 포함되었음. 반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음. 특히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음

■ 전남의 강점 분야

- 교육 영역 중 ‘특수학습 설치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는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수준’은 우수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은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전남의 취약 분야

- 전남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등급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특히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상당히 취약함
- 전남 복지 분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등급 수준으로 취약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이고, 이 영역 중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취약함.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이 상당히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취약함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전남 우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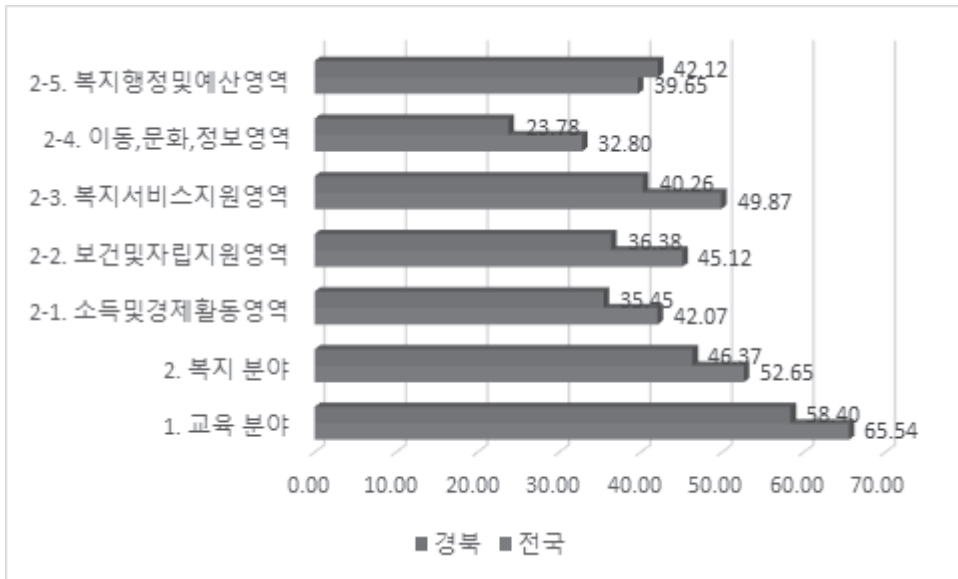
- 전남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은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 등급이나,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15. 경상북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경북 점수	58.40	46.37	35.45	36.38	40.26	23.78	42.12
경북 수준	분발	보통	분발	분발	분발	분발	양호



2024년 경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58.40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하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46.37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42.12점)이 속하였다. 반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5.45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36.38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0.26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3.78점)은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즉 5개 복지 영역 중 4개 영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1) 교육 분야(영역) : 분발

(경북 58.40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북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35,383원	분발	보통	양호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3.47%	분발	보통	보통
특수학급 설치율	5.02%	5.12%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128.84%	117.15%	분발	보통	보통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양호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73.95%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2.11개	양호	보통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0.98%	분발	분발	분발

2024년 경북 장애인 교육 분야는 분발 등급(58.40점)으로 2022년과 2023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 지표가 포함되었다. 반면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이었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속하였다. 즉 8개 지표 중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넘었고, 4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였고, 하락한 지표는 없었다.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전국 최하위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분발

(경북 35.45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북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3.77%	보통	양호	보통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5.12%	분발	양호	양호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0.46%	우수	분발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75,071원	양호	보통	분발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299,096원	양호	보통	보통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02%	보통	보통	분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1,182,493원	보통	보통	양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5.99%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경북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5.45점)으로, 2022년과 2023년의 보통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이 속하였다. 반면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이 포함되었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이 속하였다. 즉 8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6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향상되었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분발

(경북 36.38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114,639원	분발	-	보통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6.92%	분발	-	양호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45,672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0.46%	-	-	분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10.90%	보통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747,059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13.70%	보통	-	분발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2,945,795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1.58%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1,666,267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3,639원	분발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409원	분발	-	분발

2024년 경북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2022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36.38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 보조기기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지표가 포함되었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이 포함되었고, 분발 등급에는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5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4개 지표가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이었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분발

(경북 40.26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1.09개소	1.18개	양호	-	양호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11.12개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7.40개	분발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1.68개	분발	-	분발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70.31명	분발	-	분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2.33명	보통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7.55명	양호	-	보통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2.60%	분발	-	분발

2024년 전북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40.26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하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속하였다. 즉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표는 1개 뿐이고, 전국 평균 이하인 지표가 7개로, 특히 분발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가 4개로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지표는 양호 등급에서 보통 등급으로 하락하였다.

분발 등급에 속한 4개 지표, 즉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모두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경북 23.78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293.40%	99.32%	분발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17.49%	분발	분발	분발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86.61%	-	보통	양호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388.97%	-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15,753원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경북의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23.78점)으로 나타나, 2023년 보통 등급에서 하락하였다. 2022년에는 분발 등급이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고, 양호 등급에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평균 이하 등급인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가 속하였고, 최하위 등급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전국 평균 이상인 지표는 2개 지표이고, 나머지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향상되었고, 하락한 지표는 없다.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양호

(경북 42.12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북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29.07명	양호	-	양호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149.97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127건	보통	-	양호
	장애위원 수	30.43명	20.15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7.61건	보통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4,790천원	분발	-	분발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97.05%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19.88%	보통	-	양호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31.98%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59,637원	양호	-	우수
	기초 예산	89,943원	375,272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9,141원	우수	-	양호
	기초 예산	16,160원	29,882원			

2024년 경북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 등급(42.12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특히 장애인단체 지원 중 기초단체 예산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이 포함되었다. 반면 하위 등급인 분발 등급에는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지표가 포함되었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5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2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중 장애위원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2022년에 비해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향상되었고,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경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분발 등급이었고,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함
-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하였음
-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속함. 반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함

■ 경북의 강점 분야

- 교육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복지 분야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우수함. 특히 기초단체의 지원 예산액은 전국 최고 수준임

■ 경북의 취약 분야

- 경북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등급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 교육 영역 중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취약함
- 복지 분야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등급임. 복지 행정 및 예산 영역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보통 등급이 되었으나, 나머지 4 영역은 모두 분발 등급으로 상당히 취약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비율', '1인당 장애 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상당히 취약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이 상당히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취약한 수준이고, 특히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중 장애위원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경북 우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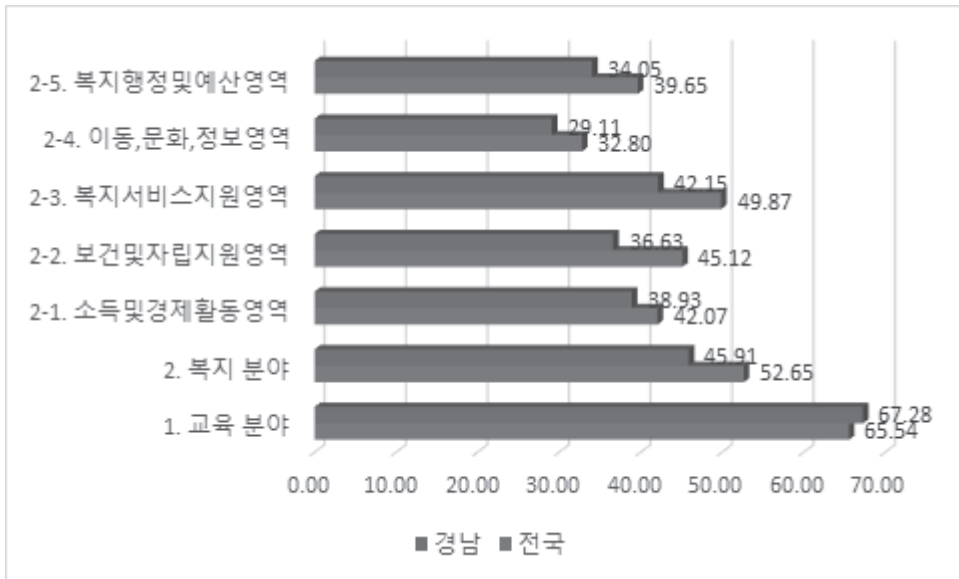
- 경북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전국 최하위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비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이를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함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분발 등급에 속한 4개 지표, 즉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모두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16. 경상남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경남 점수	67.28	45.91	38.93	36.63	42.15	29.11	34.05
경남 수준	양호	보통	보통	분발	분발	보통	분발



2024년 경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7.28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양호 등급과 동일하고 2022년의 보통 등급에 비해서는 향상되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45.91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다.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포함된 영역은 없었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8.9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9.11점)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36.63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2.15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34.05점)은 분발 등급에 속하여, 복지 분야의 5개 영역은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양호

(경남 67.28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남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40,017원	보통	보통	양호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4.31%	보통	양호	우수
특수학급 설치율	5.02%	5.49%	양호	양호	양호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128.84%	129.46%	보통	보통	양호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분발	보통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75.16%	우수	우수	양호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2.19개	양호	보통	양호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1.62%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경남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67.28점)으로 2023년 양호 등급과 동일하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 장애인 교원 고용률 지표가 포함되었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었다. 8개 지표 중 7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넘었고, 1개 지표만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최하위 등급인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가 없었다.

2023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지원 비율,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였고,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지표는 2023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보통

(경남 38.93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남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3.73%	보통	보통	보통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3.91%	양호	보통	분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0.59%	보통	분발	분발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176,178원	양호	보통	양호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330,104원	양호	보통	보통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008%	분발	양호	양호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905,853원	분발	보통	보통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5.85%	보통	보통	보통

2024년 경북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보통 등급(38.93점)으로, 2022년과 2023년의 보통 등급과 동일한 수준이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가 포함되었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지표가 속하였다. 8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6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이었고,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이었다.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분발

(경남 36.63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78,772원	분발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4.99%	우수	-	보통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38,759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62.89%	-	-	보통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8.55%	우수	-	양호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1,020,408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22.14%	양호	-	보통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4,163,292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2.19%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411,513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27,238원	분발	-	분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895원	분발	-	분발

2024년 경남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36.63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양호 등급에서 상당히 하락하였다. 2021년의 분발 등급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이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는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지표가 포함되었다. 반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보통 등급에는 보조기기 지원수준,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지표가 속하였고, 하위 수준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1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나머지 6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고, 보조기기 지원수준,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이기 때문에 적극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분발

(경남 42.15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1.09개소	0.95개	양호	-	보통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13.43개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7.36개	분발	-	분발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3.39개	보통	-	보통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55.45명	분발	-	분발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2.48명	양호	-	보통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7.56명	양호	-	보통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3.31%	분발	-	분발

2024년 경남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42.15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보통 등급에 비해 하락한 수준이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 속하였다.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이 속하였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중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표는 하나도 없었고, 8개 지표는 모두 전국 평균 이하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었고,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여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보통

(경남 29.11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293.40%	119.48%	분발	분발	분발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32.97%	양호	보통	양호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100.00%	-	보통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564.14%	-	분발	보통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7,418원	보통	보통	분발

2024년 경남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보통 등급(29.11점)으로 나타나, 2023년 보분발 등급에 비해 향상되었다. 2022년에는 양호 등급이었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 등급에는 저상버스 확보수준이 속하였다. 반면 평균 이하 등급인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가 속하였고, 최하위 등급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전국 평균 이상인 지표는 2개였고, 나머지 3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3년에 비해 저상버스 확보수준,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지표는 등급이 상승하였고,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하락하였다.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분발

(경남 34.05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경남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31.51명	보통	-	보통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85.25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79건	우수	-	양호
	장애위원 수	30.43명	28.52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7.05건	보통	-	분발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4,740천원	우수	-	보통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143.56%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18.54%	분발	-	양호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33.72%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54,350원	보통	-	보통
	기초 예산	89,943원	95,105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20,565원	분발	-	보통
	기초 예산	16,160원	13,414원			

2024년 경남의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34.05점)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 상당히 하락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 등급에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이 포함되었다. 반면 보통 등급에는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 등급에는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지표가 속하였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2개 지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지표였고,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이었다.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수는 2022년에도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경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양호 등급으로 2023년의 양호 등급과 동일함
-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보통 등급으로,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음
-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포함된 영역은 없었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여, 복지 분야의 5개 영역은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음

■ 경남의 강점 분야

- 경남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우수함
- 복지 분야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우수한 지표는 없음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은 우수함

■ 경남의 취약 분야

- 경남 교육 영역 중 분발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음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지표는 취약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는 상당히 취약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 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취약한 수준임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은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수준은 취약함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경남 우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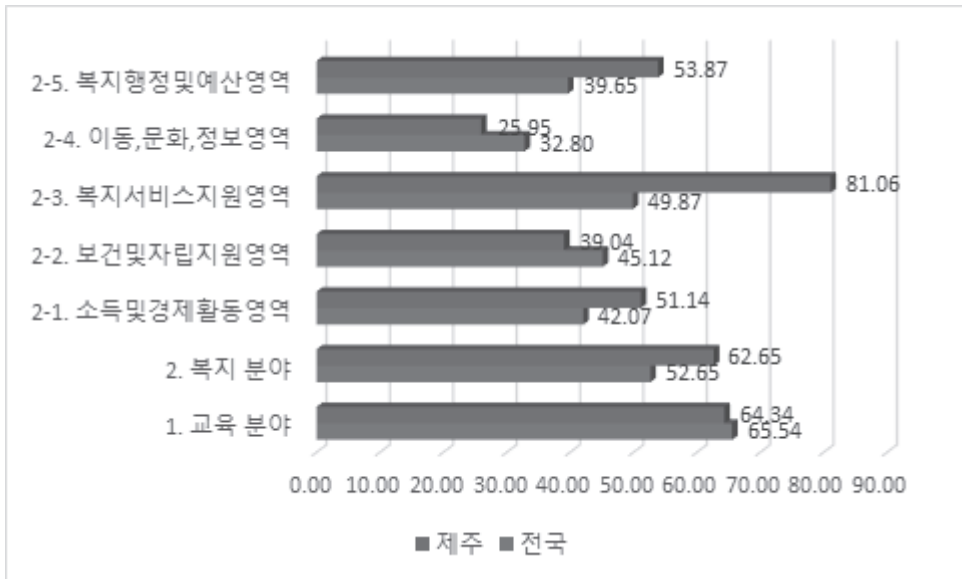
- 경남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 이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특히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지표는 2023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은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분발 등급으로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이기 때문에 적극적 개선 노력이 필요함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

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은 2022년에 이어 2024년에도 분발 등급에 속하여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특히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은 전국 최하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은 2022년,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수'는 2022년에도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으나, 2024년 조사에서는 분발 등급으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함

17. 제주특별자치도

구 분	장애인 교육	장애인 복지	장애인 복지 세부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전국평균	65.54	52.65	42.07	45.12	49.87	32.80	39.65
제주 점수	64.34	62.65	51.14	39.04	81.06	25.95	53.87
제주 수준	보통	우수	우수	보통	우수	분발	우수



2024년 제주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4.34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62.65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51.14점), 복지서비스 지원(81.06점), 복지 행정 및 예산(53.87점)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39.04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이동(편의)· 문화 여가· 정보 접근 영역은 25.95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1) 교육 분야(영역) : 보통

(제주 64.34점 / 전국 평균 65.54점, 전국 최고 78.41점, 전국 최하 56.28점)

교육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제주	등급			
			2022	2023	2024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35,238원	32,020원	분발	분발	보통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3.75%	4.12%	분발	보통	우수	
특수학급 설치율	5.02%	4.50%	보통	분발	보통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128.84%	99.90%	분발	분발	분발	
특수교육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전체보조인력	13.93%	12.41%	보통	분발	보통
	유급보조인력	10.23%	10.39%			
통합교육 학생비율	72.22%	69.34%	보통	보통	보통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	2.07개	1.74개	분발	분발	분발	
장애인 교원 고용률	1.56%	1.41%	양호	양호	보통	

2024년 제주도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등급(64.34점)으로 2022년과 2023년의 분발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영역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우수등급에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지표가 속하였고, 양호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었다. 보통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로 나타났다. 8개 지표 중 1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넘었고, 7개 지표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하였고, 장애인 교원 고용율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 지표는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총원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확보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 우수

(제주 51.14점 / 전국 평균 42.07점, 전국 최고 52.23점, 전국 최하 30.43점)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제주	등급		
			2022	2023	2024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3.80%	3.97%	양호	양호	양호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4.74%	4.55%	분발	양호	보통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0.87%	1.13%	우수	분발	양호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49,979원	448,061원	보통	우수	우수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333,935원	442,737원	보통	우수	우수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0.005%	0%	분발	분발	분발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	1,143,304원	2,682,088원	우수	우수	우수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6.88%	10.17%	양호	양호	양호

2024년 제주도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우수등급(51.14점)으로, 2022년, 2023년 우수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으로 나타났다. 양호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로 나타났다. 보통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분발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향상된 지표는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공무원 고용률로 나타났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은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 보통

(제주 39.04점 / 전국 평균 44.93점, 전국 최고 63.47점, 전국 최하 30.21점)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제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136,280원	91,343원	양호	-	분발
보조기기 지원 수준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비율	5.99%	6.78%	양호	-	양호
	보장구 의료급여 및 보조기구 교부 예산	42,516원	44,829원			
일반건강검진 수검 비율		63.50%	58.55%	-	-	분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여성장애인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비율	8.24%	5.00%	분발	-	분발
	여성장애인 1인당 출산 및 검진 지원비	994,938원	500,000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세 이상 65세 미만	21.73%	19.07%	우수	-	양호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세 이상 65세 미만	4,651,598원	3,792,124원			
	활동지원서비스 실 인원 비율 65세 이상	2.56%	3.00%			
	활동지원서비스 평균급여량 65세 이상	1,105,186.29원	626,458원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76,118원	63,640원	양호	-	보통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40,596원	11,963원	분발	-	분발

2024년 제주도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보통등급(39.04점)으로 나타났고, 2022년의 양호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고, 양호등급에는 보조기기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지표가 속하였다. 전국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보통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고, 분발등급에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이처럼 금년도에 조사한 보건 및 자립지원영역의 7개 지표 중 2개 지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고, 5개 지표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없고,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

4)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 우수

(제주 81.06점 / 전국 평균 49.87점, 전국 최고 81.06점, 전국 최하 34.95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제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1.09개소	1.63개	우수	-	우수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13.47개소	13.98개	보통	-	양호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10.73개소	17.61개	우수	-	양호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3.73개소	7.04개	우수	-	우수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117.61명	225.36명	우수	-	우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2.62명	3.90명	우수	-	우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7.59명	8.54명	우수	-	양호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4.87%	17.02%	우수	-	우수

2024년 제주도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인 우수등급(81.06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 우수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로 나타났다. 양호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다.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등급과 분발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8개 지표 모두에서 전국 평균에 비해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2022년도에 비해 상승한 지표는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이었고, 하락한 지표는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이었다.

제주도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노력을 계속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5)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 분발

(제주 25.95점 / 전국 평균 32.80점, 전국 최고 80.50점, 전국 최하 20.6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제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293.40%	366.18%	양호	양호	양호
저상버스 확보수준	31.80%	19.66%	분발	보통	분발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85.06%	100.00%	-	우수	우수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617.27%	115.26%	-	분발	분발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13,743원	22,684원	우수	우수	양호

2024년 제주도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분발등급(25.95점)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우수 등급에 비해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등급에는 지자체 barrier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가 속하였다. 양호 등급에는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지표가 속하였다. 반면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분발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비해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은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 양호

(제주 53.87점 / 전국 평균 39.65점, 전국 최고 60.00점, 전국 최하 28.97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세부 지표		전국 평균	제주	등급		
				2022	2023	2024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복지 전담 공무원	35.83명	34.23명	보통	-	분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81.02명	41.40명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개최 횟수	57.53건	2건	보통	-	분발
	장애위원 수	30.43명	34.78명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12.45건	30.00건	양호	-	우수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1인당장애인복지예산	6,825천원	11,893천원	우수	-	양호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수준	149.48%	113.69 %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	광역 지방비 비율	33.43 %	45.59 %	우수	-	우수
	기초 지방비 비율	21.48 %	39.79 %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광역 예산	539,965원	1,017,658원	양호	-	양호
	기초 예산	89,943원	95,634원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광역 예산	27,063원	46,621.91원	양호	-	양호
	기초 예산	16,160원	12,437원			

2024년 제주도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양호등급(53.87점)으로 2022년 양호등급과 동일하였다. 2023년에는 이 영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이었다. 양호등급에는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지표가 속하였다. 전국 하위 수준인 분발 등급에는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이 속하였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7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2022년에 비해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는 향상되었고,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하락하였다.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2022년과 2024년 모두 우수 등급으로 잘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제언

■ 전반적 평가

- 2024년 제주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보통 등급이었고,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우수 등급으로,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함
- 복지 분야 하위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우수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분발 등급에 속하였음

■ 제주도의 강점 분야

- 제주도 장애인 복지 분야는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복지 분야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강점을 보임. 특히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임
- 교육 영역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우수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수준이고, 이 영역 중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수준'은 우수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지표는 없음
-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 총족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지표는 우수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 중 '지자체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 비율' 지표는 우수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기관별 장애관련 조례 수', '장애인복지예산 지방비 비율'은 우수함

■ 제주도의 취약 분야

- 제주도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 특히 '특수교사 법정 정원 총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으로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취약한 수준임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이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일반건강검진 수검비율',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수준은 상당히 열악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분발 수준으로 취약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이 취약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은 매우 취약한 수준임

■ 향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위한 제주도 우선 과제

- 제주도 교육 분야는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함. 특히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우수한 수준이나, 이 영역 중 ‘장애인자립자금 대여비율’ 지표는 3년 연속 분발등급에 속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2022년과 2024년에 연속으로 분발 등급에 속하고 있어 개선이 상당히 필요함
-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2022년과 2023년의 우수 등급에 비해 상당히 하락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이 영역 중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현황’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IV

재정자립도와 교육·복지 수준 분석

1.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 비교 분석
2.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 분석

우리나라에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의해 지방 재정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지역 간 격차 및 지방 재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박중훈, 2023).

지방 재정의 취약성은 복지 등 지자체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 나타났듯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의 시도별 격차는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시도에서는 지방 재정의 취약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장에서는 지방 재정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인 재정자립도와 이번 조사결과 도출된 장애인 교육 수준 및 복지 수준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 비교 분석

1)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 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박중훈, 2023). 지방재정 구조는 중앙정부와 동일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3가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활용되는 예산으로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등)과 이전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그 외 지방채로 구성된다(지방재정 365).

안정적인 재정 확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체 세입 중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자체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의미한다(이현정, 2022).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지방재정365).

2023년도 기준 재정자립도 자료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인 지방재정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세입 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개편 후 세입 항목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측정하였고, 일반회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산정공식은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규모)×1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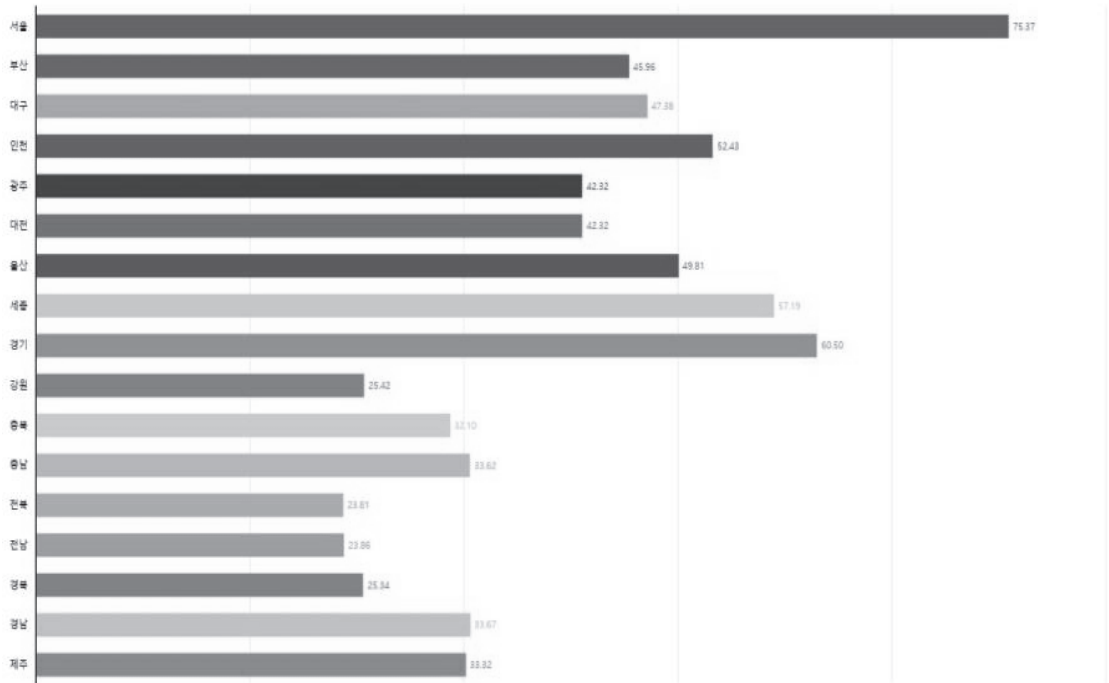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이 75.37%로 가장 높고, 전북이 23.81%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41.44%였다. 각 시도별 재정자립도는 다음 표 및 그림과 같다.

〈표 IV-1〉 시도별 2023년도 재정자립도

(단위: 백만 원, %)

지자체명	자체수입	자치단체 예산규모	재정자립도[당초]
	(A)	(B)	(A/Bx100)
서울	28,109,042	37,295,807	75.37
부산	6,428,474	13,986,964	45.96
대구	4,652,562	9,819,280	47.38
인천	6,293,888	12,004,354	52.43
광주	2,701,468	6,384,170	42.32
대전	2,581,849	6,100,662	42.32
울산	2,441,307	4,900,924	49.81
세종	883,224	1,544,390	57.19
경기	29,532,058	48,815,410	60.5
강원	3,508,253	13,800,589	25.42
충북	3,501,249	10,908,665	32.1
충남	5,091,913	15,144,521	33.62
전북	3,557,095	14,937,227	23.81
전남	4,353,120	18,241,581	23.86
경북	5,609,136	22,134,769	25.34
경남	6,897,482	20,487,951	33.67
제주	1,906,733	5,723,047	33.32

출처: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그림 IV-1] 시도별 2023년도 재정자립도

출처: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2)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2024년 조사, 앞 2장 참조)

2023년 말 기준으로 측정한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65.54점이었고, 세종이 78.4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가 56.2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최고 수준과 최하 수준의 격차 수준(78.41점/56.28점)이 1.39배로 지역 간 격차는 크지 않았다.

지역 간 격차를 구분하기 위해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였다. 전국 평균과 최고 수준과의 1/2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1/2 이상을 우수 등급으로 1/2 이하를 양호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또 전국 평균과 최하 수준의 1/2 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1/2 이상을 보통 등급으로 1/2 이하를 분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즉 수준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측정 결과 우수 등급에는 대전, 세종 2개 지역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는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경남 6개 지역이, 보통 등급에는 부산, 강원, 충북, 전북, 제주 5개 지역이, 분발 등급에는 인천, 경기, 전남, 경북 4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표 IV-2〉 2023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 점수

(단위: 점)

지자체명	2024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장애인 교육 수준	등급
서울	71.08	양호
부산	62.70	보통
대구	65.78	양호
인천	60.34	분발
광주	66.33	양호
대전	76.41	우수
울산	71.80	양호
세종	78.41	우수
경기	56.28	분발
강원	61.42	보통
충북	62.45	보통
충남	68.21	양호
전북	64.43	보통
전남	58.53	분발
경북	58.40	분발
경남	67.28	양호
제주	64.34	보통

출처: 보고서 2장

3) 상관관계 분석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는 0.370으로 나왔고, 유의 확률은 0.144였다.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 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은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다른 요인에 의해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유형 비교

(1) 연구 방법 -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 간 상관성이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을 지표로 하여 유형 분석을 함으로써 각 시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시도별 비교를 위한 17개 사례 수와 같이, 한정된 사례에 대하여 다양성과 변화를 보고자 하는 경우 퍼지셋 이상형 분석이 적절하다(이동석, 2018). 또 이 분석 방법의 특징 중 하나인 부분적인 소속 점수를 활용하면, 한 사례가 속하는 이상형과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이상형에 속하는 정도도 파악할 수 있음에 따라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최영준, 2009). 이에 따라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모형

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첫 단계로 이론적이며 실질적인 지식을 사용하여 특성 공간의 구축을 위한 이념형의 속성들을 밝혀야 한다(남궁은, 2019; Kvist, 2007). 이 연구에서는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을 비교 분석할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과 같은 2개의 지표를 사용하고, 4개의 이념형을 도출하였다.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이면서 장애인 교육 수준도 높은 유형이다. 교육 추구형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은 유형이다. 교육 축소형은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은 낮은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장애인 교육 수준도 낮은 유형이다.

〈표 IV-3〉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에 관한 이론적 모형

구분	유형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음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교육 수준이 낮음	교육 축소형
재정자립도가 낮고,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음	교육 추구형
재정자립도가 낮고, 장애인 교육 수준이 낮음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3) 분석 결과

앞선 이상형 구축을 위한 지표 설정 이후, 퍼지셋 이상형 분석 절차(최영준, 2009; Kvist, 2007)에 따라, 지표의 실증점수를 측정하고, 각 사례들의 특성 공간에 대한 퍼지소속점수를 계산(calibration)하고, 각 사례들이 각 이상형에서 가지는 소속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후 대표유형을 결정하고, 유형별 차이점 및 유형 내에서의 차이점 등 다양한 해석을 하였다(최영준, 2009).

우선 2개 지표의 실증점수는 <표 IV-1>과 <표 IV-2>를 활용하였다. 이를 퍼지소속점수로 계산(calibration)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2개 지표의 실증점수와 퍼지소속점수

지자체명	실증점수		퍼지소속점수	
	재정자립도	장애인 교육 수준	재정자립도	장애인 교육 수준
서울	75.37	71.08	0.95	0.78
부산	45.96	62.70	0.60	0.28
대구	47.38	65.78	0.63	0.51
인천	52.43	60.34	0.73	0.16
광주	42.32	66.33	0.52	0.55
대전	42.32	76.41	0.52	0.93
울산	49.81	71.80	0.68	0.81
세종	57.19	78.41	0.80	0.95
경기	60.5	56.28	0.84	0.05
강원	25.42	61.42	0.06	0.21
충북	32.1	62.45	0.17	0.27
충남	33.62	68.21	0.21	0.65
전북	23.81	64.43	0.05	0.41
전남	23.86	58.53	0.05	0.09
경북	25.34	58.40	0.06	0.09
경남	33.67	67.28	0.21	0.60
제주	33.32	64.34	0.20	0.40

영역별 퍼지소속점수를 바탕으로 퍼지 교집합기능과 부정의 원리를 사용하여(이동석, 2018), 시도별로 각 유형에 속하는 퍼지소속점수를 계산하였다. 이 중 최대값을 갖는 유형이 실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유형(kind)이고, 최대값의 퍼지소속점수는 그 유형에 속하는 정도(degree)가 된다(이동석, 2018). 이에 따라 시·도별 대표유형과 소속 정도를 파악하게 되었다.

〈표 IV-5〉 시·도의 유형별 소속 점수 및 대표유형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교육 축소형	교육 추구형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대표유형
서울	0.78	0.22	0.05	0.05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부산	0.28	0.60	0.28	0.40	교육 축소형
대구	0.51	0.49	0.47	0.47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인천	0.16	0.73	0.16	0.27	교육 축소형
광주	0.52	0.45	0.48	0.45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대전	0.52	0.07	0.48	0.07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울산	0.68	0.19	0.32	0.19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세종	0.80	0.05	0.20	0.05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
경기	0.05	0.84	0.05	0.16	교육 축소형
강원	0.06	0.06	0.21	0.79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충북	0.17	0.17	0.27	0.73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충남	0.21	0.21	0.65	0.35	교육 추구형
전북	0.05	0.05	0.41	0.59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전남	0.05	0.05	0.09	0.91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경북	0.06	0.06	0.09	0.91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경남	0.21	0.21	0.60	0.40	교육 추구형
제주	0.20	0.20	0.40	0.60	재정의존 교육 감퇴형

첫째,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교육 수준도 높은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에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과 같은 6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모두 광역시라는 특징이 있다. 같은 유형임에도 시도별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과 세종은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에 속하는 정도가 각각 0.78과 0.80으로 높은 수준이다. 즉 전형적인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대구와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은 재정비례 교육 증진형에 속하기는 했지만 속하는 정도가 각각 0.51과 0.52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다른 세 영역에 속하는 정도도 비슷하다. 즉 4유형에 속하는 정도가 비슷한 것으로,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교육 수준 모두 전국 평균에 근접

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재정자립도에 맞춰 장애인 교육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와 광주에 재정자립도 또는 장애인 교육 수준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다른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전, 울산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으면서도 교육 추구형, 즉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더 높인 유형에 속하는 정도도 높았다. 대전, 울산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지자체에서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 축소형에는 부산, 인천, 경기와 같은 3개 지역이 속하였다. 인천과 경기는 교육 축소형에 속하는 정도가 높아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을 위한 노력이 현저히 적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대표유형은 교육 축소형(0.60)이지만 재정 의존 교육 감퇴형에 속하는 정도(0.40)도 높아 재정자립도가 조금 더 낮아지면 재정 의존 교육 감퇴형에 속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부산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면서 장애인 교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인천과 경기도는 현재 재정자립도에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교육 추구형에는 충남과 경남 2개 지역이 속하였다. 충남, 경남 모두 대표유형은 교육 추구형이었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이 조금 더 떨어질 경우 재정 의존 교육 감퇴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를 높이면서 장애인 교육 수준을 더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자립도가 낮아 장애인 교육 수준도 낮은 재정 의존 교육 감퇴형에는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제주와 같은 6개 지역이 속하였다. 모두 도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강원(0.79), 충북(0.73), 전남(0.91), 경북(0.91)은 전형적으로 재정자립도도 낮으면서 장애인 교육 수준도 낮은 지역이다. 반면 전북과 제주에 재정 의존 교육 감퇴형에 속하는 정도가 각각 0.59와 0.60이면서 교육 추구형에 속하는 정도가 각각 0.41과 0.40으로,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정자립도 증가와 장애인 교육 수준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4유형을 다시 재유형화하면 6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울과 세종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 이에 맞춰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은 유형이다. 둘째, 대구와 광주는 재정자립도가 중간 수준이면서 이에 맞춰 장애인 교육 수준도 중간 정도인 유형으로 재정자립도에 맞춰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 유형이다. 셋째, 부산은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유형이다. 넷째, 인천,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유형이기는 하지만 재정자립도에 비해 교육 수준이 현격히 낮기 때문에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유형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다섯째,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전북, 제주에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더 노력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더라도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한 유형이다. 여섯째, 강원, 충북, 전남, 경북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장애인 교육 수준도 현저히 낮은 유형이다.

〈표 IV-6〉 대표유형 재유형화

구분	시도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여 장애인 교육 수준이 높은 유형	서울, 세종
중간 정도의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여 장애인 교육 수준이 중간인 유형	대구, 광주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유형	부산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유형	인천, 경기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높이고자 더 노력한 유형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전북, 제주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장애인 교육 수준이 현저히 낮은 유형	강원, 충북, 전남, 경북

5) 제언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재정자립도가 중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세종, 대전, 울산, 충남, 경남, 전북, 제주. 대구, 광주는 현재 장애인 교육 수준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현재와 같은 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여력이 될 경우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부산, 인천, 경기는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교육 수준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강원, 충북, 전남, 경북은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예산의 효율성 사용 등을 통해 장애인 교육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2.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 분석

1)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2024년 조사, 앞 2장 참조)

2023년 말 기준으로 측정한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52.65점이었고, 대전이 67.15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이 36.90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최상위와 최하위 간 격차는 1.82배(67.15점/36.90점)로 나타났고, 2022년 조사 시 격차 1.40배(67.07점/48.01점)에 비해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전,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광주, 울산, 세종, 경기 5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지역이고, 분발은 충북 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IV-7〉 2023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 점수

(단위: 점)

지자체명	2024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장애인 복지 수준	등급
서울	65.85	우수
부산	56.01	양호
대구	48.87	보통
인천	47.58	보통
광주	57.35	양호
대전	67.15	우수
울산	55.40	양호
세종	53.90	양호
경기	54.54	양호
강원	50.48	보통
충북	36.90	분발
충남	50.29	보통
전북	51.05	보통
전남	44.83	보통
경북	46.37	보통
경남	45.91	보통
제주	62.65	우수

출처: 보고서 2장

2) 상관관계 분석

재정자립도¹⁾와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피어슨 상관계수는 0.502로 나왔고, 유의 확률은 0.040였다.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0.7 이상)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은 재정자립도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요인에 의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형 비교

(1) 연구 방법 - 퍼지셋 이상형 분석(Fuzzy-set Ideal Type Analysis)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교육 수준 간 상관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1절과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와 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을 지표로 하여 유형 분석을 함으로써 각 시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 수준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사용하였다.

(2) 이론적 모형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할 목적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 수준과 같은 2개의 지표를 사용하고, 4개의 이념형을 도출하였다.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이상이면서 장애인 복지 수준도 높은 유형이다. 복지 추구형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은 유형이다. 복지 축소형은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은 낮은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장애인 복지 수준도 낮은 유형이다.

〈표 IV-8〉 재정자립도와 장애인 복지 수준에 관한 이론적 모형

구분	유형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음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낮음	복지 축소형
재정자립도가 낮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음	복지 추구형
재정자립도가 낮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낮음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1) 재정자립도와 관련한 자료는 앞 1절의 내용과 동일하다.

(3) 분석 결과

1절과 마찬가지로 지표의 실증점수를 측정하고, 각 사례들의 특성 공간에 대한 퍼지소속점수를 계산(calibration)하고, 각 사례들이 각 이상형에서 가지는 소속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후 대표유형을 결정하고, 유형별 차이점 및 유형 내에서의 차이점 등 다양한 해석을 하였다.

우선 2개 지표의 실증점수는 <표 IV-1>과 <표 IV-7>을 활용하였다. 이를 퍼지소속점수로 계산(calibration)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2개 지표의 실증점수와 퍼지소속점수

지자체명	실증점수		퍼지소속점수	
	재정자립도	장애인 복지 수준	재정자립도	장애인 복지 수준
서울	75.37	65.85	0.95	0.94
부산	45.96	56.01	0.60	0.67
대구	47.38	48.87	0.63	0.33
인천	52.43	47.58	0.73	0.28
광주	42.32	57.35	0.52	0.73
대전	42.32	67.15	0.52	0.95
울산	49.81	55.40	0.68	0.64
세종	57.19	53.90	0.80	0.56
경기	60.5	54.54	0.84	0.60
강원	25.42	50.48	0.06	0.40
충북	32.1	36.90	0.17	0.05
충남	33.62	50.29	0.21	0.39
전북	23.81	51.05	0.05	0.42
전남	23.86	44.83	0.05	0.18
경북	25.34	46.37	0.06	0.23
경남	33.67	45.91	0.21	0.22
제주	33.32	62.65	0.20	0.89

영역별 퍼지소속점수를 바탕으로 퍼지 교집합기능과 부정의 원리를 사용하여(이동석, 2018), 시도별로 각 유형에 속하는 퍼지소속점수를 계산하였다. 이 중 최대값을 갖는 유형이 실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유형(kind)이고, 최대값의 퍼지소속점수는 그 유형에 속하는 정도(degree)가 된다(이동석, 2018). 이에 따라 시·도별 대표유형과 소속 정도를 파악하게 되었다.

〈표 IV-10〉 시·도의 유형별 소속 점수 및 대표유형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복지 축소형	복지 추구형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대표유형
서울	0.94	0.006	0.05	0.05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부산	0.60	0.33	0.40	0.33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대구	0.33	0.63	0.33	0.37	복지 축소형
인천	0.28	0.72	0.27	0.27	복지 축소형
광주	0.52	0.27	0.48	0.27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대전	0.52	0.05	0.48	0.05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울산	0.64	0.36	0.34	0.34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세종	0.56	0.44	0.20	0.20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경기	0.60	0.40	0.16	0.16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
강원	0.06	0.06	0.40	0.60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충북	0.05	0.17	0.05	0.83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충남	0.21	0.21	0.39	0.61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전북	0.05	0.05	0.42	0.58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전남	0.05	0.05	0.18	0.82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경북	0.06	0.06	0.23	0.77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경남	0.21	0.21	0.22	0.78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
제주	0.20	0.11	0.80	0.11	복지 추구형

첫째,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복지 수준도 높은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와 같은 7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같은 유형임에도 시도별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서울은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에 속하는 정도가 0.94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형적인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이다. 다음으로 부산, 광주, 대전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은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에 속하기는 했지만, 대표유형에 속하는 정도는 각각 0.60, 0.52, 0.52로 낮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 추구형에 속하는 정도가 각각 0.40, 0.48, 0.48로 높은 편이다. 결국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과 복지 추구형에 함께 속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정자

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더 높은 유형에 속하는 정도도 높았다. 이에 따라 부산, 광주, 대전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지자체에서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울산, 세종,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높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은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에 속하기는 했지만, 대표유형에 속하는 정도는 각각 0.64, 0.56, 0.60으로 낮은 수준이고, 복지 축소형에 속하는 정도도 각각 0.36, 0.44, 0.40으로 높은 편이다. 결국 재정비례 복지 증진형과 복지 축소형에 함께 속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수준이 다소 낮아 장애인 복지 수준이 낮아지면 언제든지 복지 축소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 세종, 경기도는 장애인 복지 수준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은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복지 축소형에는 대구, 인천과 같은 2개 지역이 속하였다. 인천은 복지 축소형에 속하는 정도가 0.72로 높아 전형적인 복지 축소형이고,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노력이 현저히 적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은 현재 재정자립도에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구의 경우 대표유형은 복지 축소형(0.63)이지만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에 속하는 정도(0.37)도 어느 정도 있어 재정자립도가 조금 더 나빠지면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에 속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대구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복지 추구형에는 제주 1개 지역이 속하였다. 또 대표유형에 속하는 정도가 0.80이라 대표적인 복지 추구형으로 볼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재정자립도가 낮아 장애인 복지 수준도 낮은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에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과 같은 7개 지역이 속하였다. 모두 도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충북(0.83), 전남(0.82), 경북(0.77), 경남(0.78)은 전형적으로 재정자립도도 낮으면서 장애인 복지 수준도 낮은 유형이다. 이에 따라 이 네 지역은 전체적인 재정자립도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강원, 충남, 전북은 대표 유형에 속하는 정도가 각각 0.60, 0.61, 0.58로 비교적 낮고, 모두 복지추구형에 속하는 정도가 각각 0.40, 0.39, 0.42로 어느 정도 이 유형에 속하는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에 따라 강원, 충남, 전북은 재정의존 복지 감퇴형이 대표 유형이지만, 복지 추구형의 속성도 상당히 갖고 있다. 즉 이 세 지역은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의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하였고, 조금 더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면 대표유형도 복지 추구형으로 바뀔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4유형을 다시 재유형화하면 5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 이에 맞춰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은 유형이다. 둘째, 울산, 세종, 경기도는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유형이다. 셋째, 대구, 인천은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유형이다. 넷째, 부산, 광주, 대전, 제주, 강원, 충남, 전북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더 노력한 유형이다. 이 유형은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지 않더라도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한 유형이다. 다섯째,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장애인 복지 수준도 현저히 낮은 유형이다.

〈표 IV-11〉 대표유형 재유형화

구분	시도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여 장애인 복지 수준이 높은 유형	서울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유형	울산, 세종, 경기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유형	대구, 인천
재정자립도에 비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더 노력한 유형	부산, 광주, 대전 제주, 강원, 충남, 전북
재정자립도가 낮으면서 장애인 복지 수준이 현저히 낮은 유형	충북, 전남, 경북, 경남

4) 제언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에 재정자립도가 중요하다 또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제주는 현재 장애인 복지 수준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현재와 같은 수준 유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여력이 될 경우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대구, 인천은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 수준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지자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울산, 세종,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높음에도 장애인 복지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충북, 전남, 경북, 경남은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장애인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이 부족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제주의 경우 장애인 복지 수준은 전국 3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보면 재정자립도 때문에 장애인 복지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할 수 있다.

202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V

결론 및 제언

1. 영역별 조사 결과 및 제언
2. 시·도별 조사 결과 및 제언

1. 영역별 조사결과 및 제언

분야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의 주요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65.54점이었고, 세종이 78.4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가 56.28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최고 수준과 최하 수준과의 격차 수준(78.41점/56.28점)이 1.39배로 지역 간 격차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가 1.18배(87.69/74.45), 2023년에는 1.32배(86.90/65.94)였던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 교육 분야의 지역 간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기와 경북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력이 더 많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부산, 인천, 강원은 3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복지 분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52.65점(최고 67.15점, 최하 36.90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간 격차는 1.82배(67.15점/36.90점)로 나타났고, 2022년 조사 시 격차 1.40배(67.07점/48.01점)에 비해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 분야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하위 등급에 속한 지자체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2022년,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한 충북은 장애인복지 분야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2022년, 2024년 모두 평균 이하 등급에 속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도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2024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 점수는 42.07점(최고 52.23점, 최하 30.43점)으로 나타났다. 2023년 53.71점(최고 73.78점, 최하 37.61점) 대비 19.39%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 1.96배(73.78/37.61) 대비 2024년에는 1.71배(52.23/30.43)로 작아짐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충북, 전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부산, 울산, 전북, 경북,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2024년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전국 평균 점수는 45.12점이고, 최고점수는 64.94점, 최하점수는 30.27점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 평균은 2022년 46.29점(최고 64.68점, 최하 33.27점) 대비 1.86% 하락하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 1.94배(64.68/33.27) 대비 2024년에는 2.14배(64.94/30.27)로 커짐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충북,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울산, 경기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2024년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전국 평균 점수는 49.87점이고, 최고점수는 81.06점, 최하점수는 34.95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49.87점(최고 81.06점, 최하 34.95점)으로 2022년 60.07점(최고 89.29점, 최하 47.51점) 대비 -16.98% 하락하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 1.87배(89.29/47.51) 대비 2024년에는 2.31배(81.06/34.95)로 커짐에 따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전북,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도 2년 연속 전국 평균값 이하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평균 점수는 32.80점(최고 80.50점, 최하 20.61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3.9배(80.50/20.61)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작

년의 2.5배(67.91/27.39)에 비해 격차가 더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하위 등급에 속한 지자체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 경기, 충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되어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수준 향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평균 점수는 39.65점(최고 60.00점, 최하 28.97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7배(60.00/28.97)로 지역 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22년 조사의 2.78배(49.19/17.68)에 비해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4년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한 부산, 인천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2022년과 2024년 모두 평균 이하인 등급에 속한 대구, 광주, 세종, 충북, 충남도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시·도별 조사결과 및 제언

다음으로, 시도별 장애인 교육·복지 수준 분석의 주요 결과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서울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1.08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65.85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52.2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80.50), 복지행정 및 예산(60.00%)이며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47.31점), 복지서비스 지원(61.48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은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등급으로 전반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과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부산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2.70점으로 2023년과 동일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 수'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6.01로 양호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보다 2단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없으며, 보건 및 자립지원(45.12점), 복지서비스 지원(54.52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42.18점)이 평균 이상의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41.79점)은 보통 등급, 복지행정 및 예산(29.07점)은 분발 등급으로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구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5.78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분발 등급을 받은 2023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48.87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보건 및 자립지원(63.47점)이며,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40.70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41.86점)으로 보통 등급, 복지서비스 지원(34.95점), 복지행정 및 예산(32.41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인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0.34점으로 2022년, 2023년과 동일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47.58점의 보통 등급으로 2022년 분발 등급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없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4.64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 지

원(43.50점), 복지서비스 지원(42.81점)은 보통 등급으로,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5.74점), 복지행정 및 예산(28.97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교육 분야는 지속적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복지 분야도 전국 평균 이하의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광주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5.33점의 양호 등급으로 2023년 보통 등급보다 상승하였으며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7.35점의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9.53점)이며 보건 및 자립지원(53.54점), 복지서비스 지원(60.53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32.68점), 복지행정 및 예산(39.32점)은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등급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표별로 보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표들이 많다. 개별 지표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수학급 설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 및 통합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대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3.41점으로 2022년, 2023년과 동일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67.15점으로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보건 및 자립 지원(56.93점), 복지행정 및 예산(51.82점)이며, 복지서비스 지원(58.72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40.97점)은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39.77점)은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교육과 복지 모든 영역이 우수 등급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지표별로 보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표들이 많다. 개별 지표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022년과 2024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울산광역시 장애인 교육 분야는 71.80점으로 양호 등급으로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동안 연속하여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5.40점으로 양호 등급으로서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으며,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56.66점으로 양호 등급이었다.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1.81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9.74점), 복지행정 및 예산(37.99점)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32.32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여덟째, 세종시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78.41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2023년의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3.90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으며,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45.86점), 보건 및 자립지원(54.00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34.32점)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45.98점), 복지행정 및 예산(35.45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분발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상당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홉째, 경기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56.28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4.54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보통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으며, 양호 등급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

원(43.08점), 복지행정 및 예산(40.03점)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44.04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복지서비스 지원(41.8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3.73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 영역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중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큰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 중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충족율',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접근예산 지원액'은 3년 연속 분발 수준이어서 개선을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하다.

열 번째, 강원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1.42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2023년의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50.48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보통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복지행정 및 예산(46.27점)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48.62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30.39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35.35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30.21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서, 이 영역 중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중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은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

열한 번째, 충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2.45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양호 등급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36.90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해당하는 영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서비스 지원(46.14점), 복지행정 및 예산(36.01점) 영역은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33.93점), 보건 및 자립지원(33.00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24.31점) 영역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충북 교육 분야는 개선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분발 등급에 속하는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율'은 3년 동안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상당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복지 영역 중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열두 번째, 충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8.21점으로 양호 등급으로서, 2022년 우수 등급이었으며 2023년 양호 등급과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50.29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50.10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복지서비스 지원(45.47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30.02점)은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보건 및 자립지원(37.06점), 복지행정 및 예산(30.15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중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 보조기기 지원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중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개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열세 번째, 전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4.43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양호 등급이었는데, 이에 비해 하락한 것이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51.05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는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59.15점)이 포함되었고, 양호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다. 반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9.24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39.54점)은 보통 등급,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2.2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1.61점)은 분발 등급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교육 수준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특수학습 설치율,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은 3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과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은 전반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열네 번째, 전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58.53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고, 이는 2022년과 동일하나,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서는 하락하였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44.83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49.00점)이 포함되었다. 반면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4.42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36.90점)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0.4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2.96점)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 복지 분야 중 4영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 교육 분야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과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을 개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열다섯 번째, 경북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58.40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과 동일하다. 2024년 장애인복지 분야는 46.37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분발 등급에 비해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속하는 영역은 없었고, 양호 등급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42.12점)이 속하였다. 반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5.45점),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36.38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0.26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3.78점)은 모두 분발 등급에 속하였다. 즉 5개 복지 영역 중 4개 영역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북은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을 제외한 교육 및 복지의 모든 영역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3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하였고, 특히 2024년 조사에서는 전국 최하위였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지원 예산',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 '장애인복지관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 '단기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충 수준', '지역사회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총족율',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수준을 높이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열여섯 번째, 경남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7.28점으로 양호 등급으로 나타났다. 2023년의 양호 등급과 동일하고 2022년의 보통 등급에 비해서는 향상되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45.91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양호 등급에 비해 하락하였다. 복지 분야 중 우수 등급과 양호 등급에 포함된 영역은 없었고,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38.93점),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29.11점)은 보통 등급에 속하였고,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36.63점),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42.15점),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34.05점)은 분발 등급에 속하여, 복지 분야의 5개 영역은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교육 분야는 전국 평균 이상이기는 하지만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율 지표는 2023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 분야의 다섯 영역은 모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열일곱 번째, 제주도의 장애인 교육 분야는 64.34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과 2023년의 분발 등급에서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장애인 복지 분야는 62.65점으로 우수 등급으로 나타나 2022년 우수 등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분야 중에 우수 등급에 해당되는 영역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51.14점), 복지

서비스 지원(81.06점), 복지행정 및 예산(53.87점)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39.04점으로 평균 이하인 보통 등급이었고, 이동(편의)·문화 여가·정보 접근 영역은 25.95점으로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도 교육 분야는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대상자 10명당 학급수’는 3년 연속 분발 수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 동(편의)·문화 여가·정보접근 영역의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이 영역 중 ‘저상버스 확보수준’, ‘장애인 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이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4). 2023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교육부(2024). 2023년 특수교육통계.
- 남궁은. 2019. “전국 장애인복지수준 비교를 통한 유형화와 영향 요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종훈(2023). 공간 관점에서 재정자립도 지표를 활용한 지역 간 재정 격차에 관한 실증연구: 공간계량모형과 해체기법의 혼합 적용. 공공사회연구, 13(3), 37-73.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회보장통계.
-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현황(2023년 12월 31일 기준).
- 이동석. 2018.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17개 시도별 교통수단정책 분석 - 보편주의 하에서의 표적화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10(3), 327-349.
- 이현정(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 측정지표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7(1), 67-101.
- 최영준. 2009. “사회과학에서 퍼지셋 활용의 모색: 퍼지셋 이상형 분석과 결합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3), 307-336.
- 한국교육개발원. 2023년 교육통계서비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3). 202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2). 2022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 Kvist, J. . 2007.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0(5). 474-481.
- Ragin, C. C. 2000. Fuzzy-set Social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발행일 : 2024년 12월 16일 발행

발행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팩스 : 02-783-0069

이메일 : mail@kofdo.kr

<https://kofdo.kr/>

편집·인쇄 : 블루애드 02) 6082-7076

ISBN 978-89-5983-348-1